M46-7-4/2006.01
제7권 제4호/Vol. 7 No. 4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70 전송 02-959-6110
- 내용 문의: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지인배 jiinbae@krei.re.kr 02-3299-4324

이정연 sabrina@krei.re.kr 02-3299-4370

목 차

□ 포커스

북한 농업 현황과 전망 / 3

□ 동향분석

1. 농업정책 / 18
2. 벼농사 / 28
3. 축 산 / 37
4. 감자농사 / 51
5. 이모작 / 54
6. 농업 기반 / 57
7. 산 림 / 68
8. 농촌지원사업 / 73
9. 기타 작물 / 78
10. 기타 보도 동향 /84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105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05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116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117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36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36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142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 151

포 커 스

- 북한 농업 현황과 전망

북한 농업 현황과 전망[1)]

김 영 훈(연구위원, kyhoon@krei.re.kr)
지 인 배(전문연구원, jiinbae@krei.re.kr)

1. 북한농업의 문제

1.1. 식량 부족

현재 북한의 농업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식량난으로까지 지칭되는 식량부족 현상이다. 이 현상은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다. 최근 들어 북한의 식량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식량부족 현상의 해결은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부족 현상은 1995년부터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1995년에 급격히 하락하여 1997년까지 연간 350만 톤을 하회하게 되었다. 이 양은 최소소요량에도 170만 톤 이상 모자라는 양으로 국제사회의 긴급 식량지원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북한의 식량난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표 1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단위: 천 톤

구 분	1995/96	1997/98	1999/00	2001/02	2003/04	2005/06
국내생산량	3,451	3,489	4,222	3,946	4,252	4,540
최소소요량	5,145	5,206	5,261	5,307	5,388	5,477
부족량	1,694	1,717	1,039	1,361	1,135	937

주: 1) 국내생산량: 농촌진흥청 발표자료
2) 최소소요량: 식용은 1인 1일 평균 500g 기준, 기타 소요량은 식용의 30% 기준
3) 인구규모: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5.

1) 본고는 “2006농업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1. 25)”에 발표된 자료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회복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2000년에는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회복되어 2003년에는 425만 톤, 2005년에는 450만 톤을 생산하였다. 특히 2005년의 작황 호조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식량 부족량이 연 100만 톤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최소소요량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국제기구의 권장 영양섭취량 기준으로[2] 한다면 연간 650만 톤 이상이 필요하며 여전히 200여만 톤이 부족한 실정이다.[3]

1.2. 농업구조의 후진성

한 나라의 산업별 생산구조와 인구구조는 경제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북한의 산업생산구조는 남한의 그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고 있다. 2004년도 북한의 농림어업부문은 GDP의 26.7%를 차지하여 남한의 3.7%에 비해 훨씬 높아 후진적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농가인구 비중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농가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북한의 농가인구는 1965년 500만 명에서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830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965년 40.8%에서 2004년 36.8%로 근소하게 하락했을 뿐이다. 남한의 7.1%와 비교할 때 북한의 농가인구비중은 과도하게 크다. 이는 전체 경제구조의 후진성뿐만 아니라 농업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업생산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2 남북한 산업생산구조 비교(2003년)

단위: %

	남 한	북 한
농림어업	3.7	26.7
광공업·제조업	29.1	27.2
전기가스수도건설서비스업·정부	67.2	46.0
총계(GDP)	100.0	100.0

자료: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5

표 3 남북한 농가인구 비중 비교

단위: 천명, (%)

	남 한		북 한		A/B
	농가인구(A)	비중	농가인구(B)	비중	(배)
1965	15,812	55.1	4,999	40.8	3.2
1995	4,851	10.8	7,863	36.5	0.6
2004	3,415	7.1	8,357	36.8	0.4

자료: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5

2) 1인당 1일 권장 2,130kcal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1인당 연간 222kg의 식용 곡물이 필요하다.
3)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을 고려하면 실제 부족량은 이 수치보다 작다.

1.3. 농업기자재 부족과 생산기반 낙후

오랜 동안의 경제침체로 북한의 농자재산업부문은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비료, 농약, 농업용 유류, 비닐, 농기계 부품, 타이어 등 투입요소 및 기자재의 생산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표적인 투입재인 비료 소요량은 성분량 기준으로 연간 약 60만 톤 수준이지만 2004년 비료 사용량은 23만 톤에 그치고 있다. 이 중 72%인 16만 톤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물량이며 북한이 생산하거나 공급한 비료는 7만 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4).

북한 농업에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기계동력 부족이다. 90년대 들어 북한의 농기계와 부품 생산공장의 가동이 급격히 낮아져 신규 농기계 공급이 대부분 중단되었다. 농장에서는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작동 가능한 트랙터나 기계장비의 가동도 줄여야만 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조사(1998년)에 의하면 운행 가능한 농기계동력은 잠재보유량의 2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계동력이 부족하여 적기 농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모작 확대 이후 수확·수송·저장·파종·이앙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농번기 동력 부족은 생산량 감소와 함께 손실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4 북한의 비료 사용량

단위: 성분 천톤, (%)

구 분	2003년	2004년	증감(%)
비료 소요량	580	580	-
비료 부족량	336	350	4.1
비료 사용량	244(100)	230(100)	△ 5.7
국제사회(남한 포함) 지원량 국내생산량 상업적 수입	175(71.7) 32(13.1) 37(15.2)	166(72.2) 56(24.3) 8(3.5)	△ 5.1 75.0 △78.4

자료: FAO/WFP Special Report, 2004. 11. 22

표 5 북한 농업의 가용 동력 현황(1998년)

단위: 천MWh, (%)

종 류	잠재물량		가용물량		B/A
	수(A)	동력	수(B)	동력	
인 력	349만 명	254 (9)	440만 명	328 (27)	129
역축(소)	80만두	418 (14)	80만두	418 (35)	100
기 계	70,000대	2,231 (77)	20,000대	463 (38)	20.8
계	-	2,902(100)	-	1,209(100)	41.7

자료: 유엔개발계획(UNDP) 1998.

표 6 북한의 관개농지 현황

구 분	논(벼)		밭(옥수수)	
	면적(천ha)	구성비(%)	면적(천ha)	구성비(%)
완전관개	320	56	155	31
부분관개	150	26	115	23
무관개	102	18	226	46
계	572	100	496	100

자료: FAO/WFP, Special Report, 2001. 10. 26.

표 7 북한의 산림황폐화 현황

단위: 천 ha, (%)

전체 산지 (8도 이상)	임목지	황폐산지			
		계	개간산지	무립목지	나지
9,165 (100.0)	7,534 (82.2)	1,632 (17.8)	972	533	126

자료: 권태진 외, 『북한의 농업기반 특성과 정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업생산기반의 척도라 할 수 있는 농지의 수리·관개 상황도 열악하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인 벼와 옥수수 농사를 보더라도 완전관개 면적은 44.5%에 불과하며 관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면적이 31%에 달하고 있다(표 6). 산림황폐화도 심각한 실정이다. 경사도 8도 이상의 전체 산지 중 17.8%인 163만ha가 비탈밭 등으로 개간되거나 황폐화되어 홍수·가뭄 등 기후변동에 의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산림황폐화 정도는 더욱 위중하다.

2. 북한의 농업문제 해결 노력

2.1. 제도개선 노력

2.1.1.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

북한은 1966년부터 협동농장에서 생산조직을 관리하는 동시에 농산물의 농장 내 분배를 관리하기 위해 '분조관리제'를 시행해왔다. 1990년대 들어 식량난에 봉착하자 북한은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개혁적 요소는 작업분조의 초과생산분을 분조원에게 현물로 지급한다는 점에 있다. 1990년대 중후반 곡물의 시장가격이 정부수매가격의 65~350배에 달하

였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획기적인 동기유발제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96년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고 하나, 그 이후 북한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는 보고는 없으며 농업생산도 2000년까지 큰 변화 없이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는 중국 농업의 생산책임제가 변경의 1개 현에 도입된 지 불과 5년 만에 집단농업경영이 가족농 체제로 전환되고 농업생산도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는 사실과 잘 비교된다.

북한 농업생산부문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농업자본의 공급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4]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농업자본의 공급과 갱신이라는 물적토대가 극도로 취약해진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농업의 제도개선 효과는 거의 나타날 수 없었다.

표 8 북한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 비교

	분조관리제(1966～)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	비고
구 성	·10～25명 ·농장원들의 능력, 요구, 연령을 고려하여 인원을 배치	·5～10명 ·주로 가족·친척으로 구성	·가족경영요소 강화
목표생산량	·해당연도 국가전체의 생산목표에 따라 분조에 제시된 계획치	·최근 3년간 평균수확고와 이전 10년간 평균수확고의 평균치로 설정	·목표 현실화
농산물처분	·초과생산분 국가에서 수매	·초과생산분 분조 자유처분	·가격인상 효과

2.1.2. 7·1경제관리개선조치

북한은 2002년 7월 1일에 획기적인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은 가격과 임금의 인상, 환율 현실화, 원부자재시장의 개설, 경제계획 및 관리의 분권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표 9).[5]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조치들 중에서 농업부문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식량의 국정수매가격 대폭 인상, 농장의 농산물 자체처분권 확대, 그리고 생산요소 시장 개설 등이다. 당시 이들 조치는 농업생산 동기를 유발하고 확대재생산을 가능

4)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회주의와 북한의 농업(김성훈·심의섭 편저)』, pp. 329-343을 참조.

5) 임금 및 가격 인상과 환율 현실화 이외의 조치들이 7·1조치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 북한측의 정확한 발표는 없다.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우선 식량의 가격을 다른 재화 및 서비스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식량 생산부문에 동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되었다. 쌀을 사례로 볼 때 정부 수매가격은 50배 인상한 반면 임금과 주요 생필품 가격은 이보다 낮은 10~40배 인상에 그치고 있다(표 10). 이로써 농업생산부문에 더 유리한 가격구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물 가격 인상률이 생산요소 가격 인상률을 상회하지 않는다면 생산요소 투입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기술혁신 등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는 한 생산은 증대되기 어렵다. 7·1조치로 식량 수매가격이 다른 소비재 가격보다 더 많이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생산요소가격과 비교한 상대가격이 높아졌는지는 분명치 않다. 경유와 전력가격을 생산요소가격의 대표치로 원용한다면 농산물가격과 생산요소가격 인상 수준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며 7·1조치의 가격인상 효과는 농업생산 증대에 중립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

표 9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가격·임금 인상	- 식량 가격 수십배 인상(농민시장 가격 수준) - 교통요금, 주택사용료, 광열수도비 등 공공 서비스 요금 수십 배 인상 - 모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15~20배 인상
환율 현실화	- 북한 원화의 공식환율을 달러당 150원으로 현실화 - '외화와 바꾼 돈표'를 폐지
원부자재시장 개설	- 사회주의 물자공급시장을 개설하여 기업소 및 농장이 기자재와 투입요소를 거래 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
분권화 확대	- 중앙의 계획권한 중 일부를 기업소와 농장에 이양 - 독립채산제 강화를 통해 경영관리 자율성 부여 - 기업 노임 지급의 자율성 확대, 농장의 자체분배 확대

표 10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가격 인상률 비교

구 분	단 위	조정전(A)	조정후(B)	인상율(B/A)
쌀 수매가격	원/kg	0.8	40	50배
임금(생산직)	원/월	110	2,000	18배
생필품 및 각종요금		..	..	10~40배
원자재가격				
- 경 유	원/kℓ	1	38	38배
- 전 력	원/kWh	0.035	2.1	60배

주: 쌀 수매가격은『조선신보(2002.7.19)』기사 참조

농산물의 자체 처분권 확대는 가격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동기유발요소가 될 수 있다. 적어도 시장에서 수매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농산물을 처분하여 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에서 농장에 대한 식량 처분권 확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설혹 시행하였다 해도 1996년 분조관리제 사례와 같이 실효성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편 생산요소 시장의 개설은 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에너지 등 주요 농업생산요소 및 농용기자재 조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농업생산요소의 시장 조달을 통한 투자와 확대재생산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식량생산은 차츰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생산 호조가 개혁적 조치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7·1조치의 개혁적 성격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뿐 아니라 7·1조치 내에서 농업생산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메카니즘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2005년 말 식량사정이 호전되자 자유시장에서 곡물판매를 금지하고 배급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6)]

2.2. 국제사회지원 확보 노력

북한은 1996년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여 제도개혁을 실험한 바 있으나 농업자본이 부족하여 새로운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였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농업자본 조달 없이 북한 농업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농업부문의 부족한 자본을 국제사회로부터 끌어들이기 위해 1998년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REP: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계획을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입안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AREP 계획의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이 4개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각 프로그램이 포함하고 있는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첫째, 투입재 프로그램은 투입재 소요량을 새로운 식량생산 목표량 570만 톤에 맞추어 책정하며 이모작 및 감자재배 확대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농업기반 복구 프로그램은 관개시설이나 토양 개선 등 인프라를 복구하거나 확충하며 이 분야의 장기적 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산림과 환경보호 프로그램은 산림황폐화를 막기 위해 조림과 사방사업에 필요한 묘목과 취로사업용 식량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넷째, AREP 지원과 능력 배양 프로그램은 농업 부문의 관리를 향상시키고

6)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Emergency Report, 2005. 10. 7.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 농업 지원 서비스, 교육과 기술 지원 등 일련의 과제 수행으로 구성되었다.

북한 당국은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국제사회 지원 요청액으로 당초 계획기간(1998～2000년)에는 3억 4,400만 달러를, 추가 계획기간(2000～2002년)에는 2억 5,000만 달러를 각각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1998년에서 2000년 초까지 2년간의 국제사회 지원 내용을 보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000년 초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은 총 1억 2,800만 달러에 머물러 당초 필요로 했던 지원규모 3억 4천만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많은 자본이 필요한 기반조성 분야보다는 단기적으로 시급한 부문에 집중되었다. 2000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국제사회 지원액 중 80% 이상이 비료 등 단기적인 투입요소 지원에 집중되어 본래 의도한 농업복구개발지원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았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겨냥하여 농업복구계획을 수립・제시하였으나 지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2.3. 기타 기술적 측면의 노력

내부 제도개선 및 국제자본의 조달 노력과 함께 북한은 기술적 측면에서도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노력은 주로 이모작과 감자재배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작물 다양화,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종자혁명, 초식가축 사육 장려,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 등에 집중되었다.

표 11 북한 AREP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지원수요

하위프로그램	지원수요
투입요소조달	화학비료 및 유기비료 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에너지, 기타 농업용 자재 비료공장 재건
농업기반복구	재해피해 농지, 방조제 복구 지원 관개용 파이프 교체, 간이양수기세트 지원
산림·환경보호	재해피해 양묘장 복구 및 운영 지원 산림복구 및 보호 지원 임산연료 관련 조사·연구·훈련 지원 자연자원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능력제고	종자, 생물농약, 유기비료 생산 지원 기계화 서비스 능력 제고 지원 농업연구개발 지원 농업관리, 농장관리 등 관리능력 제고 지원
기 타	목표생산량 도달까지 식량지원

작물 다양화: 북한은 1998년부터 꾸준히 작물 다양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옥수수 재배면적은 70만ha에서 40만ha로 줄어들었으며 감자재배 면적은 4만5천ha에서 19만ha로 증가하였다. 또 단위면적당 식량생산을 제고하기 위해 맥류를 위주로 한 이모작 면적을 4만ha에서 20만ha로 확대하였다.

북한의 이모작 확대 목표는 30만ha로 설정하고 있으나 농용자재와 농기계 동력의 부족으로 현재 20만ha에 머물고 있다. 이모작 확대를 통해 곡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증대되었으나 곡물 대 곡물 위주의 이모작으로 인해 지력 약화가 우려되며 유기질 비료 공급 확대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90년대 중반부터 감자재배를 확대하여 여름철 식량부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량씨감자를 확보하지 못해 증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북한의 감자 수량은 ha당 10~12톤에 불과하여 남한의 25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곡물 부족 때문에 초식가축 사육을 장려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축산기반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육을 장려하는 초식가축은 염소, 토끼, 오리 등인 데, 염소의 경우 마을 주변 야산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소는 1998년 80만두에서 2004년 말 현재 56만두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돼지는 약 300만두를 유지하고 있다.

종자 혁명은 감자재배 확대, 이모작 면적 확대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농업에서 강조된 것이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감자를 대상으로 우량종자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맥류는 조생 품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량종자 생산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기반 정비: 1998년부터 주요 곡창지대에 대한 토지정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황해북도, 함경남도에 대한 토지정리사업이 완료되면 총 60만ha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된다. 이 사업을 통해 농경지를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농기계와 연료 공급이 원활치 않아 기계화 기반 확충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차관사업으로 관개체계를 자연흐름식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운하개통 공사도 추진해 왔다. 2002년에는 개천-태성호(평안남도) 물길공사를 완료했으며 2005년에는 백마-철산(평안북도) 물길공사를 완료하였다.

표 12. 북한의 주요 가축 사육 두수

단위: 천 마리

연도	소	돼지	염소	닭	오리	토끼
2000	579	3,120	2,276	15,733	2,078	11,475
2002	575	3,152	2,693	18,506	4,189	19,482
2004	566	3,194	2,736	20,309	5,189	19,677

자료: FAO, FAOSTAT database

3. 북한 농업 전망

3.1. 2006년 농정 기본방향

북한 농정의 기본 방향은 매년 초 발표하는 신년공동사설을[7] 통해 대략 전망할 수 있다.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작년 농업부문에서 이룬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005년 초에 강조하였던 기존의 농업시책을 2006년에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표 13).

3.2. 2006년 대외 농업관계

북한의 식량난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크게 완화될 수 있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지원은 1995년부터 『유엔합동호소(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PR Korea)』를 통한 통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착되었으며, 남한의 대북 농업지원은 90년대 후반부터 정부차원의 식량·비료지원과 민간차원의 농업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추진되었으며 상당 부분 정례화되었다.

표 13. 2006년 신년공동사설의 농업부문 시책

시 책		내 용
2005년 농업 평가		“온 나라가 떨쳐나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함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왔다.”
2006년 기본 방향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 한번 농사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한다.”
비농업부문의 지원		“농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한다.”
역점사업	작목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기반	“미루벌을 비롯한 도처에서 물길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토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요소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자료: 조선중앙통신 2006년 1월 1일자

7) 북한은 매년 초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에 공동사설을 실어 새해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히고 있다. 2006년에는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2005년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통합지원은 해체되었다. 이는 통합지원에 대한 북한의 거부에 의한 것이지만 대북지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미국, 일본의 지원 중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합지원 중단과 미국, 일본의 대북지원 감축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4년까지 연간 1억5천만 달러 이상 수준을 유지해 온 국제사회의 지원규모가 2005년에는 예년의 40%에 불과한 6천만 달러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2005년 9월부터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10여개 국제민간지원단체의 철수와 세계식량계획(WFP) 지역사무소 및 모니터링 요원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긴급구호지원에 근간을 둔 국제사회의 지원사업을 개발지원사업 형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 당국의 요구에 따라 일부 민간지원단체가 북한으로부터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WFP도 2006년 1월 1일부터 북한 내 모든 식량지원사업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양 이외 지역에 있던 5개 사무소와 19개 식량처리시설을 폐쇄하였다. 또한 외국인 구호요원의 수도 이미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여 대북지원사업 축소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식량 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남한의 대북지원이 꾸준히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 당국은 간섭과 조건이 많은 국제사회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과 남한의 지원에 더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농업의 대외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긴급구호지원의 개발지원 전환 요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는 북한농업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우선 남한의 지원 확대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축소는 당장 식량 및 물자부족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발지원으로의 전환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개발지원에 부과되는 계획수립, 심사, 모니터링, 보고, 평가 등 일련의 공동작업은 긴급지원에 수반되는 사소한 간섭과 모니터링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3.3. 식량수급과 농업생산

2006년의 식량수급은 기본적으로 2005년의 식량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2006년의 북한 식량 수급사정은 최근 10년 이래 가장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상황을 놓고 북한 농업부문의 회복과 농업생산의 정상화를 전망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우선 단기적으로 연간 최소소요량에 95만 톤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남한과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에 의존해야 한다. 남한의 경우 예년과 같은 식량지원을 추진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러나 국제기구와 국제민간지원단체의 경우는 다르다. 북한 당국의 철수 요구와 지원방식 전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지원방식을 둘러 싼 이견으로 지원의 공백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체 식량지원규모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축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국내생산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하반기에는 북한의 식량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식량수급 전망도 밝다고 말할 수 없다. 최근 북한의 식량생산 증가 추세가 농업생산구조 개선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남한이 지원하고 있는 비료를 포함하여 모든 농업생산요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농용기자재 및 생산기반도 낙후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과 중소도시 근로자의 대규모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는 한 인센티브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생산부문의 개혁도 쉽게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요컨대 농업개혁의 추진과 농업자본의 원활한 공급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과 양호한 기후조건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 농업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가 2006년 한 해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는 없으므로 농업생산 침체와 식량부족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향 분 석

1. 농업정책
2. 벼농사
3. 축　산
4. 감자농사
5. 이모작
6. 농업 기반
7. 산　림
8. 농촌지원사업
9. 기타 작물
10. 기타 보도 동향

* 북한의 주요 신문인 <로동신문>(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과 <민주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의 농업관련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음.

동향분석 요약

지 인 배
(전문연구원, jiinbae@krei.re.kr)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 한 번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5년에 이어 농업부문을 경제개발의 핵심 전략부분으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올해도 북한이 농업생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년사설 중 농업부문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고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부문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으로 무조건 보장해 줘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농민들의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모든 국민들이 지난해처럼 농촌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확충을 위해 미루벌을 비롯한 도처의 물길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며 토지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업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세우고 있다.

2005년 4/4분기의 농업동향을 살펴보면 수확기를 맞아 각지의 벼, 옥수수, 감자, 콩의 가을걷이와 탈곡동향과 함께 가을밀과 보리심기 등 이모작 동향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115호오리공장, 광포오리공장, 북창오리공장, 구성닭공장, 신의주오리공장 등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축산물 생산기지의 건설과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농업성과 보건성의 위생방역사업에 대해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농업기반과 관련하여서는 2년 여의 공사기간이 소요된 백마-철산물길이 10월 2일 완공됨으로써 백마호로부터 철산까지 270여㎞의 자연흐름물길이 보장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토관리총동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전국 각지의 나무심기와 도로건설 및 기술개건사업의 진행과 하천정리사업, 살림집 건설, 양어장 건설 등을 보도하고 있다.

최근 농업의 화학화사업이 강조되면서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비료생산과 농약개발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약성분과 비료성분이 함유된 식물성농약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보도가 눈에 띈다.

그리고 과수, 양어, 양잠, 채소 등 여러 작물들의 재배동향과 새해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행사소식은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이하여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대회와 중앙보고대회 등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1. 농업정책

□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라는 글을 게재하고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 한 번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한다고 함. 인민군대처럼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함.

□ 신년공동사설

○ 신년공동사설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를 게재(로동신문 1. 1, 민주조선 1. 1)

정치

· 주체 95(2006)년은 선군혁명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임. 선군혁명총진군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나서는 총적인 투쟁과업임.

· 우리식 사회주의 정치사상진지의 위력을 과시하여야 함. 영도자를 중심으로 천만 군민의 일심단결을 다지는 것은 사회주의의 강성번영을 위한 근본담보임.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전체 인민이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켜야 함. 사회주의의 일대 번영기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참신하게 벌여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음.

군사

· 우리식 사회주의의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함. 인민군대는 자위적 국

방력의 핵심이며 사회주의의 기둥임. 당의 훈련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군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무적의 슬기와 용맹을 지닌 일당백의 펄펄 나는 싸움꾼으로 준비하여야 함.

·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함.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함. 인민은 원군을 하고 군대는 원민을 하는 선군조선의 면모를 꽃피워 나가야 함.

경제

·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함.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 한 번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함. 인민군대처럼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함.

·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선 우리 경제는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음. 채취,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임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하면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새로운 생산적 앙양을 일으켜야 함. 경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을 적극 현대화하여 질 좋은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려야 함.

· 현 시기 경제건설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를 개건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임.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하는데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길이 있음.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처리해 나가는 정연한 체계와 질서를 세워야 함.

사회, 문화

· 사회주의 문화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야 함. 교육사업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함.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교육사업에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관심을 돌려야 함. 또한 당의 문학예술 영도업적을 튼튼히 틀어쥐고 문학예술 전반에서 새로운 창작적 앙양을 일으켜야 함.

· 선군혁명 총진군을 다그쳐 나가는 데서 청년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큼. 청년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6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며 선군위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청년전위의 기개를 더욱 높이 떨쳐야 함.

대남, 통일

· 지난해는 조국통일운동사에 커다란 자국을 남긴 해였음.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에서 민간급 뿐 아니라 당국이 함께 참가하는 통일대축전행사가 성대히 진행되고 각 분야에 걸쳐 대화와 접촉, 교류가 전례없이 활발해졌음.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조국통일위업을 더욱 활력있게 전진시켜 나가야 함.

· 민족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현시기 조국통일운동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음. 조국통일운동은 사상과 이념, 제도와 당파, 소속에 관계없이 온 겨레가 함께 손잡고 떠밀고 나가야 할 전민족적인 운동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통일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연합을 강화해나가야 함.

□ 2006년 농정방향

○ 신년공동사설 농업부문(로동신문 1. 1, 민주조선 1. 1)

·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한번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총집중하여야 한다.

·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고 한 김일성의 유훈을 강령적 지침으로 삼고 온 나라가 농업전선에 한사람 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농업부문에 필요한 로력(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으로 무조건 보장해 줘야 한다.

· 인민군대처럼 혁명적으로 달라 붙어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 혁명방침, 두벌농사(이모작)방침, 콩농사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 농업부문 일꾼(간부)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농사일을 깐지게 하며 모든 지원자들은 지난해처럼 농촌을 적극 도와줘야 한다.

· 미루벌을 비롯한 도처에서 물길(수로)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토지관리를 잘해야 한다. 기계화·화학화를 적극 다그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우리는 올해에 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사회주의조선의 대지에 오곡백과 주렁지게 하고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와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 1995~2006

연도	경제전반	농정방향
1995	· 혁명적 경제전략의 관철을 통한 인민생활의 획기적 향상	· 협동적 소유, 전인민적 소유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 주체농법의 관철로 알곡생산목표 달성
1996	·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인민생활 향상 및 자립적 경제토대 구축	· 주체농법에 따라 농사를 주인답게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 달성
1997	· 자력갱생의 구호하에 경제적 밑천을 최대한 동원·이용하여 먹는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토건설로 부강한 조국의 토대 구축	· 주체농법에 따라 농민들의 지향, 자체의 실정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고 쌀풍년, 고기풍년 마련. 초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초식가축 사육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계속 전개
1998	· 경제건설은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할 주전선임.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민족경제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함.	· 농업생산의 증대, 먹는 문제 완전 해결 - 종자문제해결, 2모작 확대 - 농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민의 의사와 자체 실정에 맞게 수행 - 초식가축을 기본으로 축산업의 대대적인 발전
1999	· 경제건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주요한 과업.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력에 경제적 힘이 밑받침될 때 명실공히 강성대국 지위에 올라설 수 있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전반을 자기의 궤도위에 확고히 올려 세우며 인민생활의 안정, 향상	· 농사에 전 국가적인 힘을 넣어 먹는 문제 해결 - 감자농사혁명 - 적지적작·적기적작 원칙에서 농업구조개선 - 2모작 확대와 종자혁명의 계속적 추진 - 토지정리사업의 대대적 전개
2000	· 올해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임. · 당의 경제정책을 옹호 관철해 나가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하나씩 추켜세워야 함.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함.	· 주체농법의 철저한 관철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2모작 확대, 초식가축 사육 증대 - 양어사업을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 - 토지정리와 산림조성을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의 지속적 추진 -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적극적인 추진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06

연도	경제전반	농정방향
2001	· 경제건설의 중심 과제는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경제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선하는 것임.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전력, 석탄, 금속 및 철도운수부문임. -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석탄생산 증대 - 금속공업의 설비 현대화를 통해 철강재 생산의 활성화 - 철도운수를 정비 보강하여 증가하는 수송수요 보장 · 경공업부문에서는 1차 소비품과 기초식품의 생산 증대	· 농업생산을 늘이는 것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 고리임.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의 지속적 추진 - 2모작 면적의 확대 - 메기를 비롯한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를 위주로 양어 확대 - 현대적인 축산기지 건설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2002	· 제도 제일주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임. - 채취,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 ·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 · 경제관리의 개선 및 완성 · 제도 제일주의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 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 증대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여 농업생산 증대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조속한 완료
2003	·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를 관리운영해 나가야 함. ·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바탕으로 한 인민경제활성화 · 경공업의 현대화를 통한 인민소비품의 대대적인 생산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진기술을 배우고 최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임 · 모든 부문, 단의에서 현대화의 뚜렷한 전망목표를 세우고 기술개건사업을 추진해나감.	·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함. ·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며 혁명의 수도 평양을 새세기 맞이 나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06

연도	경제전반	농정방향
2004	·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자!"라는 구호를 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함. ·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에 주된 힘을 넣어야 함. · 화학발전소와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중소형발전소들을 쓸모있게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함. · 석탄공업과 금속공업발전에 힘을 집중하고,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체계적으로 세워나가야 함.	·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감자혁명과 두벌농사를 발전시켜야 함. · 콩농사와 과수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고, 축산기지들과 개건현대화된 닭공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함. · 토지정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다그쳐야 함. · 평양시와 도, 시, 군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함.
2005	·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임.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문제해결은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있음. · 전체 인민은 혁명적 각오로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발전시키며,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앞당기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며 화력발전설비들의 능력을 높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함. · 경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공급해야 함. · 평양시를 더 잘 꾸리고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함.	· 농업부문에서는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 농사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함. · 다수확품종을 심고, 비료와 농약을 보장해주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높여야 함. · 농업지도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농업과학발전에 힘을 넣어야 함. · 백마-철산물길공사를 앞당겨 끝내며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함. ·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06

연도	경제전반	농정방향
2006	·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 보장해 줘야 함. ·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선 우리 경제는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전력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강성대국 건설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어려운 전력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석탄공업과 금속공업은 인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임. · 채취,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임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하면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새로운 생산적 앙양을 일으켜야 함. 경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을 적극 현대화하여 질 좋은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려야 함. · 경제부문 지도일꾼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실리를 따져가며 경제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야 함.	·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 한 번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함. ·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는 말을 강령적 지침으로 삼고 온 나라가 농업전선에 한사람 같이 떨쳐 나서야 함. 농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으로 무조건 보장해 줘야 함. · 인민군대처럼 혁명적으로 달라 붙어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 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함. ·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농사일을 깐지게 하며 모든 지원자들은 지난해처럼 농촌을 적극 도와줘야 함. · 미루벌을 비롯한 도처에서 물길(수로)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토지관리를 잘해야 함.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 리경식 농업상이 올해 추진사업을 소개(민주조선 1. 4)

· 리경식 농업상은 올해 공동사설에서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동원, 총집중할 것을 호소하였다고 말하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주체농법을 토대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음.

○ '공동사설에 기초하여 올해전투작전과 설계를 잘하자'를 게재(로동신문 1. 7, 민주조선 1. 7)

· 공동사설은 우리 당, 군대, 인민이 올해의 총진군에서 달성해야 할 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혔음.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 근로자들이 공동사설 학습을

통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해당하는 과업과 수행방도를 숙지하도록 해야 함. 또한 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새해전투작전과 설계를 잘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함.

· 당조직들은 일군들이 올해전투작전과 준비를 잘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특히 농업부문 일군들은 품종배치와 비료보장 등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가장 높은 수확을 내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함. 또한 선전선동수단을 총동원하고 인민군대식으로 화선식 정치사업을 벌려 전체 인민이 새해의 진군을 다그쳐 나가도록 해야 함.

○ '다시 한번 농사에 총동원, 총집중하자'를 게재(로동신문 1. 12)

· 지난해 농업부문은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농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한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였음. 우리는 다시 한번 농사에 총동원, 총집중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야 함.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땅의 주인,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모든 농사일을 알뜰하게 해야 함.

· 또한 전당, 전국, 전민이 나서서 사회주의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 성, 중앙기관에서도 농촌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야 함. 도,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대중을 적극 교양하고 조직동원해야 함.

□ 2005년의 농업부문 성과에서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인 농업전선에서 농업근로자들의 총집중, 총동원 속에 올해 농업생산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백마-철산물길이 완공됨으로써 백마호의 물이 270여㎞의 자연흐름물길이 보장되었음. 축산부문은 115호오리공장, 광포오리공장, 북창오리공장, 구성닭공장, 신의주오리공장 등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축산물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2005년 농업 성과

○ 당창건 60주년을 기념하여 사회주의건설의 각 부문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8, 민주조선 10. 8)

· 당창건 60주년을 맞으며 나라의 도처에서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비롯한 130여개 대

상이 건설되거나 개건현대화되었으며 1,600여개의 공장, 기업소가 연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첨단과학기술연구성과를 포함한 8,500여건의 발명 및 창의고안이 실현되는 등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었음.

· 자연흐름식 관개체계인 백마-철산물길이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완공되어 준공을 선포하였고 대규모 녕원발전소언제와 금진강홍봉청년발전소, 승호철도청년발전소, 라선청년2호발전소 등 수십개의 발전소가 준공되었음. 대안친선유리공장, 부전감자전분공장, 신의주콩우유공장 등이 조업하고 광포오리공장, 남천광산, 개천기초식품공장 등이 개건현대화 되었음.

· 평안북도 대계도간석지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함경남도 함흥시에 수동저수지가 생겨났음. 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들에 5만여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이 건설되었으며 각지 근로자들은 봄철나무심기기간 10만여 정보에 수종이 좋은 나무 10여억 그루를 심었음.

○ 올해 농업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8)

· 2005년은 농업전선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정하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한 뜻 깊은 해였음. 올해처럼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농업근로자들과 농촌지원자들은 모내기와 가을걷이전투를 전격적으로 다그쳐 끝냈음.

· 농촌지원에 전 인민들이 적극 나선 가운데 인민군대가 당의 총집중, 총동원방침 관철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도 농장원, 지원자들과 함께 협동농장벌에서 영농사업을 앞장에서 이끌었음.

· 농사에 필요한 일손과 설비, 자재,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한 공동사설의 과업을 받들고 기계공업, 화학, 전기, 석탄공업 등 연관부문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농기계 부속품, 화학비료, 농약과 전기 등을 보장하였음. 이와 함께 화학공업성, 육해운성, 수매량정성 등 많은 성, 중앙기관들에서 올해 농촌을 물질적, 노력적으로 적극 도와주었음.

○ 올 한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 소개(민주조선 12. 15)

·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인 농업전선에서 농업근로자들은 알곡생산에 총력을 기울여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모범이 되는 경험을 창조해냈음. 또한 주공전선에 물적, 노력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천만 군민들의 총집중, 총동원 속에 올해 농업생산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올해 백마-철산물길이 완공됨으로써 백마호의 물이 270여㎞의 물길을 따라 룡천, 염주, 철산군, 신의주시를 비롯한 6개 시, 군의 농경지에 관수를 자연흐름으로 보장하게 되었음. 또한 각지 농촌들에서 총 200여㎞의 자연흐름물길을 건설하고 함경남북도를 비롯한 많은 도들에서 대규모 저수지를 새로 건설하였음.

· 올해 축산부문은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축산물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115호오리공장이 건설되고 광포오리공장이 개건확장되었으며 북창오리공장과 구성닭공장이 개건현대화 된데 이어 신의주오리공장 1단계 현대화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음.

○ 당의 농업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과시된 올 한해를 정리보도(로동신문 12. 19)

· 올해에도 각지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에 따라 농업생산을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였음. 김정일이 다수확품종의 알곡종자를 보내준 것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지방의 특성과 기후에 적합한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선택하여 농사를 짓는 기풍을 확립하였고 종자보관관리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였음.

· 함경북도 길주군 평륙협동농장을 비롯해 평안북도, 황해남북도 등 전국적으로 올해에 콩밭면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음. 각지 농촌들은 콩을 비롯한 여러가지 다수확품종의 알곡종자를 확보하여 다음해 씨붙임면적을 대대적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당의 이모작농사방침에 따라 겹재배와 사이그루재배 등 이모작농사기술이 발전하면서 정주이남지역에서 이루어지던 이모작농사가 올해에는 정주이북의 많은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졌음.

· 또한 대홍단군과 삼지연군, 랑림군, 백암군, 부전군을 비롯한 북부고산지대의 감자생산지들에서 올해 감자농사를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요구대로 하였음. 평안북도 선천군, 평양시 강동군을 비롯해 앞그루로 감자를 심는 단위들도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요구대로 이모작농사를 지었음.

2. 벼농사

□ 각 지역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벼가을작업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여 실적을 올리는 가운데 황해남북도, 자강도, 평안남도, 평양시 등에서는 운반수단을 준비, 동원하여 벼가을과 함께 볏단 실어들이기에 힘을 쏟으며 탈곡기 개조 및 수리정비를 잘하여 낟알털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벼 가을 동향

○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

· 평안남도 문덕군은 가을걷이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음. 동림, 립석협동농장과 풍년농장은 노력조직을 빈틈없이 하고 운반수단, 탈곡기를 최대한 동원이용하여 낟알허실을 최소화하면서 가을걷이 실적을 올리고 있음.

· 황해남도 안악군 엄곳협동농장은 화학공업성 지원자들과 수백정보의 벼가을을 11일 동안에 끝낸데 이어 벼탈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황토협동농장은 비가 내리는 등 작업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획된 날짜에 감자캐기를 끝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황해북도 개성시의 벼가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7)

· 황해북도 개성시는 포전별, 공정별 일정계획을 세우고 벼가을, 운반, 탈곡을 동시에 다그치고 있음. 각 농장들에서 가을걷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시일군들은 지원자들의 숙식조건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시급기관 종업원들과 공장, 기업소의 노동자들도 가을걷이 일손을 돕고 있음.

○ 황해북도 봉산군 송산협동농장의 벼가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15)

· 황해북도 봉산군 송산협동농장은 볏단 실어들이기와 낟알털기를 질적으로 하고 있음. 농장일군들은 작업반들이 낟알 허실없이 볏단 실어들이기와 낟알털기를 진행하도록 작업실적과 함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

○ 벼 가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16)

· 황해남도 재령군은 벼 가을을 끝내고 볏단 운반과 낟알털기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음. 북지, 삼지강, 김제원, 동신홍협동농장들은 트랙터와 달구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볏단운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강교, 신환포, 룡교, 부덕협동농장들은 탈곡기들의 수리정비를 질적으로 하여 낟알털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강원도 고산군 설봉협동농장은 일손조직, 운반조직을 농장원들의 능력과 체질에 맞게 구성하여 볏단 실어들이기부터 낟알털기에 이르는 모든 작업을 흐름식으로 진행하여 매일 많은 낟알을 털어내고 있음.

· 평안남도 대동군 연곡협동농장은 볏단을 묶고 실어들이는 과정에 낟알허실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가을이 끝나는대로 포전을 따라 가면서 낟알줍기도 하고 있음.

· 평안북도 곽산군 원포협동농장은 올해 모든 분조마다 이동식 소형탈곡기를 적극 이용하여 논판에서 낟알털기를 진행함으로써 낟알허실을 없애고 일손과 기름을 절약하면서도 탈곡속도를 훨씬 높일 수 있었음.

○ 각지 농촌들의 벼 가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17)

·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벼가을작업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여 실적을 올리는 가운데 황해남북도, 자강도, 평안남도, 평양시 등에서는 운반수단을 준비, 동원하여 벼가을과 함께 볏단 실어들이기에 힘을 쏟으며 탈곡기 개조 및 수리정비를 잘하여 낟알털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황해북도 토산군의 벼 가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18)

· 황해북도 토산군 양사, 문성, 북포협동농장은 모든 운반수단을 볏단 꺼들이기에 집중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월성, 수합협동농장은 포전별 볏단 꺼들이기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벼탈곡에도 힘을 쏟고 있음.

○ 가을걷이와 탈곡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19)

· 평안남도 숙천군 열두삼천, 사산, 금풍농장은 벼가을에 역량을 집중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문덕군, 평원군, 안주시의 협동농장들도 일정계획대로 가을걷이를 진행하고 있음.

· 평안남도 온천군 금당협동농장은 벼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높은 수준에서 다그쳐

나가고 있으며 마영, 룡월, 서화, 운하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협동농장들도 당면한 벼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황해남도 청단군 화산협동농장은 가을과 운반 등 모든 공정에서 낟알허실을 막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작업반들은 작업 별로 일손을 조직하여 벼가을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트랙터 연결차와 달구지들에 깔개를 깔고 볏단을 운반하고 있음.

○ '볏단을 빨리 거들이자'를 게재(민주조선 10. 22)

· 지금 각지 농촌들은 가을해 놓은 볏단 운반을 다그쳐야 함. 농촌들은 낟알털기에 필요한 일손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볏단 운반에 집중해야 함. 각 협동농장들은 운반수단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이고 일손배치도 합리적으로 해야 함.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은 베어놓은 볏단을 하루라도 빨리 탈곡장으로 운반하며 특히 모든 운반수단들에 멍석을 깔아 낟알허실을 막아야 함.

○ 동해안지구 농촌들의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3)

· 함경북도 어랑군은 일손조직, 중소농기구와 운반수단 준비를 끝내고 가을걷이에 돌입하여 벼 가을과 강냉이 가을을 짧은 기간에 끝낸데 이어 볏단운반과 낟알털기에 대중을 동원하여 날마다 실적을 올리고 있음.

· 강원도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은 작업반 실정에 맞는 운반수단을 만들어 볏단을 운반하고 있으며 운반실적이 저조한 작업반, 분조들에 일손과 운반수단을 집중하고 있음.

□ 농업성은 당면한 볏단 운반과 낟알털기를 예년에 비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성은 농기계운영국에서 도별 농기계 가동정형을 파악하고 알맞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부속품 보장과 이동수리조직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벼 탈곡 동향

○ 각지 탈곡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1)

· 평안북도 내 협동농장들에서 벼가을을 성과적으로 끝낸데 이어 볏단 꺼들이기와 탈곡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룡천군은 볏단을 군중적으로 운반하면서 탈곡기의 가동률을 높여 낟알털기를 다그치고 있으며 곽산군은 분조마다 이동식 탈곡기를

보장하여 포전 현장에서 벼탈곡을 진행하고 있음.

· 황해남도 봉천군은 가동협동농장에서 이동식 탈곡기를 제작한 경험을 일반화하고 군농기구공장, 군농기계작업소에서 각각 수십대씩 이동식 탈곡기를 생산하여 농장들에 보내주었음. 지금 가동, 한촌, 응촌, 룡천 등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이동식 탈곡기로 탈곡을 하고 있음.

○ 평안북도 운전벌의 탈곡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2)

· 평안북도 운전군은 모든 일손과 운반수단을 총집중하여 볏단 싣기와 탈곡을 다그치고 있음. 군 당위원회는 볏단싣기에 사용할 연결차의 대수를 늘리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트랙터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볏단운반실적을 1.5배 이상으로 높였음. 이와 함께 군책임일군들이 지구별로 볏단 싣기와 탈곡 정형을 파악하고 알맞은 대책을 세워 지원 없이 20일 동안에 탈곡을 끝냈음.

· 평안북도 운전군 보석협동농장은 북데기 속에 낟알이 섞이지 않도록 채를 설치하고 흘린 낟알을 줍도록 하며 트랙터 연결차에 멍석을 편 뒤 볏단을 실어 나르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탈곡장 주변을 정리하는 한편 작업과정에 낟알허실을 최소화하고 있음.

· 평안북도 정주시 일해협동농장은 발구로 볏단을 포전에서 논두렁까지 옮기고 트랙터와 소달구지로는 볏단을 탈곡장으로 실어들이고 있음. 농장의 볏단 운반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주일 이상 앞서나가고 있음.

○ 평안남도 온천, 증산군의 탈곡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4)

· 평안남도 온천군 6월3일협동농장은 연료가 부족한 조건에 맞게 볏단 운반을 탈곡에 앞세우기 위해 탈곡장 인근 포전의 볏단은 일손을 집중하여 운반하고 거리가 300～1,000m되는 포전의 볏단 운반에는 부림소를 이용하였으며 탈곡장에서 멀리 떨어진 포전에는 트랙터를 집중하여 볏단 운반속도를 높였음.

· 평안남도 온천군 6월9일청년농장은 포전에 물이 고여 벼종합수확기를 가동할 수 없는 조건에서 손수 벼를 베는 등 벼가을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낟알털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평안남도 증산군 풍정협동농장은 앞당겨진 낟알털기 날짜를 보장하기 위해 낟알털기 교대 간 여유시간을 낟알털기에 적극 이용하도록 하고 작업량이 큰 벼탈곡기의 가동률을 높이는 동시에 실적이 저조한 단위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도 벌리고 있음.

○ 가을걷이와 탈곡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16)

· 황해남도 강령군은 볏단 운반에 힘을 쏟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낟알 운반실태를 파악하면서 트랙터와 축력 등 모든 운반수단을 최대한 조직동원하는 가운데 금정, 내동협동농장은 볏단 운반에 동원된 기계들의 기술관리를 잘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있으며 부민, 광천, 오봉협동농장은 작업반, 분조 단위로 사회주의경쟁을 벌려 볏단을 제때에 탈곡장으로 실어들이고 있음.

· 황해북도 봉산군 송산협동농장은 볏단 운반을 앞세우고 탈곡기마다 가동률을 높여 탈곡 실적을 높이고 있으며 지탑협동농장은 트랙터와 달구지 등 운반수단들의 적재능력을 늘려 볏단 운반 실적을 높여 낟알털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탈곡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23)

· 함경남도 함주군 조양협동농장은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집중하여 베어놓은 벼를 탈곡장에 실어들여 낟알털기를 다그치고 있음.

· 평안남도 평성시 청옥협동농장은 농장원들의 체질과 능력에 맞게 일손을 조직하고 운반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볏단 운반을 일정계획대로 진행하면서 탈곡실적을 올리고 있음.

○ 황해남도의 탈곡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26)

· 황해남도 연안군은 올해농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기 위해 기본인력과 비생산부문 인력을 빠짐없이 가을걷이에 동원하고 볏단운반과 낟알털기 실적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배천, 청단군은 일손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볏단운반과 낟알털기 속도를 높이고 있음.

· 황해남도 청단군은 탈곡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기계를 표준조작법대로 가동하면서 기계정비를 잘하도록 하고 있음.

·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협동농장은 볏단운반과 탈곡 과정에서 낟알허실을 막기 위해 모든 운반수단들의 적재함에 깔개를 만들고 탈곡과정에서 표준조작법을 준수하고 있음.

○ 탈곡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31)

· 각 도, 시, 군에서 탈곡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인 벼탈곡 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앞섰음. 황해남도 안악, 태평, 재령군

등에서는 트랙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볏단 운반을 다그치는 동시에 탈곡기의 이용률을 높여 탈곡실적을 올리고 있음. 평안남북도는 탈곡작업에서 교대별 조직을 짜고 부족한 전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평양시, 함경북도 등에서 낟알털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평안남도 남포시는 마감고비에 들어선 벼탈곡을 질적으로 하여 낟알털기 속도를 더욱 높이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음. 검산, 화도, 신령협동농장은 탈곡에 역량을 집중하여 털어내는대로 포장하여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낟알허실을 막고 있음.

·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은 올해의 낟알털기를 제 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분조관리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각 작업반의 분조들이 단합하여 볏단 운반을 앞세우고 낟알털기 실적을 확대해나가는 가운데 일군들은 노력일평가사업을 실시하여 낟알털기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탈곡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2)

· 평양시는 볏단 운반과 탈곡을 앞당겨 끝내기 위해 각 구역 내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농기계부속품 등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를 보장하여 일정계획대로 낟알털기를 진행하고 있음.

· 평안북도 각 시, 군들은 기계수단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인력조직을 효과적으로 하여 탈곡실적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에서도 볏단 운반과 탈곡에서 연일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평안남도 문덕군 룡림, 립석, 동림협동농장은 트랙터, 달구지 등 운반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볏단을 운반하는 한편 탈곡기 기술관리를 잘하여 매일 낟알털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남이, 금계, 룡담협동농장들도 탈곡기의 가동률을 높여 벼탈곡속도를 높이고 있음.

○ 탈곡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5)

· 황해남도 안악군은 벼가을을 끝낸데 이어 낟알털기를 다그쳐 매일 실적을 올리고 있음.오국, 엄곳, 대추협동농장은 볏단운반을 낟알털기에 앞세워 탈곡 속도를 높이고 있음.

· 황해북도 은파군은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탈곡성과를 올리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탈곡기의 정상가동을 위해 부속품을 제때에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보수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

· 평안북도 곽산군은 이동식 소형탈곡기로 포전현장에서 가을걷이하는 대로 탈곡을 함으로써 낟알허실을 막고 일손과 전력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벼가을과 탈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탈곡기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음.

· 황해북도 개성시에서 낟알털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평화, 판문점, 동창리 당조직들에서 농장원들이 낟알털기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여 성과를 높이도록 작업속보와 방송편집물을 가지고 정치사업을 벌리고 있음.

○ 탈곡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5)

· 평안북도 운전군과 룡천군을 비롯한 각 군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은 계획대로 볏단 운반과 낟알털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태천군을 비롯한 중간, 산간지대 시, 군들도 강냉이 등 여러 가지 곡식 탈곡을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은 운반수단을 볏단 운반에 집중하고 탈곡기의 가동률을 높여 실적을 올리고 있음.

· 평양시 형제산구역 제산협동농장은 볏단 운반에 운반수단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볏단을 실어들이는 대로 제때에 털어 낟알털기 속도를 높이고 있음.

○ 황해북도 수안군 읍협동농장의 탈곡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8)

· 황해북도 수안군 읍협동농장은 낟알허실을 막기 위해 트랙터, 달구지 등 운반수단들에 멍석을 깔아 볏단을 운반하고 있으며 작업반, 분조간 사회주의경쟁을 벌려 탈곡실적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평안북도 룡천군의 탈곡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9)

· 평안북도 룡천벌은 낟알털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고 있음. 일군들은 선전선동수단을 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작업열의를 북돋우면서 탈곡기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낟알털기에 대한 경제조직사업을 벌리고 있음.

· 평안북도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은 볏단 운반과 낟알털기를 높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모든 공정에서 낟알허실을 최소화하고 있음. 모든 운반수단들에 깔개를 깔고 볏단을 싣고 내릴 때 흘린 벼이삭을 확인하고 있으며 낟알털기 과정에서 낟알허실이 생기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음.

· 평안북도 염주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낟알털기를 하루라도 빨리 결속하기 위해

조직과 지도를 기동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위원회는 룡북협동농장을 비롯해 규모가 큰 협동농장들에 역량을 보충하기 위해 일손 및 운반수단을 조절배치하고 있음.

○ 농업성의 올해농사 결속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11)

· 농업성은 당면한 볏단 운반과 낟알털기를 예년에 비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성은 농기계운영국에서 도별 농기계 가동정형을 파악하고 알맞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부속품 보장과 이동수리조직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성은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농업지도기관들이 볏단 운반과 낟알털기 진행정도에 맞게 일손과 기계수단을 조절배치하도록 하고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작업조건 보장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평안북도 염주군 내중협동농장의 탈곡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15)

· 평안북도 염주군 내중협동농장은 낟알털기를 마감단계에게 다그치고 있음. 농장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벌려 농업근로자들의 작업열의를 북돋우고 탈곡기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아 낟알털기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음.

○ 평안남도 평원군의 탈곡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18)

· 평안남도 평원군은 낟알털기를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 끝내기 위해 볏단을 모두 실어들인데 이어 벼탈곡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음.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각 협동농장에서 탈곡기의 가동률을 보장하는 문제, 낟알 포장과 보관문제를 제때 해결하면서 탈곡의 속도와 질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 논밭갈이 동향

○ 논밭갈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13)

· 논벼농사에서 가을갈이를 잘하면 토양조건을 작물이 자라는데 유리하게 변화시켜 논벼의 정보당 소출을 높일 수 있음. 논에서 20~30㎝ 깊이의 갈이바닥층은 몹시 굳고 물이 잘 스미지 않아 뿌리가 제대로 뻗지 못하기 때문에 가을에 논을 깊이 갈아 갈이바닥층을 부수어야 함.

· 논가을갈이는 모판자리논, 이모작농사논, 질흙기가 많은 논,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논, 물이 많이 새는 논부터 먼저 해야 하며 논토양의 특성에 맞게 해야 함.

· 강원도 천내군은 다음해 농사차비의 첫 공정인 가을갈이를 땅이 얼기 전에 끝내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집중하여 가을갈이 실적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함경남도 홍원군 중은협동농장은 가을갈이에 트랙터를 비롯한 갈이수단을 집중하고 부림소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열흘동안에 논밭 가을갈이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황해남도 옹진군 송월협동농장의 논갈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16)

· 황해남도 옹진군 송월협동농장은 벼탈곡을 진행하면서 논가을갈이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냈음. 농장은 볏단실어들이기에 트랙터를 동원하고 논가을갈이에는 부림소들을 이용하였음. 일군들은 영양상태가 좋은 소들로 무리를 편성하고 논갈이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다그쳐 하루 정량의 1.5배 이상의 논갈이를 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3. 축 산

□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오리공장, 자강도 강계오리공장, 115호 오리공장, 자강도 강계오리공장, 평안남도 북창오리공장의 개건현대화에 대해 보도. 강계오리공장은 공사가 90% 진행되었으며, 115호 오리공장은 연건축면적 5만여㎡의 규모로 완공되었음. 강계오리공장과 북창오리공장도 완공되어 최신식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도

□ 축산 동향

○ 각지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16)

평성시염소목장

· 평안남도 평성시염소목장 조업식이 14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조업식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20여리의 윤환선도로를 내고 본장과 20개의 분장을 갖춘 목장을 건설하였다고 지적하고 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목장관리운영을 잘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질 좋고 영양가높은 젖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을 강조하였음.

광포오리공장

·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오리공장은 다음해 오리고기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비관리를 잘하여 알깨우기와 종자오리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부산물을 이용해 대용먹이를 마련하고 있음.

○ 자강도의 가축 월동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18)

· 자강도는 겨울철 가축먹이 확보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위원군 내 협동농장들은 콩잎, 강냉이짚과 말린 풀을 장만하고 풀절임을 이미 끝냈으며 장강군 무덕협동농장과 만포시 고산협동농장을 비롯한 도내 농촌들은 더 많은 먹이를 준비하면서 보관관리 대책도 마련하고 있음.

○ 평양시 강동군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의 가축 사양관리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23)

· 평양시 강동군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은 겨울철 가축사양관리를 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작업반들은 준비한 먹이를 가공하여 가축들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공급하고 야외놀이장에서 햇빛쪼이기를 잘하여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가축우리 내부 온도를 기술규정대로 보장하고 우리 청소와 소독도 제때에 하고 있음.

○ 가축 월동준비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8)

· 가축 월동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철 먹이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 것임.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축산을 하는 단위들에 내려가 겨울철 먹이준비 정형을 알아보고 일손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먹이 생산을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해야 함.

· 축산을 하는 모든 단위들은 말린풀과 풀절임 생산에 힘을 넣어야 하며 콩짚과 강냉이짚, 깨짚 등 농부산물과 칡, 아카시아나무잎 등 자연먹이를 제때에 거두어 들여야 함.

· 함경남도 덕성군 임자, 락원, 엄동협동농장은 말린풀과 칡, 아카시아나무잎을 비롯한 자연먹이 생산이 한창이며 단백질 함유량을 높이기 위해 강냉이짚을 균처리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 평안북도 벽동군 송사축산전문협동농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가축우리가 늘어난 조건에 맞게 가축우리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일군들은 종축작업반과 비육분조들에서 보수 대상들을 확정하고 필요한 자재 보장대책 등을 마련하여 염소, 양, 돼지, 닭 우리보수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돼지우리, 밀폐식 소우리 보수를 마무리하고 있음.

○ 가축 월동준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15)

· 평양시는 가축마리당 먹이소비기준을 정하고 겨울먹이 준비를 다그치고 있음. 농부산물을 저장하는 한편 새로운 먹이가공방법을 도입하는데 힘을 쏟고 있음. 이와 함께 겨울철 가축우리 온도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를 밀폐식으로 개조하였음.

· 황해남도 벽성군 통산협동농장은 겨울철 자연먹이로 이용할 수 있는 농부산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가축우리를 수리하고 바람막이바자로 둘러치는 등 관리대책을 세우고 있음.

· 황해북도 은파군 신촌협동농장 제2작업반 김경수의 가정은 빈 땅에 호박, 감자 등 먹이작물을 가꾸어 가축들의 먹이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이 가정은 겨울철을 앞두

고 먹이보장에 힘을 쏟으면서 수의방역사업과 가축우리 온도보장 준비를 잘해나가고 있음.

○ 각지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21)

· 자강도 송원군 신양협동농장은 축산작업반 뿐만 아니라 농산작업반과 기타 작업반들에서도 염소를 사육하도록 하여 최근 몇해 사이에 염소 마리수와 젖 생산량이 늘어난 실정에 맞게 고기와 젖보관기지로 자연냉장고를 건설하였음.

· 이 자연냉장고는 여러 개의 창고와 보관실을 갖추고 있으며 샘물이 이곳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 한여름에도 실내온도가 4℃를 넘지 않음.

· 황해북도 개성시 남포협동농장은 작업반마다 오리, 닭, 거위를 1천 마리씩 사육할 목표를 세우고 농장적인 총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제2, 7작업반은 가축우리 특히 알깨우실을 잘 꾸리고 알깨우기율을 높여 마리수를 늘리며 자연방목을 많이 하고 있음. 과수, 축산작업반들도 연간 1천여 마리의 닭, 오리, 거위를 기르고 있으며 농장원세대에서도 오리, 거위 10마리, 닭 5마리 이상을 기르고 있음.

○ 토착미생물 연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26)

· 평안남도 평성수의축산대학 교원학자들은 토착 미생물을 이용해 가축우리 환경을 개선하고 겨울철 온도를 높이며 가축 먹이와 배설물을 처리하여 영양가치와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축우리 바닥에 톱밥을 깔고 토착미생물로 처리하면 악취가 없어지며 토착미생물로 가축 배설물을 처리하여 먹이로 이용하면 먹이의 10～20%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함.

○ 평안남도 양덕군 통동협동농장의 축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29)

· 평안남도 양덕군 통동협동농장은 공동축산과 개인축산을 배합하여 축산 발전을 꾀하고 있음. 종축작업반은 새끼돼지와 새끼토끼 생산을 늘려 농장원 세대들에 나누어주고 있으며 풀판조성 및 이용작업반은 여러 곳에 염소우리를 짓고 사양관리를 기술적으로 하고 풀원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마리수를 늘려나가고 있음.

· 농장의 모든 세대들은 집집마다 닭 , 돼지, 염소, 토끼 등 가축을 많이 길러 축산물 생산을 늘리고 거름도 많이 받아내고 있음.

□ 염 소

○ 평안남도 평성시염소목장 조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16)

· 평안남도 평성시염소목장 조업식이 14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조업식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20여리의 윤환선도로를 내고 본장과 20개의 분장을 갖춘 목장을 건설하였다고 지적하고 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목장관리운영을 잘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질 좋고 영양가높은 젖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을 강조하였음.

○ 평안남도 평성염소목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5)

· 평안남도 평성염소목장은 평성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운영하는 20개의 분장이 있음. 각 분장들의 염소우리 부지면적은 넓지 않으나 염소의 사양관리에 편리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밖에는 염소야외놀이장, 먹이창고, 풀절임저장고 등이 갖추어져 있음. 각 분장의 염소우리가 완공된 후 일군들은 염소를 넣어 길러보면서 부족한 사항을 재점검하여 야외놀이장과 풀절임저장고를 보완하였음.

· 평안남도 평성염소목장에서 생산한 염소젖가공품인 케피르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목장 젖가공실을 케피르 치즈 등 젖가공품을 만드는 설비를 갖추고 갱도식 자연냉동고에서 젖과 젖가공품을 보관하고 있음.

○ 평안남도 평성시염소목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22)

· 평안남도는 평성시염소목장을 건설하면서 전기를 쓰지 않고도 생산을 진행할 수 있는 젖가공실을 갖추고 자연수를 이용하여 냉각수와 먹는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건설을 진행하였음. 또한 이름난 염소목장에서 젖가공 기술을 습득하여 주민들에게 호평받는 질 좋은 젖가공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음.

○ 황해남도 태탄군 운산협동농장의 염소 사육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1)

· 황해남도 태탄군 운산협동농장은 10년 전부터 농산작업반, 농장원세대에서 염소를 대대적으로 사육하여 마리수와 젖생산을 늘리고 있음. 농장은 산골짜기의 풀원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염소방목을 실시하고 새끼염소 관리를 잘하여 염소 증체율을 높이는 한편 유치원과 탁아소에 많은 염소젖을 공급하고 있음.

○ 각지의 염소 사육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26)

· 올해 각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초식가축, 특히 염소 사육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농업성 축산관리국의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염소마리수와 젖 생산을 늘리고 많은 풀판을 새로 조성하였음.

· 함경남도와 황해남도, 평안북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풀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과학적인 염소 사육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염소를 길러냈음. 또한 우량품종의 염소 마리수를 늘리고 전국에 보급하여 각지 축산기지들에서 염소 마리당 젖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였음.

□ 돼지

○ 량강도 대홍단군 백산돼지목장의 사양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13)

· 량강도 대홍단군 백산돼지목장은 계절에 맞게 우리 온도보장과 먹이보장, 위생관리에 힘을 쏟아 종자돼지와 새끼돼지를 기술규정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물거름 생산도 늘리고 있음.

○ 김정일이 인민군 군인들이 건설한 돼지원종장과 육류냉동고를 현지지도하였다고 보도(로동신문 12. 24, 민주조선 12. 24)

· 김정일이 인민군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돼지원종장과 육류냉동고를 현지지도하였음. 돼지원종장은 3만여㎡의 부지에 최신식 설비로 장비된 현대적인 종축기지로 사료가공에서부터 먹이 및 물공급, 돼지우리의 조명과 온습도 조절 등 모든 공정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조절됨. 김정일은 돼지원종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건설한 군인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면서 돼지원종장 관리운영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음.

· 김정일은 질 좋은 새끼돼지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종유지체계를 확립하고 사양관리를 과학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노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선진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료보장대책에 따르는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었음.

· 뒤이어 김정일은 인민군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육류냉동고를 현지지도하였음. 김정일은 냉동고에 대한 해설을 들은 뒤 내부를 돌아보면서 군인건설자들의 노력을 치하하였음. 김정일은 육류냉동고를 어디에서나 손쉽게 건설할 수 있는 경제적인 냉동시설이라고 하면서 냉동고를 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 부림소

○ 평안북도 정주시 세마협동농장의 부림소 관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20)

· 평안북도 정주시 세마협동농장 작업반들은 부림소의 겨울철 먹이를 충분히 마련하고 우리를 보수하며 관리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등 부림소를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이로써 농장은 거름 및 영농자재 운반에 부림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농사차비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오리, 거위

○ 오리공장의 개건현대화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7)

· 평양시 당위원회는 시인민위원회와 시건설지도국의 일군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현대적인 두단오리공장 건설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 있음. 건설자들은 오리우리 60동, 먹이가공직장, 고기가공직장, 털가공직장, 먹이창고, 급수탑을 새로 건설한데 이어 부족한 자재와 부속품들을 해결하면서 설비조립을 다그치고 있음.

· 평안남도는 북창오리공장 개건현대화공사를 벌려 1년 남짓한 기간에 7동의 비육오리우리, 4동의 어미오리우리, 6동의 야계오리우리, 3동의 새끼오리우리, 알깨우기실, 고기가공장, 먹이가공장 등 40호동의 건축공사를 완공한데 이어 지금 설비조립공사와 길포장, 울타리공사 등 주변정리를 하고 있음.

○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오리공장의 개건현대화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0)

· 김정일은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오리공장의 먹이 부족상황 등 운영실태를 파악한데 이어 현대적인 공장으로 개건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음. 도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개건현대화공사에 나선 도인민위원회, 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 일군들과 함흥시, 북청군을 비롯한 시, 군돌격대들은 자재, 운반수단과 공사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리우리 수십동을 비롯해 알깨우기장, 가공장 등을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개건현대화된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오리공장의 알깨우기장은 한번에 수십만개의 알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온습도, 알뒤집기상대 등 모든 조건을 컴퓨터로 조종하고 있음.

○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오리공장의 개건현대화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21)

· 함경남도 정평군은 광포오리공장 개건현대화공사를 추진하여 설비 및 자재 부족문

제를 비롯해 기술적인 문제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중단없이 개건현대화공사를 높은 수준에서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오리공장은 김정일의 현지말씀 관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알깨우기작업반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에 따라 기계를 관리운전하고 사양관리를 개선하는 등 앞선 사양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음. 이와 함께 겨울철 먹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초 절임과 알곡먹이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학연구단위들과 협동 하에 미량첨가제 도입사업을 비롯한 오리사양관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도 힘을 쏟고 있음.

○ 자강도 강계오리공장 개건현대화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2)

· 자강도 강계오리공장은 생산과 개건현대화공사를 동시에 추진해나가고 있음. 강계도시건설사업소, 강계시량정사업소와 강계신발공장을 비롯한 다른 단위들의 돌격대원들은 오리공장 개건현대화공사를 맡아 어미오리우리, 새끼오리우리 등 14동의 기본생산건물과 8동의 보조생산건물, 8동의 문화후생시설건물들의 건축공사가 90%계선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1,600여m의 상수도관 설치공사가 끝나고 정화구조물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 김정일의 115호 오리공장 시찰 소식을 보도(로동신문 11. 6, 민주조선 11. 6)

· 김정일이 인민군 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115호 오리공장을 시찰하였음. 115호 오리공장은 연건축면적 5만여㎡로 최신설비들로 장비된 현대적인 공장으로 군인 건설자들이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공하였음.

· 김정일은 오리공장 내외부를 돌아보고 건설정형을 파악한데 이어 공장관리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음. 김정일은 우리 인민들에게 훌륭한 식생활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가금업을 비롯한 축산에서 혁명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목장들의 생산공정을 과학화, 현대화하며 빨리 자라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우량품종들을 연구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 김정일은 고기와 알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사료기지를 잘 꾸려 수확고를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목장들에서 담당한 협동농장들을 물질기술적으로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자강도 강계오리공장의 현대화공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2)

· 자강도 강계오리공장 개건현대화공사가 막바지에서 진행 중임. 도시설계연구소 기

술자들은 건설물의 질을 높이면서 합리적인 공법을 도입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기고 있음. 이번 현대화공사가 완공되면 공장은 연간 수백 톤의 오리고기 생산규모를 갖추게 됨.

○ 평안남도 북창오리공장 준공 소식을 보도(로동신문 12. 31)

· 평안남도 북창오리공장이 개건현대화되어 20일, 현지에서 준공식이 진행되었음. 준공식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일의 뜻에 따라 도내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알깨우기장, 새끼오리우리, 고기가공장 등 40여 동의 건물을 건설하고 가금설비를 제작조립하였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함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인민들에게 유익한 오리공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보건성은 보건부문 위생방역일군들과 호담당의사들이 조류독감에 대한 위생선전과 검병, 검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검역소들도 수의검역과 위생검역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있음. 내각사무국과 체신성, 인민보안성 등 중앙기관의 일군들은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들에 이르는 수의비상방역통보체계를 세워 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수의방역(조류독감)

○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문답을 보도(민주조선 10. 18)

· 동남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조류독감이 급속히 전파되는 가운데 조류독감을 사전에 철저히 막기 위해서는 개체위생을 잘 지키고 몸단련을 꾸준히 해야 함. 국경초소에서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가금류와 그 제품들, 국경출입자들에 대한 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성, 보건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로 구성된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는 조류독감 발생과 피해자료, 기술자료 등을 도, 시, 군들에 보급하여 조류독감피해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최근 우리 과학자들은 첨단과학연구과제인 조류독감예방약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조류독감 예방대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0)

· 조류독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는 도, 시, 군들과 종금장에서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고 조류독감의 위험성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리고 있음.

· 농업성은 가금류와 알제품에 대한 수의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수의검사증이 없는 축산물이 공급, 판매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보건성은 위생선전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전국의 수의, 위생검역일군들은 소독대책을 세우고 야생계절죠류들의 유동을 통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조류독감 예방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21)

· 조류독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음. 농업성은 수의방역기관 일군들을 대상으로 기술강습을 진행한데 이어 조류독감에 대한 해설제강을 만들어 선전사업을 벌리고 있음. 특히 닭공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역 및 소독체계를 확립해나가고 있으며 저수지와 강 등 철새 서식지에 대한 역학감시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보건성은 보건부문 위생방역일군들과 호담당의사들이 조류독감에 대한 위생선전과 검병, 검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검역소들도 수의검역과 위생검역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있음. 내각사무국과 체신성, 인민보안성 등 중앙기관의 일군들은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들에 이르는 수의비상방역통보체계를 세워 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조류독감 예방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3)

·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품질감독국은 조류독감을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에 나서고 있음. 수출입품검사검역처는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에서 합의된 제품만을 수속해주고 국경지역의 검사검역소들에서 검사하는 체계를 세웠으며 수의검역대상물에 대한 검역사업과 함께 여행자들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고 있음.

· 중앙위생방역소를 비롯한 각 도 위생방역소들은 조류독감과 관련한 역학통보분과와 위생선전분과를 조직하고 피해자료와 기술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들을 통보해주며 세계적인 실태와 위험성, 예방법 등을 소개선전하고 있음.

· 방역소 일군들은 해당 지역 가금류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감시하며 가금 사양공들 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주민들에 대한 검병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 밖에도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격리, 치료하기 위한 격리병동을 꾸리고 의약품과 필요 물자를 확보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을 막기 위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김치가 조류독감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전해져 김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

다고 함. 김치를 먹으면 김치젖산균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각종 물질들이 인체에 흡수되면서 면역계통의 활성을 높여주며 조류독감 등 각종 바이러스와 질병들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준다고 함.

○ 조류독감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소개(민주조선 11. 4)

·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조류독감을 막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조류독감을 막는 사업에서 기본은 예방임. 조류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가금목장들에 대한 소독과 검병사업을 철저히 하고 철새들에 대한 감시와 통보사업을 강화해야 함.

· 조류독감 예방에서 중요한 것은 호흡기를 단련시키고 호흡기 감염을 막는 것임. 일상적으로 소금물함수나 마늘즙 흡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방대책을 세우고 비타민C가 함유된 식료품을 섭취하여야 함.

○ 조류독감 예방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8)

· 농업성은 외국의 조류독감 발생과 피해 정형, 예방 기술자료들을 각 도, 시, 군들에 보급하고 있으며 모든 닭공장에서 비상방역사업을 벌려 외래자출입을 금지하고 호동들과 운수기재들의 소독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중앙위생방역소와 각도 위생방역소들은 조류독감과 관련한 역학통보분과와 위생선전분과를 조직하고 가금사양공 뿐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주민들에 대한 검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조류독감 예방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13)

· 보건성은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피해자료와 예방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각 도, 시, 군들에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조류독감에 대한 해설선전활동을 벌리고 있음. 이와 함께 조류독감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진단시약과 예방약 연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철새 서식지에 대한 역학감시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평안남도 온천군 위생방역소는 현지에서 가금류 유통에 대한 통제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가금사양공들 뿐만 아니라 리내 모든 주민들에 대한 검진도 진행하고 있음. 선전의사들은 군내 여러 곳에서 조류독감에 대한 해설 및 기술강습을 벌려 군중들이 조류독감 예방사업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음.

○ 조류독감 예방대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17)

· 함경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수의방역소는 조류독감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시, 군수의방역소들과 도내 닭공장, 종금장들에 보급한데 이어 수의방역일군들을 대상으로 기술강습을 실시하였음.

○ 평양시의 조류독감예방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18)

· 평양시는 조류독감의 위험성과 피해 등을 알려주기 위한 위생선전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수의방역기관 일군들은 시내 모든 가금공장에 파견하여 소독과 검병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조류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금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병검진대책을 세우고 조류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통보하는 체계를 세우고 있음.

○ 조류독감예방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22)

· 평안북도는 조류독감 비상방역을 위해 철새와 야생조류에 대한 감시, 통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수의방역일군들을 대상으로 기술강습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함께 도일보사, 도방송위원회와 연계하여 도민들을 대상으로 조류독감 선전사업도 벌리고 있음.

· 량강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류독감에 대한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도위생방역소에서는 직관선전물과 위생선전자료카드를 공공장소와 공장, 기업소, 동, 인민반에 비치해놓고 있으며 건강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조류독감방역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27)

· 내각과 농업성을 비롯한 해당 부문 일군들과 전문가들로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가 조직되고 각 도, 시, 군을 망라하는 비상방역체계가 확립되었음. 농업성 중앙수의방역소는 세계적인 조류독감발생 역학자료와 국제기구들의 최신 통보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종합분석하여 각 단위에 보내주고 있으며 각 도, 시, 군들은 조류독감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가금공장들은 관리공들에 대한 검진대책을 세우고 가금들에 대한 검사와 예방접종사업을 벌리고 야생조류와 철새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항, 비행장, 국경통과지점들은 검역사업을 진행하여 조류독감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조류독감방역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29)

·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는 조류독감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전국적인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각 도, 시, 군들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류독감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벌리고 있으며 가금공장 관리공들에 대한 검진과 함께 가금들에 대한 감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는 철새들의 이동경로와 시기, 체류지 등을 파악하여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철새감시초소를 세우고 가금을 기르는 단위와 연선지역의 기관, 기업소, 농장, 주민세대들에서 야생조류와 철새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 조류독감 예방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2)

·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는 축산업 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조류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해나가야 함. 각급 비상방역위원회는 가금목장, 협동농장들과 연계하여 철새 서식지와 움직임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장악통제사업을 실시해야 함. 이와 함께 방역기관들과 가축사육 단위들은 조류독감 방역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상적인 검진을 실시해야 함.

· 중앙수의방역소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류독감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아래 단위에서 현지 역학상태를 파악하여 제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함경남도 금야군은 각 기관들과 협동농장들에 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하고 수의방역일군들과 비육분조장들을 감시원으로 선발한데 이어 수의방역소 일군들로 철새통과지역에 대한 특별감시를 조직하였음.

· 강원도 안변군은 협동농장에 조직된 비상방역위원회가 조류독감을 막는데 필요한 기술자료들을 준비하여 협동농장들에 보급하고 있음.

○ 조류독감 예방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2)

·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는 가금목장에서 가금류 예방접종사업과 여러 가지 소독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검병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야생조류 및 철새와 가금류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국경, 항, 비행장에서 검역사업을 강화하여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선전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음.

· 황해북도 위생방역소는 주민지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조

류독감 예방을 위한 선전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철새들의 이동경로와 서식처를 관찰하고 가금류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조류독감 예방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7)

· 국가비상방역위원회는 내각사무국과 성, 중앙기관의 책임일군들, 수의, 위생방역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 보장부문 일군들로 조직되었으며 각 도, 시, 군들과 종금장, 가금목장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도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 농업성 수의방역국은 조류독감 방역기술지도서와 조류독감 발생시 취해야할 대책자료를 준비하여 아래단위에 보내주었으며 조류독감 진단기구 이용방법에 대한 방식상학을 통해 일군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또한 야생조류 유동에 대한 감시, 통보와 함께 가금류에 대한 수의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보건성은 각지 위생방역소들과 병원, 진료소를 비롯한 보건기관들은 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생선전사업을 벌리는 한편 감기증상을 보이는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 국가과학원 세포 및 유전자공학분원은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전파되던 지난 봄철, 일부 닭공장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의 바이러스형을 밝혀냄으로써 조류독감 방역사업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과학적 담보를 마련하였음.

· 또한 조류독감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벌려 변이속도가 매우 빠른 임의의 조류독감 바이러스도 유전자수준에서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진단방법을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각 도, 시, 군 위생방역소는 목장들에서 나오는 폐수를 통해 조류독감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정화시설을 보수정비하고 예방소독을 정상화하고 있으며 국경지역과 해안연선지역들에서 철새들과 통과새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가금목장 종업원들의 개체위생대책을 세우고 그에 대한 검병사업을 매일 진행하고 있음.

· 국가과학원과 농업과학원 내 연구기관들과 평양의학대학,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 등 보건기관들은 조류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약과 소독약, 진단시약을 연구개발하는데 힘을 쏟고 있음.

· 농업성 가금생물약품연구소는 국내에 유입된 조류독감 바이러스 유형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한 연구사업과 함께 예방약 개발에 힘을 쏟아 15일 남짓한 기간에 예방

약을 성과적으로 연구개발하였음.

· 현재 연구소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H5N1형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연구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조류독감 예방대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10)

·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 규모에서 조류독감방역사업이 전개되고 있음. 내각과 농업성 등 해당부문 일군들과 전문가들로 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각 도, 시, 군들을 망라하는 비상방역체계가 갖추어졌음.

· 전국 가금목장들에 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가금에 대한 검사와 예방접종사업을 시행 중이고 철새 감시도 강화되고 있음. 한편 새로운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약, 치료약, 진단시약, 소독약 연구사업도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 평안남도 온천군 위생방역소는 조류독감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철새와 야생조류들이 모이는 곳에 감시초소를 만들어 감시와 통보사업을 벌리고 있음. 또한 종금장, 목장 등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가금류 검열사업과 가축우리 소독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4. 감자농사

□ 량강도 대홍단군과 백암군의 감자 수확작업과 내년도 새해농사준비에 대해 보도하고 있음. 또한 부전감자전분공장과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의 전분, 엿, 감자술 등의 생산을 소개하고 있음.

□ 감자농사 동향

○ 량강도 백암군의 감자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

· 량강도 백암군은 감자캐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옥천농장은 감자캐기 일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트랙터 수리정비를 잘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있으며 황토협동농장은 계획된 날짜에 감자캐기를 끝내기 위해 합리적인 방식을 도입하겨 감자캐기를 다그치고 있음. 백암군 삼수평농장은 일군들이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감자캐기에 적극 나서 감자캐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량강도 농근맹위원회의 화선식 정치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16)

· 량강도 농근맹위원회에서 감자수확 사회주의경쟁요강을 작성하고 시, 군 농근맹조직들은 사회주의경쟁지휘부를, 리농근맹조직들은 평가조를 조직하여 그 역할을 높이는 가운데 량강도는 속보 발간, 혁신자 축하선동, 해설담화, 오락회, 선동연설 등 다양한 정치사업 진행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높은 감자캐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량강도 대홍단군의 농사차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7)

· 량강도 대홍단군은 다음해 농사차비가 한창임. 각 농장들은 돼지목장에서 3,000여톤의 물거름을 생산하는 등 물거름 생산을 다그치고 있으며 밀, 보리짚에 진거름을 섞어 속성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 군은 감자저장고의 온습도를 보장하고 바람갈이를 기술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 트랙터, 연결농기계 수리정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

○ 량강도 대홍단군의 농사차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27)

· 량강도 대홍단군은 다음해 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마련하여 보관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 있으며 농장, 돼지목장들은 물거름을 비롯한 거름생산에 힘을 쏟고 있음. 이와 함께 농기계의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트랙터, 연결농기계 수리정비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 량강도 삼지연군의 새해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1)

· 량강도 삼지연군은 새해 첫날 수천명의 근로자와 윤전기재를 동원하여 질 좋은 거름을 감자밭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둔데 이어 거름 생산 및 운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량강도의 새해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8)

· 량강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올해농사에서 대홍단식 과학농법을 관철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음. 위원회는 농사경험을 토대로 기후풍토조건에 적합한 다수확품종 선정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준비한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과학기술적으로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감자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거름 생산 및 운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결농기계 제작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

○ 감자비로이드병 예방을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에 대해 소개(민주조선 1. 13)

·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실험생물학연구소 전의경실장은 감자비로이드병(PSTV)이 생장점 조직배양방법으로도 없앨 수 없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비로이드'라는 이름은 감자알 방추형 비로이드의 병원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소개하였음.

· 감자비로이드병에 감염되면 줄기와 잎은 정상 식물체보다 가늘고 길며 웃자라는 경향이 있는데 감자의 경우 방추몽양으로 가늘고 길게 되며 감자눈이 많아지고 주위에 검은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감자비로이드병은 농기구와 감자알을 다루는 도구를 통한 기계적 전파가 기본이며 꽃가루, 종자, 진딧물, 메뚜기를 통해서도 감염됨.

· 감자비로이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의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것임. 병이 없는 종자를 확보하고 종자처리를 잘하여 하며 농기구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함. 또한 증상이 나타난 포기를 제때에 제거하여 전염을 방지해야 함.

□ 감자 가공

○ 함경남도 부전감자전분공장 조업식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1, 민주조선 10. 1)

· 함경남도 부전감자전분공장 조업식이 9월 30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조업식에서는 공장 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건설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되었음.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공장의 종업원들과 일군들이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설비 및 기술관리를 잘하여 질 좋은 감자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 품종을 계속 늘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강성대국 건설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였음.

○ 감자가공품 생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7)

· 량강도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은 감자전분 생산을 끝내고 요즘 감자엿과 분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감자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함경남도 부전감자전분공장은 설비가동률을 높여 감자전분 생산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음. 량강도 백암군 옥천전분공장은 올해 감자전분 생산을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량강도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의 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8)

· 량강도 대홍단감자가공공장 전분직장은 현대적인 감자전분기를 이용해 원료투입에서 제품포장까지 25분여가 걸려 감자전분을 생산하고 있음. 분탕직장은 자동흐름식 생산공정을 갖추고 각종 엿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술직장은 수십단에 10m 높이의 정제탱크를 이용해 이름난 대홍단 감자술을 생산하고 있음.

5. 이모작

□ 이모작 동향에 대해서는 논벼와 강냉이의 앞그루로 좋은 가을밀, 보리, 감자, 유채 등을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켜 제 철에 심어야 한다고 강조

□ 이모작 동향

○ 평안북도 정주시 암두협동농장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1)

· 평안북도 정주시 암두협동농장은 알곡 대 알곡 재배면적을 5년 전에 비해 5배로 확장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농장은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여 앞그루 밀, 보리농사에서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하였음. 밀, 보리 씨를 뿌린 뒤 흙을 덮어주는 작업을 대신할 기계를 제작, 도입하는 한편 트랙터 수리정비와 부속품 보장을 앞세워 가동률을 높였음. 이와 함께 비생산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작업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였음.

· 농장은 재배면적이 늘어난 만큼 거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질 좋은 흙보산비료 생산에 힘을 쏟았음. 생산한 거름의 질을 평가하는 질판정조를 조직하여 흙보산비료의 질을 높인데 이어 앞그루작물의 잎과 줄기 등을 녹비로 이용하여 부족한 거름을 보충하였음.

○ 황해북도 은파군의 농사준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20)

· 황해북도 은파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논벼와 강냉이 앞그루로 밀, 보리, 감자를 심을 계획에 따라 종자 소요량을 정하고 해당 단위들과 연계하여 종자 보장대책을 세우고 있음.

○ 평안북도 정주시 암두협동농장의 영농작업 기계화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21)

· 평안북도 정주시 암두협동농장은 일손부족문제 해결에 힘을 쏟아 이모작 재배면적을 체계적으로 늘렸음. 농장은 작업반별 일손을 파악하여 실정에 맞게 이모작농사면적을 정하고 영농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창안제작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로써 농장은 여러 대의 농기계를 만들어 수백 명의 일손을 절약하면서도 밀, 보리씨뿌리기를 비롯한 영농작업을 제 철에 질적으로 할 수 있었음.

□ 유채 재배 동향

○ 유채 재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10)

· 김정일은 유채를 많이 심어 인민들의 먹는 기름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침을 주었음. 유채는 경작지면적이 제한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토지 이용률과 지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은 작물로 널리 재배되고 있음.

· 농업과학원 10월 7일 연구소 유채연구실에서 이모작농사 앞그루로 좋은 새 품종의 유채를 육종해낸데 이어 황해남도 강령, 옹진, 장연, 신천, 태탄군을 비롯해 황해북도 등에서도 유채를 많이 심어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황해남도 장연군 청계협동농장은 4년여 동안 이모작농사 앞그루로 유채를 재배해오고 있음. 농장의 각 분조에서 해마다 강냉이 앞그루로 유채를 1정보 이상씩 심고 있으며 정보당 평균 70㎏~1톤의 유채씨를 거둬 들이고 있음.

· 농장은 이모작 앞그루로 유채를 심어 유채씨를 수확한 뒤 잎줄기를 그대로 두고 갈아 엎어 잘 썩힘으로써 이모작 재배지의 지력을 높이고 있음. 또한 농장 자체로 제작한 기름짜는 기계로 유채기름을 생산하여 농장원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유채재배에 대한 과학기술적 문제에 대해 소개(민주조선 12. 9)

· 유채를 널리 심고 가꾸어 높은 수확고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특성을 알고 과학기술적으로 재배해야 함. 유채는 추위에 강하고 저온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가을에 씨를 뿌리고 다음해 6월에 수확하는 이모작농사의 앞그루작물로 심을 수 있음. 유채를 최적기에 심은 뒤에는 밑거름과 수분을 충분히 보장해주며 씨솎음을 잘해야 함.

□ 가을밀, 보리 씨뿌리기 동향

○ 평안남도의 가을밀, 보리심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2)

· 평안남도는 가을걷이와 함께 가을밀, 보리심기가 한창임. 숙천군, 안주시는 일손과 여러 가지 수단들을 집중배치하고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도입하여 가을밀, 보리심기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온천군을 비롯한 각 군들은 가을밀, 보리심기 일정계획을 수행하면서도 평당 씨뿌림양을 비롯한 기술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황해남도 청단군 청단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28)

· 황해남도 청단군 청단협동농장에서 이모작농사의 본보기로 제13작업반을 선정한 가운데 제13작업반은 전체 밭면적에서 이모작농사를 지을 계획을 세우고 몇 달 사이에 공공건물을 산기슭으로 옮겼으며 정보당 수십 톤의 질 좋은 거름을 내여 앞그루 밀보리, 감자농사와 뒤그루농사도 잘하였음.

6. 농업 기반

□ 백마-철산물길 준공식이 10월 2일에 진행되었다고 보도. 백마-철산물길은 백마호에 찬 수만정미의 물이 총연장길이 270여㎞의 물길을 따라 룡천군, 염주군, 철산군, 신의주시를 비롯한 6개 시, 군의 농경지들에 자연적으로 흘러들게 되어 있는 대규모의 현대적인 관개시설로 2년 남짓한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공하였음.

□ 백마-철산 관개수로공사

○ 백마-철산물길 준공식 진행 소식을 보도(로동신문 10. 3, 민주조선 10. 4)

· 백마-철산물길 준공식이 2일에 진행되었음. 백마-철산물길은 백마호에 찬 수만정미의 물이 총연장길이 270여㎞의 물길을 따라 룡천군, 염주군, 철산군, 신의주시를 비롯한 6개 시, 군의 농경지들에 자연적으로 흘러들게 되어 있는 대규모의 현대적인 관개시설임. 김정일의 대자연개조구상 실현에 나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군인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대규모의 백마-철산물길공사를 2년 남짓한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공하는 위염을 떨쳤음.

· 준공식에서는 백마-철산물길공사에서 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내각총리 박봉주가 전달하였고 조선로동당 중앙검열위원회 박용석 위원장이 준공보고를 하였음.

· 보고자는 물길건설자들이 백마-철산물길공사 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황해북도의 미루벌물길공사를 단기간 내에 다그쳐 끝내야 한다고 말하였음. 또한 백마-철산물길관리소와 물길지구의 일군들, 근로자들은 물길 관리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물을 허실없이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백마-철산물길 완공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3)

· 자연흐름식 관개체계인 백마-철산물길이 준공됨으로써 종전에 이용하던 양수기, 전동기, 변압기를 비롯한 400여대의 설비들과 수만㎾의 전력을 쓰지 않고도 룡천

군, 염주군, 철산군, 룡림군, 피현군, 신의주시의 농경지들에 관개용수를 충분히 대주는 등 평안북도의 물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서부지구의 수리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 기념비적 창조물 백마-철산물길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4, 민주조선 10. 4)

· 김정일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인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데 중요한 백마-철산물길 건설을 몸소 발기하고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지도하였음.

· 김정일의 대자연개조구상 실현을 위해 물길공사중앙지휘부와 각도 여단, 대대들이 조직되고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하여 2년 남짓한 기간에 백마-철산물길을 완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대규모의 백마-철산물길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공됨으로써 평안북도의 곡창벌에 관개용수문제가 해결되었음.

· 백마호는 수만정미의 저수능력을 갖춘 대인공호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관개용 저수지임. 백마호는 기본언제, 보조언제, 무넘이언제, 취수구조물로 이루어지며 백마-철산물길을 따라 자연흐름식으로 흘러 평안북도 곡창벌의 관개용수로 이용되고 있음.

· 김정일은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본보기로 여러 지대들의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추진하여 나라의 관개체계를 높은 수준으로 완성하도록 과업을 제시하였음. 김정일의 지도 하에 물길건설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평안북도의 곡창벌의 관개용수를 자연흐름식 물길로 보장하는 백마-철산물길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하였음.

· 김정일의 구상에 따라 앞으로 리상-미루벌물길공사가 완공되면 미루벌의 관개용수문제도 해결됨. 전기를 쓰지 않고 강물의 자연흐름 그대로 흘러 관개용수를 보장하는 우리 식의 관개건설 역사를 창조한 김정일의 업적은 길이 빛날 것임.

○ 김정일이 백마-철산물길공사에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보도(로동신문 11. 22)

· 김정일은 백마-철산물길공사에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음. 황해관개건설여단은 백마호 기본언제공사를 완공하였으며 황해북도여단은 대형용수잠관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음. 함흥제2백화점은 많은 물자를 지원한데 이어 여러 차례 일손을 도왔으며 황해관개건설사업소 종합상점 종업원들, 동림군 읍가두여맹초급위원회 여맹원들을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이 공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음.

○ 김정일의 백마-철산물길 시찰소식을 보도(로동신문 12. 5, 민주조선 12. 6)

· 김정일이 백마-철산물길을 돌아보았음. 김정일은 백마호와 물길구조물을 돌아보면서 건설정형을 파악하고 건설자들이 대자연개조공사를 훌륭히 완공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면서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음.

· 김정일은 백마-철산물길이 평안북도의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물길 이용과 관리운영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음. 김정일은 백마호의 물을 관개용수 뿐만 아니라 공업용수와 음료수로도 널리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황해북도 미루벌을 비롯한 모든 지대들의 물길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 온 나라의 관개체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백마-철산물길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12)

· 우리 인민들은 대자연개조사업 가운데 제2의 자연흐름식물길인 백마-철산물길을 두해 남짓한 기간에 완공하는 위업을 달성하였음. 평안북도 피현군으로부터 압록강 하류지대와 대계도간석지에 이르는 수백 리 구간에 자연흐름식 물길은 올해 대자연개조사업의 가장 큰 성과임.

○ 백마-철산물길의 성과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1)

· 올해 평안북도는 백마-철산물길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첫해 농사를 짓게 됨. 룡천군, 염주군, 피현군, 동림군, 철산군, 신의주시 내 협동농장들은 백마-철산물길 완공으로 물 걱정 없이 농작물의 생육시기별 비배관리를 적기에 질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음.

· 협동농장들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지난해보다 높이 세우고 감자농사, 이모작농사, 콩농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관개용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로둑을 보강하고 가셔내는 등 관개망을 재정비하고 있음.

□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전개되는 가운데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2,30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수백리의 도로 건설 및 기술개건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하천을 정리하였음. 또한 수만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끝내고 1,500여 동의 공공건물을 대보수하였으며 양어장을 건설하였음.

□ 국토관리사업

○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19)

· 량강도 김정숙군은 가을철 국토건설계획을 세운데 이어 일손과 운수수단을 집중하여 장진강기슭에 300㎡의 장석을 깔고 자연재해를 입을 수 있는 구간에 제방을 쌓았음. 또한 돌격대를 조직하여 살림집 132세대의 지붕을 보수정비하였음.

· 자강도 만포시는 공장과 일터, 거리와 마을, 산촌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음.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새로 건설하고 도로를 단장하였음. 이와 함께 210동의 살림집 지붕을 대보수하고 130동의 살림집 외벽을 개조했으며 1,500여개의 살림집 창문을 새로 교체하였음.

○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7)

· 강원도는 땅이 유실되는 것을 막고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보호사업을 벌리고 있음. 안변군, 고산군, 통천군, 창도군을 비롯한 시, 군들은 저수지들과 물길상태, 양수, 배수설비, 포전 실태를 파악한데 이어 위험구간들에 돌을 입히고, 나무를 심는 한편 강하천을 보강하고 물빼기도랑을 정비하고 있음.

· 황해북도 금천군은 아카시아, 이깔나무, 잣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들에서 종자따기를 끝내고 도로보수와 옹벽쌓기를 실시하고 있음. 금천화학공장과 군농기구공장, 월암, 문명협동농장은 강바닥과 물줄기 바로잡기, 돌쌓기, 막돌채취 등 강하천보수공사를 다그치고 있음.

○ 가을철 국토관리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10)

· 자강도 만포시는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시내 기본도로 수천m를 새로 포장하고 인도를 보수한데 이어 시내와 농촌의 공공건물 수십동과 살림집 수백동을 보수하고 현대적인 살림집 수백동을 새로 건설하였음.

· 이와 함께 수만그루의 가로수를 심고 압록강 및 하천 제방보수를 끝내고 아카시아나무와 이깔나무, 가래나무 등 여러 가지 나무종자 3.3톤를 따들여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는 전망을 마련하였음.

· 평안남도 대동군은 시정노동자구를 흐르는 사창천과 주변정리사업을 벌려 장마철 집중호우로 유실된 하천 주변의 많은 토지를 원상 복구하고 제방둑도 보수하였음.

· 황해북도 린산군 동사농장은 5년 동안 리 자체의 힘으로 농업생산량을 늘리면서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농장은 자기 지방의 자재를 기본으로 설계, 시공을 한데 이어 살림집을 건설하고 마을을 형성해 나가고 있음.

○ 가을철 국토관리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15)

· 평양시 강동군은 수정천 3㎞구간에서 1만 400여㎥의 흙을 처리하는 강바닥파기와 장석대보수공사를 끝낸데 이어 나무심기와 구덩이파기, 종자따들이기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황해북도 신계군은 태봉천 정리공사를 끝냈으며 읍지구에 32동에 128세대, 농촌리들에 500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공사를 진행 중임.

· 황해북도 봉산군은 검수천, 방산천 등 군내 여러 강하천 정리공사에서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의 실정에 맞게 공사작업을 분담하도록 하고 필요한 역량과 운반수단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음.

○ 국토관리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16)

· 평안남도는 올해 가을철국토관리사업에 돌입하여 현재까지 150여㎞의 도로건설 및 도로기술개건, 220여㎞의 포장도로 및 인도 보수, 28개소의 다리보수, 120여㎞의 제방건설과 제방보수, 100여㎞의 하천바닥파기와 물길 바로잡기, 11만 7천여그루의 나무심기와 8개 지역에 유원지 건설, 수천세대의 살림집 건설 등을 진행하고 있음.

· 함경남도 금야군은 도로의 기술개건사업을 벌리는 한편 금야강 좌안제방쌓기와 중소하천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아카시아, 이깔나무 등 나무모를 보장하고 구덩이를 파놓아 나무심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

· 황해북도 신계군은 가을철 나무심기와 나무모 생산, 종자따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잣나무밭면적을 늘리고 아카시아 등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방풍림을 조성하고 있음. 또한 신계청다리 확장공사, 구락리지구의 다리확장공사, 릉수리지구의 태봉천제방 장석공사와 강바닥파기공사가 진행 중이며 읍지구와 협동농장들에 살림집 건설 및 보수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음.

○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18)

·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전개되는 가운데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2,30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수백리의 도로 건설 및 기술개건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하천을 정리하였음. 또한 수만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끝내고 1,500여 동

의 공공건물을 대보수하였으며 양어장을 건설하였음.

· 함경남도 신흥군은 올 가을, 수백정보에 경제적으로 유익한 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우고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직물공장, 상업관리소 등 각 단위의 근로자들은 구덩이파기, 밑거름주기, 버팀대 세우기 등 나무심기를 기술규정대로 해나가고 있음.

○ 국토관리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25)

· 평안북도 태천군은 도로관리, 강하천정리사업을 벌리는 한편 산림조성과 관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군은 산림면적의 65%이상을 잣나무, 이깔나무, 수유나무, 단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로 전변시키고 해마다 많은 산열매와 약초를 채취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이용하고 있음.

○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26)

· 평안남도 평성시는 도로기술개건에 일손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보수정비를 끝낸데 이어 강하천정리사업을 벌려 강바닥파기와 물줄기바로잡기, 동둑쌓기 등을 기술규정대로 진행하고 있음. 이와 함께 종어장을 비롯한 양어장 건설을 단 일주일동안에 끝냈음.

· 평안남도 온천군은 군중적 운동으로 나무심기사업을 진행하여 주변 산들에 아카시아 등 수종이 좋은 나무 100만 그루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음.

· 평안북도 초산군은 백 수십리 구간의 도로 기술개건과 도로건설공사를 진행하고 강바닥파기, 제방쌓기 등 강하천정리사업도 성과적으로 끝냈음. 이와 함께 내년 봄, 수백정보의 산림을 조성할 수 있는 나무모를 확보하고 계단둑 짓기를 다그치고 있음.

○ 국토관리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29)

· 황해북도 개성시는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5.4㎞의 하천제방보수와 바닥파기, 10여만 그루의 나무심기, 도시와 농촌들에 340여동의 살림집 건설 및 보수, 160㎞의 도로보수정비, 430여 정보의 흙깔이와 냉습지 개량, 양어장 보수 등을 진행하고 있음.

· 평안남도 남포시는 130여 정보의 면적에 12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우고 나무심기를 진행 중이며 도로 건설과 기술개건에 힘을 쏟고 있음.

· 함경북도 온성군은 두만강 상평제방공사를 벌려 배수문공사를 끝내고 제방공사를 막바지에서 진행하고 있음.

○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30)

· 평안남도 순천시는 대동강 호안장석공사와 내골천 제방보수를 비롯하여 중소하천에 대한 강바닥파기와 물길바로잡기 등 강하천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용재림, 경제림, 보호림, 풍치림 등 산림조성계획을 세우고 아카시아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는데 힘을 쏟고 있음.

○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2)

· 평안남도 온천군은 해일과 홍수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고 농사를 안전하게 짓기 위해 해안방조제공사를 진행 중임. 군 일군들은 해안지대를 조사하고 인력, 설비, 자재 등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이어 대중들의 작업열의를 북돋우면서 질적으로 방조제공사를 벌려나가고 있음.

· 자강도 성간군은 군소재지와 리를 연결시키는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황해남도 안악군 대추협동농장의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5)

· 황해남도 안악군 대추협동농장은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맞아 작업반 건물과 마을의 살림집에 좋은 외장재를 발라 단장한데 이어 울타리를 새로 보수하고 학교와 병원, 편의시설을 새로 꾸렸음. 수십 동의 생산건물과 소재지마을의 살림집 보수사업이 진행되고 농장을 지나 읍으로 가는 도로 포장을 끝냈음.

○ 국토관리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27)

· 올해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강원도는 도로를 정비하고 수천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으며 자강도 전천군은 전천-송원 간 도로의 진평다리를 건설하고 읍지구에 350여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

· 황해북도 사리원시는 80여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고 2만 3천여㎡의 포장도로를 보수하였으며 160여 정보의 냉습지를 개량하고 100여 정보의 논에 흙깔이를 하였음. 또한 1천 4백여 세대의 살림집, 6동의 공공건물을 건설하였음.

□ 관개사업

○ 황해남도 송화군 명례군민저수지 완공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4)

· 황해남도 송화군 명례군민저수지가 완공되어 3일, 현지에서 준공식을 진행하였음. 준공식에서는 김정일이 명례군민저수지와 송화청년염소목장 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송화군 해당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보낸 감사가 전달되었음.

· 저수지와 청년염소목장이 건설됨으로써 수십 대의 양수기, 전동기, 변압기를 쓰지 않고 명례리와 다암리의 관개용수를 보장하며 알곡과 축산물 생산을 늘려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음.

○ 강원도 통천군의 강하천정리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16)

· 강원도 통천군은 신대벌, 가흥벌, 금란벌을 흐르는 신흥천 하류 물길을 바로 잡고 강바닥을 낮추며 제방을 높이는 등 물길보수공사를 벌려 수십정보에 달하는 논을 해일과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 황해남도 송화군의 명례군민저수지 건설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25)

· 황해남도 송화군은 명례리의 골짜기를 막아 저수지를 건설함으로써 자연흐름식 방법으로 송화군 다암, 명례리와 삼천군 룡암리의 논밭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함께 저수지 주변에 3만 8,000㎡의 부지를 차지하는 현대적인 송화청년염소목장을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황해남도의 저수지 용수 확보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3)

· 황해남도는 저수지를 비롯한 물주머니들에 다음해농사에서 사용할 물을 채우고 있음. 청단, 연안, 옹진, 장령군은 양수설비 수리정비를 질적으로 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배에 달하는 물을 채워놓았으며 벽성군 석담, 신천군 호암, 청단군 홍산협동농장 등은 저수지 물잡이와 함께 보조수원 확보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평안남도 온천군의 제방공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6, 민주조선 1. 6)

· 평안남도 온천군은 2만 5천㎥의 흙을 처리하여 2,700m에 달하는 송동천 제방둑을 높이고 폭도 넓혔음. 송동천제방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700정보의 논밭에서 홍수 걱정없이 올해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음.

□ 살림집 건설

○ 함경남도 삼수군의 살림집 건설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19)

· 함경남도 삼수군 인민위원회는 읍지구의 거리형성계획에 따라 살림집 건설구획을 정하고 농촌지역은 물론 읍지구에만도 200여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고 있음.

○ 평안북도 위원군의 살림집 건설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4)

· 평안북도 위원군은 올해 수백세대의 살림집 건설계획을 세우고 군소재지의 남파와 월평지구에 35동의 살림집을 건설한데 이어 고보리에도 수백 동의 농촌살림집을 건설하였음. 광천리를 비롯한 군내 모든 리들에서도 수십세대씩의 새 살림집을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자강도 송원군의 살림집 건설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29)

· 자강도 송원군은 읍지구 중심구역과 연목골, 령등골 등 여러 지역에 살림집 건설위치를 정하고 지방건재를 최대한 동원하여 건설을 다그치고 있음. 신양협동농장은 지방자재를 이용하여 30여 동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한데 이어 명문협동농장도 수십 동의 살림집을 건설하였음.

○ 평안북도 박천군 기송협동농장의 보온식 부뚜막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6)

· 평안북도 박천군 기송협동농장은 농촌문화주택들에 보온식 부뚜막을 만들어 땔감을 절약하고 있음. 이 보온식 부뚜막은 진흙, 볏짚, 마른재와 모래 등으로 만들며 마른재가 보온재 역할을 하여 열손실이 매우 적음. 농장은 지난 시기 한해에 4,000㎥의 아카시아나무를 땔감으로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2,000㎥의 아카시아나무만으로 땔감을 해결하고 있음.

○ 자강도 전천군의 살림집 건설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6)

· 자강도 전천군 인민위원회,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들과 도시건설대, 량정사업소 등 군급기업소들에서 법정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구들의 살림집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농촌리 가운데 리만리는 지방건재와 건구용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여 수십 동의 현대적인 농촌살림집을 짧은 기간에 완공한데 이어 무평리와 읍지구들은 능률적인 기술혁신안과 시공방법을 받아들여 건설속도를 높이고 있음.

○ 농촌살림집 건설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15)

· 올해 각 시, 군들은 현대적인 농촌살림집을 지방의 자재, 원료,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건설하였음. 평안남도는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에서 메탄가스화된 살림집 70여세대를 건설한데 이어 증산군 풍정협동농장, 안주시 운송협동농장 등에서는 메탄가스화된 살림집과 함께 수천세대의 농촌살림집을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황해남북도와 평안북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건설된 많은 농촌살림집들에는 5그루 이상의 과수를 심고 뒷뜰에 가축우리와 창고를 건설하여 농촌생활에 편리한 조건을 갖추었음.

○ 황해북도 황주군의 농촌살림집 건설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26)

· 황해북도 황주군은 최근 석산리에 수십 동의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을 건설한데 이어 모든 리들에 농촌살림집 건설사업을 벌려 불과 7달 여 사이에 28개의 새 마을이 생겨나고 1,600여 세대가 새집들이를 하였음.

□ 해안방조제 공사

○ 평안남도의 해안방조제공사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22)

· 평안남도는 해일과 홍수 피해를 막고 알곡생산을 늘리는데 중요한 해안방조제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천리마군여단, 남포시여단, 개천시려단의 돌격대원들은 윤전기재의 이용률을 높이면서 방조제쌓기와 장석입히기공사를 일정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 평안남도 서해해안방조제 완공소식을 보도(민주조선 12. 16)

· 평안남도에서 서해해안방조제를 짧은 기간에 완공하였음. 도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동원된 가운데 온천-문덕 사이 30여리가 넘는 구간에서 썰물 때 흙을 퍼 올리는 방대한 공사를 끝냄으로써 농지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 평안남도 온천군의 토지보호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22)

· 평안남도 온천군은 바다를 끼고 있는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장마철에 해일피해가 발생하자 해안방조제 복구공사를 농사차비의 중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다른 농사차비와 함께 해안방조제 복구공사를 추진하였음.

□ 농촌발전상 소개

○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의 발전상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15)

·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은 김일성을 명예농장원으로 모신 50주년을 맞으며 마을의 면모를 새롭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음. 농장은 살림집을 정비하고 탁아소, 유치원, 학교 등 공공건물의 울타리를 새로 세우며 리인민병원을 개건하였음. 이와 함께 문화회관, 양어장, 편의봉사망들도 현대적으로 정비하였음.

○ 평안북도 의주군 홍남협동농장의 발전상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30)

· 평안북도 의주군 홍남협동농장은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여 과수작업반과 제9작업반 농장원세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집집마다 메탄가스 발생탱크를 건설하여 취사를 해결하고 있음.

7. 산 림

□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사업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자연개조사업임. 우리나라의 산림조성사업은 해마다 봄, 가을철 나무심기를 계기로 전군중적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풍토에 맞는 나무모, 종자가 해결되고 현대적인 양묘장이 건설됨으로써 전국 도처에 용재림, 섬유림, 기름나무림, 식용열매나무림이 대대적으로 조성되게 되었음.

□ 산림조성 및 보호사업

○ 평안북도 박천군 기송협동농장의 산림조성 및 보호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4)

· 평안북도 박천군 기송협동농장은 아카시아나무림 500여 정보를 조성하여 해마다 부식토와 영농자재, 땔나무를 해결하고 있음. 농장은 산림 조성과 보호사업을 잘하기 위해 산림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산관리원들이 관리하는 체계를 세우고 농장원세대마다 뒷산 위주로 산림구역을 분담해주어 나무심기, 보호관리, 이용을 책임지도록 하였음. 농장은 열흘에 한번씩 산림보호정형을 총화하여 누구나 산림보호사업에 나서도록 하고 있음.

○ 산림보호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6)

·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사업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자연개조사업임. 우리나라의 산림조성사업은 해마다 봄, 가을철 나무심기를 계기로 전군중적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풍토에 맞는 나무모, 종자가 해결되고 현대적인 양묘장이 건설됨으로써 전국 도처에 용재림, 섬유림, 기름나무림, 식용열매나무림이 대대적으로 조성되게 되었음.

· 황해북도 수안군인민위원회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마련하면서 근로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교양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감시체계를 세우고 산불방지와 관련한 총화사업을 정상화하고 있음.

· 함경북도 무산군 공업림경영소는 5개의 산봉우리에 산불고정감시초소를 만들고 산불위험구역들에 대한 지상순찰감시조직을 운영해나가고 있음. 뿐만 아니라 산마다

소방기구를 갖추고 혁명전적기구역들에 산불막이선을 만들어 산림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함.

○ 산림조성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7)

· 평안북도 의주군 산림경영소는 양묘장 면적을 2배로 늘린데 이어 습지구에 심을 수종이 좋은 나무모까지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의주군 산림경영소는 산에 심을 아카시아, 수유나무 등 나무모를 해당 단위들에 제때에 공급하고 있음.

· 평안남도 덕천시는 도로 주변과 산기슭에 더 많은 아카시아나무를 심기 위해 백수십 정보의 면적에 구덩이 파는 작업을 끝냈음.

· 황해남도 은천군 정동협동농장은 수백정보의 아카시아나무림을 조성하여 덕을 보고 있음. 농장은 아카시아나무림이 울창하여 가뭄이나 홍수로부터 농경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영농자재와 건설에 필요한 목재, 가축먹이도 해결하고 있음.

○ 가을철 나무심기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24)

· 평양시 선교구역 원림사업소는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 기간을 맞아 나무심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나무모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양묘작업반은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기술적 재배방법을 받아들이고 겨울에도 나무모 키우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수삼나무, 느티나무, 아카시아, 버드나무, 포플러, 수유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키워 각 기관, 기업소들에 공급하였음.

· 아카시아나무는 빨리 자라고 이용가치가 높으며 목적에 따라 땔나무림, 용재림, 꿀원료림, 먹이원료림, 보호림으로 조성할 수 있음. 땔나무림은 정보당 1만그루, 용재림은 정보당 3,000~4,000그루, 보호림은 7,000~8,000그루, 혼성림의 경우는 3,000~4,000그루 이상 심을 수 있음.

· 잡종수포플러나무는 평양포플러와 물황철나무를 교잡한 품종으로 가뭄과 추위에 강하며 생활력이 아주 강하고 다른 포플러에 비해 활착률이 높음.

· 분홍꽃아카시아나무는 심어서 4년이면 높이가 18m정도로 빨리 자라며 꽃은 한해에 두 번 핌.

· 은행나무는 보통 30m이상 자라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많은 열매가 달리고 벌레가 생기지 않음.

· 수삼나무는 한해 보통 1m정도씩 자라며 6~8년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음.

○ 산림부문 일군들의 식수 진행 소식을 보도(로동신문 12. 1, 민주조선 12. 1)

· 산림부문 일군들은 오동나무, 단풍나무를 비롯한 4종에 100그루의 나무를 마련하여 11월 30일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 나무를 심었음.

○ 량강도 김정숙군 풍양중학교의 잣나무림 조성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3)

· 량강도 김정숙군 풍양중학교에서 750정보의 잣나무림을 조성하였음. 이 학교 교원, 학생들은 군산림경영소와 연계하여 잣나무모를 집중적으로 키우면서 해마다 잣나무림을 20여 정보씩 조성해왔으며 해마다 전국의 혁명사적지들과 학교에 잣씨를 보내주고 있음.

○ 각지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의 식수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4)

· 황해북도 각 시, 군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은 금수산기념궁전 주변에 지난 한달동안 9종에 300여그루의 나무들과 수천뿌리의 백도라지를 심었으며 평양시와 평안남도 농근맹원들은 만경대혁명사적지에 감나무, 오얏나무 등 370여그루의 과일나무를 심는 등 각지 농근맹 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이 지난 한달동안 혁명사적지들에 13종에 6만 5,000여그루의 나무들과 꽃뿌리를 심었음.

□ 나무모 생산

○ 자강도 산림과학연구소의 나무모 생산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15)

· 자강도 산림과학연구소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없는 특수한 수종의 나무, 경제적 이용가치가 큰 수종의 나무도 쉽게 확대번식시킬 수 있게 되었음. 이 곳 수목원은 세척, 멸균, 접종, 조직배양설비를 갖추고 민아카시아, 오동나무, 밤나무, 회화나무, 왕다래나무 등 수만그루의 나무모를 다량 생산하고 있음.

○ 평안남도 덕천시의 나무종자따기 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17)

· 평안남도 덕천시는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따기를 군중적으로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음. 시당위원회는 주 1회 나무종자따기 정형을 총화하고 종자따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4톤이 넘는 아카시아, 창성이깔나무종자 등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를 확보하였음.

○ 함경남도 북청군의 나무모 재배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25)

· 함경남도 북청군 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수백리 떨어진 깊은 산 속에서 떠온 이깔나무모를 심고 가꾸기 시작하여 해마다 수백만 그루의 이깔나무모를 키우는데 힘을 쏟고 있음.

· 산림경영소는 봄에 떠온 이깔나무모는 나무모밭에 옮겨 심고 가을에 떠온 이깔나무모는 저장움에 넣었다가 옮겨 심고 있는 방법으로 올해에도 많은 이깔나무모를 키워 여러 지역의 산들에 옮겨 심었음.

○ 국토환경보호성 산림과학원 경제림연구소의 연구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30)

· 국토환경보호성 산림과학원 경제림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적합한 나무 품종들을 연구완성한데 이어 경제적으로 쓸모있는 나무 재배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문제 해결에도 힘을 쏟고 있음. 섬유제지림연구실은 이용가치가 큰 나무 품종들의 재배와 번식에서 제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해결하고 연구성과를 해당기술들에 도입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새 품종 오동나무 재배경험발표회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4, 민주조선 12. 3)

· 전국 산림부문 일군들의 새 품종 오동나무 재배경험발표회가 12월 1, 2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관계부문 일군들, 각 도, 시, 군 산림경영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발표회에서는 새 품종의 오동나무를 심고 가꾸기 위한 사업에서 이룬 성과와 경험에 대해 말하였음.

· 토론자들은 오동나무 재배 과정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해 나무의 과학기술적 특성을 파악하고 재배기술을 완성해나감으로써 이 나무들이 전국 각지에 도입재배할 것을 지적하였음.

○ 오동나무 재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9)

· 김정일은 빨리 자라고 이용가치가 높은 새 품종의 오동나무를 많이 심을 데 대하여 여러 차례 가르쳐 주었음. 새 품종의 오동나무를 많이 심기 위해서는 오동나무모 생산을 앞세워야 함.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씨앗모, 뿌리모, 속성나무모 기르기 방법 중 실정에 맞는 나무모 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생산해야 함.

· 지력이 높고 습기가 알맞은 적지를 선정하여 오동나무를 심어야 하며 덧거름도 주고 김도 매주면서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해야 함.

· 오동나무심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해야 함.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가 사는 고향땅에 새 품종의 오동나무를 많이 심어 푸른 숲 우거지게 해야 함.

· 강원도 문천시는 몇 해 전부터 지력이 높고 관수조건이 유리한 삼화지구에 오동나무모밭을 꾸려 1만그루의 오동나무 뿌리모를 심고 가꾸었음. 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산기슭과 골짜기에 구덩이를 파고 수십kg씩 질 좋은 거름을 넣은 뒤 기술규정대로 오동나무로를 심어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산불방지사업

○ 산불방지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31)

· 우리나라는 해마다 봄, 가을철을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사업을 군중적인 사업을 진행해 왔음. 각급 정권기관들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불방지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알려주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 사상적으로 동원되도록 해야 함.

· 각급 정권기관들은 해당 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역 내 산림구역들의 산불방지대책 상황을 파악하고 산림보호림과 산불막이선들의 관리와 조성, 산림 주변의 전기설비 보수정비 등 산불방지 관련 사업계획을 세우고 공장, 기업소, 단체들에서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함.

· 산림경영기관들과 감독기관들을 비롯한 해당부문 일군들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입산질서와 산림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산불감시체계를 세우는 등 산불방지와 관련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함.

· 평양시 순안구역 인민위원회는 가을철 조건에 맞게 산불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음. 일군들은 각 단위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림보호규정과 관련된 해설선전사업을 진행하고 산림감독원들에게 산이용반을 배속시켜 일정한 면적의 산림을 맡아 관리하도록 하며 불감시초소들과의 신속한 신호체계를 통해 산불방지 대책을 강구해나가고 있음.

8. 농촌지원사업

□ 농촌지원은 사회주의농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임.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 농촌에 대한 국가적 보장사업은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하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토대임.

□ 농촌지원사업

○ '농촌지원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원칙'이라는 글을 게재(민주조선 10. 20)

· 우리 당은 농촌지원문제의 의의와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고 농촌지원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원칙적 문제로 내세웠으며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영도하여 왔음. 농촌지원은 사회주의농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임.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 농촌에 대한 국가적 보장사업은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하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토대임.

· 공업부문은 양수동력용 전력과 비료, 농업용 설비와 자재, 현대적인 각종 기계수단들을 농촌에 충분히 생산공급해야 하며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 인민경제 각 부문들과 많은 공장, 기업소들은 농업부문에 필요한 설비, 자재, 기계수단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함.

· 농촌지원은 일손이 부족한 영농기에 농촌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보장하여 농사일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임. 농번기인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를 할 때에는 농촌에 대한 노력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함.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농촌지원사업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여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때에 끝내고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할 것임.

○ 평양시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21)

· 평양시에서 180여대의 탈곡기를 생산하여 40여 개 농장들에 보내주었음. 평양시내 대동강축전지공장, 평양승강기공장은 한달 여 동안에 각각 열대씩 탈곡기를 제작

한데 이어 10월5일자동화기구공장, 새날전기공장 등에서도 많은 탈곡기를 생산하였음. 이 밖에 3월25일공장, 평양고무공장, 평양탄광기계공장, 평양무궤도전차공장 등에서는 각종 부속품과 유휴자재를 해당 공장, 기업소들에 보내주어 탈곡기 생산에 기여하였음.

○ 재정성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3)

· 재정성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올해 초부터 황해북도 황주군 장천리의 농사차비를 도와준데 이어 가을걷이 일손을 돕고 있음.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벼가을이 시작되자 트랙터 부속품을 비롯한 영농물자들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벼가을, 볏단운반, 탈곡과 낟알포장 작업 등을 돕고 있음.

○ 체신성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7)

· 체신성은 평안남도 대동군 원천협동농장을 노력적,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성은 가을걷이에 필요한 트랙터와 탈곡기 부속품, 중소농기구를 마련하여 협동농장에 보내주고 하루 평균 수백명의 지원자들과 여러 대의 운수기재들을 동원하여 볏단 운반과 낟알털기 일손을 돕고 있음.

○ 정권기관 일군들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28)

· 평안남도 숙천군 인민위원회는 군농업경영위원회와 연계하여 각 농장들의 실태에 맞게 필요한 일손을 보장하고 있음. 위원회는 가을걷이에 지원노력을 파견하여 일손을 돕고 있으며 위원회 부서별로 한 개 농장을 맡아 탈곡기 가동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속품을 지원하고 있음.

· 평안남도 증산군 인민위원회 일군들은 기관, 기업소의 종업원들과 함께 군내 협동농장들에서 볏단운반과 벼탈곡 일손을 돕고 있음.

○ 함경북도 인민위원회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3)

· 함경북도 인민위원회는 도내 농업생산단위들을 노력적,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위원회는 가을걷이 지원인력을 파견하여 볏단운반, 낟알털기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한데 이어 청진시는 트랙터 부속품을 비롯해 농기구 1,700여점을, 길주군과 무산군은 5,00여점의 농기구를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음.

○ 조선인민경비대 림명찬소속부대의 영농물자 수송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3)

· 조선인민경비대 림명찬소속부대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농장과 강동군 봉화협

동농장,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과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에 첫 영농물자 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음.

○ 농촌지원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4)

· 농촌지원사업에서 성, 중앙기관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음. 륙해운성은 3일, 질 좋은 거름과 중소농기구를 비롯한 영농물자를 사동구역 리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등에 실어 주었으며 농근맹 중앙위원회는 만경대구역 만경대농장에 거름과 영농물자를 지원한데 이어 거름생산을 거들면서 포전경제선동사업을 벌렸음.

· 수매량정성은 100여 톤의 거름과 영농물자들을 정성껏 마련하고 10대의 자동차에 실어 평안남도 증산군 신흥협동농장으로 나르고 있음.

· 각 도, 시, 군들에서도 3일 농촌지원사업을 시작하였음. 함경남도는 기관, 기업소, 가두인민반원들이 나서서 4만여 톤의 거름을 농장들에 실어 주었으며 황해북도도 4,000톤의 거름과 28종에 8,900여 점의 중소농기구를 마련하여 여러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음. 평안북도는 23만여 톤의 거름을 실어냈으며 강원도 원산시에서도 수백대의 화물자동차로 수천 톤의 거름을 주변 농장들에 실어 주었음.

○ 평양시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5)

·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는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농촌에 보낼 영농물자를 마련하고 1월 4일 오후, 화물자동차에 2만 1,500여 톤의 거름과 11종에 4만 5,500여 점의 중소농기구들을 실어 주변 농촌에 보내주었음.

· 이와 함께 시 주변 구역, 군내 기관, 가업소들과 가두인민반들도 새해농사차비에 필요한 영농물자들을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음.

○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6)

· 조선인민군 신정남소속부대 군인들은 군무의 여가시간에 질 좋은 거름과 영농물자를 마련하여 4일, 평양시 상원군 대동협동농장에 실어준 뒤 농업근로자들의 성과를 축하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었음.

· 육해운성은 3일 340여 톤의 거름과 10종에 550여 점의 중소농기구를 비롯한 영농물자를 사동구역 리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 지원하였으며 체신성도 비닐박막 등 영농자재를 대동군 원천협동농장에 실어다 주었음. 또한 농근맹중앙위원회는 100여 톤의 거름과 영농물자를, 수매량정성은 100톤의 거름과 영농자재를, 경공업성은 비닐박막을, 교육성은 많은 영농물자를 농촌에 보내주었음.

· 함경남도는 각급 기관, 기업소, 근로자, 가두인민반이 나서서 4만여 톤의 거름을 농장들에 실어냈으며 황해남도에서도 거름과 중소농기구를 농장들에 집중수송하였음. 평안북도도 23만여 톤의 거름을 실어냈으며 강원도 원산시도 수천 톤의 거름을 시 주변 농장들에 실어다 주었음.

○ 농촌지원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7)

·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이 6일, 평양시 력포구역 소삼정협동농장에서 첫 금요노동을 실시하였음. 임업성, 채취공업성, 농업성을 비롯한 여러 단위 정무원들은 거름실어내기에 앞장서 600여톤의 거름을 밭에 실어냈음.

· 평양시 기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각 구역들은 4일, 2만 1,500여톤의 거름과 11종에 4만 5,500여점의 중소농기구들을 주변 농촌들에 보내주었음.

○ 황해북도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8)

· 황해북도는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송배전부를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각 시, 군들에서 거름과 중소농기구 등 영농물자를 마련하여 3일 하루동안에만도 2만 3,740여톤의 거름과 302종에 20여만점의 중소농기구와 영농물자들을 협동벌에 지원하였음.

○ 농촌지원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9)

· 화학공업성은 짧은 기간에 성의껏 마련한 영농물자를 황해남도 안악군 엄곳협동농장에 실어 주었음. 성 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공동사설을 해설해주면서 작업열의를 고무해 주었음.

· 평안남도 덕천시내 기관, 기업소들은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동원해 도시거름을 협동농장 포전에 실어주고 있으며 농사에 필요한 설비, 물자, 자재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면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음.

○ 체신성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0)

· 체신성은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고 여러 종의 중소농기구를 자체로 마련하여 평안남도 대동군 원천협동농장에 보내주고 있음.

○ 자강도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1)

· 자강도 내 도급기관들은 일손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매일 많은 거름을 협동농장들에 실어내고 있으며 각 시, 군들에서도 주변 협동농장들에 질 좋은 거름을 보내

주고 있음.

○ 황해북도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3)

· 황해북도는 지난 3일, 도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 기업소들과 시, 군들에서 수십 종에 20여만 점의 중소농기구와 2만 3천여 톤의 질 좋은 거름을 각지 협동농장들에 보내주는 등 농촌지원에 앞장서고 있음.

○ 황해북도 개성시의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4)

· 황해북도 개성시 당위원회,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시급기관들은 덕암, 조강협동농장 등 주변 협동농장들에 거름을 실어 주었으며 량정사업소, 기계공장, 송도식료공장과 사내 대학교 직원, 학생들과 동주민들도 거름을 마련하여 농촌에 보내주었음.

○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5)

· 평안남도 도급기관들과 평성시내 공장, 기업소, 동, 인민반들은 수천 톤의 거름과 소농기구를 백송협동농장 등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음. 남포시, 안주시, 덕천시와 증산군, 숙천군을 비롯한 각 시, 군들도 거름과 소농기구를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음.

9. 기타 작물

□ 가을 수확철을 맞아 콩, 과수, 버섯, 채소, 유채, 해바라기 등의 작물들의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

□ 콩

○ 황해북도 린산군의 콩 가을걷이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

· 황해북도 린산군은 강냉이, 벼 가을걷이와 콩 가을걷이가 겹치는 조건에서 농장별, 작업반별 실정에 맞게 일손을 조직하여 일정계획대로 콩 가을걷이를 진행하고 있음. 기린, 진천, 동사농장들은 콩단 실어들이는 시간을 정확히 하고 실어들인 콩단을 잘 말리고 있음.

○ 콩 재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14)

· 평안남도 증산군 이압협동농장은 계획대로 콩가을걷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풍정, 적송협동농장 등에서도 콩가을을 마지막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음.

· 함경북도 화대군 토원협동농장은 콩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바로 세우고 일손이 부족한 조건에 맞게 인력을 조직하면서 소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가을걷이 실적을 올리고 있음.

· 황해남도 안악군 대추협동농장 콩전문분조는 모두 여성들로 조직되었으나 올해 콩 정당 수확고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콩가을걷이에서도 남다른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황해북도 린산군 대풍농장의 콩 탈곡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31)

· 황해북도 린산군 대풍농장은 강냉이, 콩 탈곡이 겹치는 조건에서 콩 탈곡을 적기에 끝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농장은 탈곡기를 정비하고 기술규정대로 기계를 가동하여 일정계획대로 콩 탈곡을 진행하고 있음.

□ 과 수

○ 강원도 통천군 미평협동농장의 과수 재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1)

· 강원도 통천군 미평협동농장은 해마다 과수원과 농장 집집마다 감나무를 비롯한 과수를 심어 가꾸고 있음. 올해 농장은 정원과수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렸고 그 가운데 제8작업반 농장원 세대들은 2톤 이상의 감을 수확하는 등 과일 수확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

○ 고산과수농장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29)

· 고산과수농장은 도태기에 이른 천여 정보의 과일나무를 그루바꿈할 나무종자를 각지에서 구해 과수원의 75%를 환원복구하는 성과를 거둔 이후 사과나무밭은 정보당 10톤씩, 복숭아나무밭은 정보당 60톤 이상씩 거름량을 정해 매해마다 정량의 거름을 시비하고 있음. 이로써 농장은 70여정보의 나무모 생산기지를 갖추고 해마다 수만그루의 키낮은 사과나무모를 생산하고 있으며 소석회를 해마다 자체생산하여 과수 비배관리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양 잠

○ 자강도 농촌경리위원회 잠업관리국의 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11)

· 자강도 농촌경리위원회 잠업관리국 산하 장강군, 고풍군을 비롯한 여러 사업소들은 고치생산용 가설막을 지방에 흔한 자재를 이용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면서도 누에고치 생산량을 늘렸음. 관리국은 다음해부터 모든 단위들에서 이 방법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 관리국은 누에고치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독약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해 소석회 확보 등 물질적 준비를 해놓고 있음. 또한 아래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전습회, 경험발표회 등을 실시하여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고 있음.

□ 양 어

○ 평양시 선내청년양어사업소의 물고기먹이문제 해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17)

· 평양시 선내청년양어사업소는 부족한 물고기먹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어사업소 주변에서 먹이원천을 탐구동원하여 미생물먹이 원천을 찾아냈음. 사업소는 기

본건물과 먹이가공실을 현대적으로 건설한데 이어 양어못을 만들고 미생물을 못마다 흘러들게 수천m의 물길을 만들었음. 미생물먹이를 이용함에 따라 원가가 들지 않고 물고기가 빨리 자라면서도 병에 걸리지 않아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음.

○ 황해남도 청단군 갈산협동농장의 양어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16)

· 황해남도 청단군 갈산협동농장은 1정보가 넘는 농장양어장, 서식골짜기에 위치한 2.5정보의 양어장과 작업반마다 조성된 양어장이 10여 개나 됨. 농장은 모든 양어장을 물원천이 풍부한 자리에 선정하고 위쪽에 비육분조를 비롯한 축산시설을 배치하여 가축배설물로 물고기먹이를 해결하고 있음.

○ 자강도 시중군의 양어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18)

· 자강도 시중군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지대의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양어장려정책에 따라 양어장 확장공사를 벌려 수십개의 양어못과 먹이가공실, 관리공들의 살림집을 갖춘 현대적인 양어장을 조성하였음.

· 이와 함께 물고기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물고기 생산을 늘려 올해 들어 잉어, 붕어를 비롯한 수십 톤의 물고기를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였음.

□ 버섯

○ 평양시 중구역 버섯공장의 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5)

· 평양시 중구역 버섯공장은 시내 중심에 위치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사철 버섯을 생산하고 있음. 공장은 종균생산, 기질발효, 배양, 재배 등 생산 전 공정에서 과학기술적 요건을 엄수하여 버섯생산을 실패없이 진행하고 있음. 또한 시내중심에 있어서 원료 확보 및 운반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시 주변에 흔한 밀, 보리짚을 이용하여 버섯을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음.

□ 기름작물(유채, 해바라기)

○ 황해북도 수안군 룡현협동농장의 먹는 기름 생산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16)

· 황해북도 수안군 룡현협동농장은 먹는 기름을 자체로 생산하여 농장원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농장은 해마다 해바라기농사를 짓고 그 재배면적을 늘려왔으며 기름짜는 기계를 기름실수율이 높은 것으로 개조하여 많은 기름을 생산하고 있음. 이 밖

에 들깨와 참깨를 심어 기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가축 먹이로 이용하고 있음.

○ 기름작물 재배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2)

· 량강도 김정숙군은 키낮은 해바라기종자를 넓은 면적에 심어 가꾸고 있으며 10여 개 협동농장들에 먹는기름 짜는 기계를 갖추어 놓았음.

· 황해남도 강령군은 유채 재배를 장려하여 몇해 사이에 유채 재배면적을 10여 배로 늘렸음. 또한 농장마다 유채기름 짜는 기계를 갖추어 한해에 10톤 이상의 유치기름을 생산하는 협동농장들이 부쩍 늘어났음.

· 황해남도 옹진군은 분조마다 1정보씩 유채를 심기로 하고 지난해 가을에 이미 수백정보의 논밭에 유채씨를 뿌리는 한편 좋은 품종의 봄유채를 심기 위해 거름 시비 등 씨붙임준비를 하고 있음.

· 자강도 송원군 신양협동농장은 해바라기를 대대적으로 재배하는 과정에서 생산량이 일정한 수준에 그치자 키낮은 해바라기를 빈땅은 물론 채소밭 사이그루로 심어 재배함으로써 먹는기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음.

○ 황해북도 수안군 룡현협동농장의 기름작물 재배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5)

· 황해북도 수안군 룡현협동농장은 먹는 기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키낮은 해바라기를 밀, 보리 뒤그루로 재배하기 시작하여 해마다 10여 정보의 면적에서 키낮은 해바라기를 재배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기름짜는 기계를 현대적으로 개조, 제작함으로써 해바라기 기름실수율을 높였음. 해마다 농장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먹는 기름을 세대마다 수십㎏씩 공급하여 농장원들의 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음.

○ 기름작물 재배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5)

· 황해남도 옹진군은 유채농사 첫해, 수확고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유채농사에 대한 기술지도를 다양하게 조직하고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는 한편 논벼농사와 같이 적지 선정과 씨붙임,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였음.

· 이로써 옹진군은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분조마다 0.5~1정보씩 유채농사를 하고 있으며 수확성이 높고 기름함량이 많은 유채농사를 지어 먹는 기름문제 해결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

· 함경북도 무산군 문암협동농장은 해바라기, 기름아마, 콩 등 기름작물 재배적지를 선정하고 작업반, 분조들에서 지속적으로 기름작물농사를 벌려 해마다 정보당 소출을 높이도록 하였음. 농장은 작업반마다 기름짜는 기계를 제작, 설치하고 실수율을 높이는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음.

□ 채 소

○ 평안남도 평성시 덕산협동농장의 가을채소 재배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20)

· 평안남도 평성시 덕산협동농장은 채소영양단지모를 길러 제철에 옮겨 심은데 맞게 김매기와 덧거름주기 등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황해북도 사리원시 구룡협동농장의 가을채소 비배관리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23)

· 황해북도 사리원시 구룡협동농장은 품종별 채소 비배관리 문제들을 농장원들에게 알려준데 이어 질 좋은 거름을 내고 김을 매는 등 가을채소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 있음.

□ 약초재배

○ 자강도 강계시의 약초 채취 및 재배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26)

· 자강도 강계시 인민위원회 보건국과 시고려약생산관리국은 약초재배월간사업계획을 세워 약초를 채취하고 캐낸 약초들을 제때에 해당 단위들에 실어보내는 동시에 약초밭을 새로 조성하고 더 많은 약초, 약나무를 심는데 힘을 쏟고 있음.

○ 보건성 최병호 국장의 '나라의 약초자원을 늘리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를 게재(민주조선 10. 28)

· 김정일의 영도 하에 우리나라는 약초자원을 더 많이 조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산과 들을 약초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큰 진전을 이룩하였음. 약초관리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과 단위는 약초자원을 늘리기 위한 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함.

· 약초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조국애와 향토애를 지니는 것임.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근로자들에게 조국의 한포기 약초와 한그루 약나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주의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

을 강화하여 모두가 약초자원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함.

· 약초자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지면적이 제한되고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조성지를 적극 찾아내여 약초자원조성사업을 벌려야 함.

· 나라의 약초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산에 있는 약초자원을 보호하는 것임. 약초관리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과 단위들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약초들을 시기별로 계획적으로 채취하는 것과 함께 약초 한 뿌리를 캐면 두세 뿌리를 심는 원칙에서 약초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규율을 세워야 함.

· 봄, 가을은 군중적으로 약초의 재배와 채취를 진행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임. 도, 시, 군들은 이 기간에 단계별 목표와 계획을 바로 세우고 더 많은 약초를 심고 채취하도록 해야 함.

○ 함경북도 고려약생산관리국의 약초재배 및 채취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2)

· 함경북도 고려약생산관리국은 약초자원 조성과 보호증식, 채취 계획을 세우고 당면한 약초심기와 채취에 군중을 동원하고 있음. 공장, 기업소, 가두인민반이 동원되어 여러 가지 약초채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부 시, 군들에서는 약초산지 조성과 약초심기를 제때에 끝낸데 이어 약초채취계획을 초과달성하였음.

10. 기타 보도 동향

□ 농업의 화학화 사업에 따라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비료생산과 농약개발에 힘쓰고 있음. 특히 식물성농약은 병충해 방지를 위한 농약성분과 함께 농작물을 빨리 자라게 하는 비료성분도 함유되어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함.

□ 비료생산

○ 함경남도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1)

· 함경남도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다음해 농업부문에 보내줄 비료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질안탑과 물전해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설비를 집중보수한데 이어 비료 생산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음.

○ 황해북도 은파군 초구협동농장의 흙보산비료 생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19)

· 황해북도 은파군 초구협동농장은 흙보산비료 생산조를 구성하고 날씨와 노력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도입하는 동시에 지방에 흔한 저열탄 등 흙보산비료 원료 보장에도 힘을 쏟고 있음. 작업반들은 생산한 흙보산비료를 비닐자루에 넣고 봉인하여 비료창고에 넣어 보관하고 있음.

○ 황해북도 토산군 봉불협동농장의 흙보산비료 생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1)

· 황해북도 토산군 봉불협동농장은 작업반마다 흙보산비료 생산기지를 건설하였음. 온돌을 놓아 건설한 흙보산비료 생산기지는 온실처럼 비닐박막을 씌워 겨울철에도 적정온도를 보장할 수 있음. 농장은 봄, 여름, 가을철에도 흙보산비료 생산을 다그쳐 앞그루감자밭에 밑거름, 덧거름으로 정보당 2톤 이상씩 흙보산비료를 시비하였음.

○ 강원도 이천군의 소석회 생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21)

· 강원도 이천군은 다음해농사차비를 갖추는 한편 토지개량에 사용할 소석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각 협동농장들은 로관리를 잘하고 열손실을 줄임으로써 매일 소석회 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하고 공정별 작업을 기술규정대로 진행하여 소석회의 질을 높이고 있음.

○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흙보산비료 생산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16)

·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다음해 농사에 사용할 흙보산비료 생산을 다그치고 있음. 모든 협동농장들이 작업반마다 흙보산비료 생산시설을 갖춘데 이어 원료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기술규정대로 흙보산비료 생산 실적을 올리고 있음.

○ 흙보산비료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29)

· 황해북도 서흥군 화곡협동농장은 논밭 정보당 10톤 이상의 흙보산비료를 시비하기 위해 원료원천을 탐구동원하여 흙보산비료 생산을 다그치고 있음.

· 황해남도 태탄군 류정협동농장은 흙보산비료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료들을 계획적으로 확보하고 탈곡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흙보산비료 생산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각 작업반들은 온습도 보장, 원료배합 등을 기술규정대로 하여 비료 생산기일과 질을 보장하고 있음.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6)

·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겨울철 조건에 맞게 설비관리에 힘을 쏟으며 대형설비 수리와 점검보수를 계획적으로 하고 기술관리를 통해 비료 생산을 늘리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농약 개발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9)

·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유기화학연구소는 살충효과가 큰 새로운 농약을 연구개발하였음. 새 농약은 농약을 수면막제와 결합시켜 해충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으며 농약을 논물에 일정 간격마다 주기 때문에 일손을 절약할 수 있음. 또한 정보당 사용량이 0.5㎏으로 기존의 분무용살충제에 비해 적기 때문에 경제적임.

○ 농업과학원의 연구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1)

· 농업과학원 농업화학화연구소는 비료와 농약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안남도 순천지구의 어느 한 공장에 농약과 미생물비료 생산공정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음. 과학자들은 현지 일군들, 기술자, 노동자들과 연계하여 수공업으로 생산하던 린세균비료종균 생산공정을 몇 달안에 완공하고 지난해 12월 말에 시운전을 실시한데

이어 첫 제품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농업과학원 농업정보기술연구센터는 농장종합관리지원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올해 전국의 모든 농장들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준비를 진행하였음. 이와 함께 토지자원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알곡 생산량 예측기술개발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 농업과학원 밭작물연구소의 종자연구사업, 황해북도분원의 서해안지대 이모작 연구성과, 농업기계화연구소의 앞그루밀보리파종체계 및 토양관리기계화체계 연구, 식물보호학연구소의 감자원종 병해충구제방법 연구, 수의학연구소의 가축 질병치료예방약 연구 등 각 연구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 중임.

□ 농업과학기술

○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의 농업과학기술 성과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4)

· 황해북도 황주군에 파견된 '2월17일 과학자, 기술자돌격대'가 선진농업과학기술 성과를 도입일반화하고 있음. 돌격대원들은 합리적인 논벼 재배방법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적지를 바로 정하고 이모작농사를 벌리면서 밭작물 사이그루 재배와 겹재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였음.

· 황해북도 미루지대에 파견된 '2월17일 과학자, 기술자돌격대'는 미루지대에 적합한 종자선택, 앞그루감자농사와 고구마농사, 이모작농사, 녹비 및 먹이작물 재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음.

○ 과학원 함흥분원 유기화학연구소의 농약 연구개발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20)

· 과학원 함흥분원 유기화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농약이 호응을 얻고 있음. 연구소는 논벼농사에 쓰이는 살충제의 사용량을 종전의 1/3로 줄일 수 있는 살충제를 개발한데 이어 모를 낸 뒤 5~7일경에 한번만 쳐도 김을 없앨 수 있는 살초제를 연구완성하여 농업부문의 경영자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음.

○ 농업과학원 평안남도분원의 과학농사 확대도입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21)

· 농업과학원 평안남도분원은 올해 과학농사 확대도입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함께 경험, 교훈을 분석총화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협동농장 기술지도일군들과 작업반장, 작업반 기술원들이 조화롭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재래식 농법을 고집하는 보수적인 행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원산농업대학의 과학농사 확대도입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23)

· 함경남도 원산농업대학은 연구성과 도입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파견사업을 대학적인 사업으로 조직화하고 있음. 대학일군들은 연구도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역량을 파견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지기술강습을 실정에 맞게 진행한데 이어 실무적인 대책을 세워 문제점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주었음.

· 이로써 논벼재배 전문가프로그램 도입과 곡선살식 물논써레 제작완성, 논벼직파재배방법 실현 등 영농공정 조직방법과 농기계들, 영농방법들을 비롯한 연구성과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음.

○ 과학적인 비료시비방법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26)

·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은 지역별, 포전별 토양분석을 토대로 품종별 특성, 지역별 기후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농공정과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비료시비량을 정함으로써 비료시비의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노력공수를 절약할 수 있게 하였음. 이 포전별 비료시비 최량화는 올해 7월에 진행된 제3차 전국대학과학연구성과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사업 경험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9)

·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은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농장은 몇해 전 한해농사를 마무리하면서 분조별 수확고에서 격차를 확인하고 농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 힘을 쏟았음. 농장은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통해 기술지식보급사업을 심화하면서 농사에서 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확립하였음.

· 이와 함께 농장은 기사장, 작업반 기술원, 물관리공을 비롯한 분조원들이 정해진 품종별 생육조사지점에서 해야 할 바를 생각하여 분조의 생육조사지점자료를 만듦. 분조의 생육조사지점자료는 작업반을 거쳐 농장에 종합되며 작업반 기술원들과 농장 기술일군들은 그에 기초해 영농계획, 지도계획을 세우게 됨. 이와 같이 대중이 참여하는 사업은 영농실천에서 성과를 내고 있음.

○ 농업 과학연구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14)

· 농업과학원 황해북도분원은 지대적 조건에서 우월성이 입증된 두둑식 작물재배방법을 많은 면적에 도입하여 알곡 생산량을 늘리는데 군적인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음. 과학자들은 미루벌에 알맞는 작물과 품종, 그에 대한 영농방법을 완성하기 위해 본보기포전을 통해 새기술 도입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과학자들은 농장들에 시험분조를 조직하여 해당 단위의 실정에 맞는 영농기술 및 공정을 확립하도록 하여 논벼이삭비료주기적기판정방법, 콩종자처리제의 효과적 검증, 밭벼재배 및 김잡이기술 등 영농공정을 과학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10여 건의 새 기술도입사업을 완성하고 방식상학, 기술전습, 강습 등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도 활발히 벌리고 있음.

· 올해 농업과학원 일군들은 농업성, 교육성, 재정성 일군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과학농사도입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음. 농업과학원 산하 각 도 분원,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농업대학 교원학자들과 힘을 합쳐 작물구조개선, 이모작농사 적지 선정, 새로운 재배기술 도입, 저수확지 개량, 품종 정리와 배치개선, 영농기술 개선 등 연 380여건의 과학기술성과를 올해농사에 받아들였음.

·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 농업과학센터는 능률높은 제자리보습을 연구제작하였음. 이 제자리보습으로 논갈이를 하면 써레작업량이 적으며 토양조건에 따라 마른논써레를 도입할 수 있음.

· 화학비료와 연유가 부족한 조건에서 지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땅다루기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음. 시험자료에 의하면 논토양의 갈이층 15～20㎝ 속층에 비하여 0～5㎝ 겉층에서 부실질과 풀림성 질소, 린, 칼륨의 함량이 많았고 미생물 총수는 12배, 효소활성은 1.7～3.2배나 되었음. 이러한 겉층의 지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최소땅다루기방법은 가을부터 겨울동안 깊은 물잡이한 논이나 이른 봄부터 모내기시기까지 깊은 물대기한 논에 적용할 수 있음.

○ 함경남도 함주군 조양협동농장의 과학적인 영농방법 도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29)

· 함경남도 함주군 조양협동농장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해마다 영농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농장은 수확율이 저조하자 지방에 흔한 원료로 식물성농약을 만들어 병해충 예방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논벼농사에서 가치 있는 영농방법을 연구하여 알곡생산에 기여하였음.

· 또한 농장은 시험포전에서 진행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다음해 농사계획을 세우는 한편 새로운 영농방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음. 이와 함께 작업반, 분조마다 토양조건에 적합한 종자확보체계를 세우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과학기술적으로 농사를 진행하고 있음.

○ 평안북도 철산군 선주협동농장의 농업과학기술지식 보급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30)

· 평안북도 철산군 선주협동농장은 다음해 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작업반마다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이용하여 영농기술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과학원의 과학연구사업 추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4)

· 농업과학원은 올해에도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 따르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임. 생산성이 높은 논벼종자 연구도입사업과 다수확 강냉이종자 보급사업, 전국적인 과학농사도입사업이 추진 중이며 첨단과학기술성과에 기초한 농약을 비롯해 첨단기술제품 생산도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과학연구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4)

· 국가과학원은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있음. 특히 생물분원과 미생물학연구소는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이모작농사방침, 콩농사방침을 관철하는데 따르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올해 농업전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과학성과를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국가과학원 생물분원은 식물성 살충제와 식물성 농약을 전국의 협동농장들에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식물성 살충제와 식물성 농약의 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과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한 과학연구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평양기계대학 기계공학부에서 분리식 콩갈이기계, 평양기계대학 자동차공학부에서 조합곡면식 고속틀보습, 원산농업대학에서 곡선 살식 물논써레를 개발하였다고 보도

□ 기계화

○ 평안남도 안주트랙터부속품공장의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2)

· 평안남도 안주트랙터부속품공장은 농촌에 더 많은 트랙터 부속품을 보내주기 위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서 설비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 농기계 및 부속품 생산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6)

· 최근 평양시는 시내 공장, 기업소들과 시주변 구역, 군 농기계작업소들과 농기구공장들에서 만든 180여대의 이동식탈곡기를 주변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음.

· 황해남도 강령군은 능률 높고 이동식인 ‘황남 1호’ 탈곡기를 공급하기 위해 자재와

부속품을 마련하고 군농기구공장에서 생산을 맡아 수십대의 탈곡기를 제작, 보급하였음.

· 2월 26일공장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필요한 농기계 부속품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함경남도 원산농업대학의 농기계 제작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6)

· 함경남도 원산농업대학은 이모작농사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논앞그루밀보리파종기를 제작하여 일손을 절약하고 씨붙임적기를 보장하면서도 씨붙임작업의 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와 함께 대학에서 제작한 신형 고속틀보습이 현지 일군들과 농장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음. 이 고속틀보습은 토지가 정리되고 마력수가 높은 트랙터가 농촌에 공급된 현실에 맞게 땅다루기 공정에 드는 일손을 줄이고 연료 및 동력소비를 낮추며 작업능률을 종전보다 높이게 되었음.

○ 평양고무공장의 영농자재 생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6)

· 평양고무공장은 피대를 비롯한 고무제품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기 위해 모든 역량을 영농자재 생산에 집중하고 있음.

○ 함경남도 원산농업대학의 농기계 연구완성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21)

점파식 논벼수직파 및 건식파기

· 함경남도 원산농업대학은 성능이 좋은 점파식 논벼수직파 및 건직파기를 만들었음. 기존 논벼수직파의 점파장치를 보완하여 수직원반식 씨앗분리장치와 씨앗을 내보내는 장치 안에 띠를 설치하여 씨앗이 정확하게 뿌려질 수 있게 되어 있음.

· 작업시 씨앗의 손상률이 매우 적고 많은 벼종자를 절약하면서도 발아율을 90~95%이상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일손을 절약할 수 있어 도입단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물논후치 및 심층시비기

· 함경남도 원산농업대학은 논김을 효과적으로 잡으면서 비료를 깊은 층에 시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물논후치 및 심층시비기를 연구완성하였음. 강원도 내 협동농장들이 이 기계를 도입하여 최근 몇해 동안에 손김매기 일손을 절약하면서도 종전의 살통식 논김매는 기계를 이용할 때보다 논벼소출을 8%이상 높였다고 함.

○ 새로 개발된 농기계를 소개(로동신문 11. 29)

분리식 콩갈이기계

· 평양기계대학 기계공학부에서 개발한 분리식 콩갈이기계는 콩분쇄와 콩물 분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생산공정을 단축하고 작업면적을 줄이며 제작조건이 단순하여 도입단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음.

조합곡면식 고속틀보습

· 평양기계대학 자동차공학부에서 개발한 조합곡면식 고속틀보습은 위치조절식 보습틀과 조합곡면식 보습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날식 틀보습에 비해 연료소비가 35.7% 낮을 뿐 아니라 갈이작업능력이 뛰어남.

곡선살식 물논써레

· 원산농업대학에서 개발한 곡선살식 물논써레는 살을 틀에 고정시키지 않아 전진방향에 대한 살의 설치각이 45°로 되면서 토양의 분쇄능력과 수평고루기률이 높아지고 후진할 때에는 살의 설치각이 90°로 변화되면서 토양밀기능력이 높아짐.

○ 함경북도 청진트랙터부속품공장의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11)

· 함경북도 청진트랙터부속품공장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이용하고 설비를 능률적으로 개조하는데 힘을 쏟고 있음. 이와 함께 올해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도입하여 부속품의 질을 더욱 높이고 있음.

○ 황해북도 신계군 농기계작업소의 트랙터 수리정비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18)

· 황해북도 신계군 농기계작업소는 겨울철 트랙터수리를 다그치고 있음. 작업소는 군적으로 수리해야할 트랙터를 조사한데 이어 기계별, 날짜별 수리계획을 세우고 트랙터 대당 수리기일을 종전보다 단축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음.

○ 황해북도 황주군 농기계작업소의 생산, 수리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4)

· 황해북도 황주군 농기계작업소는 농기계 생산과 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가공작업반은 내부예비를 동원해 각종 부속품을 생산보장하고 있으며 트랙터수리작업반은 2월 중순까지 군내 모든 트랙터를 수리할 목표를 세우고 수리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고 있음. 농기계작업반은 수동식 모내는 기계, 남농1호벼탈곡기, 두둑식 갈이보습 등 농기계 생산을 기한 전에 끝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기계화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5)

· 농업성 농기계공업관리국은 지난해의 1.3배에 달하는 농기계들과 80여종에 수십만개의 농기계부속품을 농촌에 공급할 목표를 세우고 트랙터부속품공장과 연결농기계공장들에 생산과제를 주었음.

· 각지 트랙터부속품공장들과 연결농기계공장들은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기술을 혁신하여 소재를 자체적으로 생산보장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공장의 개건현대화사업을 다그치는 한편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함흥연결농기계공장은 간편하고 작업능률도 높은 새로운 농기계를 생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모내는 기계와 벼, 밀, 보리수확기를 창안제작하고 있으며 생산공정의 개건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력 공급

○ 자강도 강계시 남천군민청년발전소 조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9)

· 자강도 강계시 남천군민청년발전소 조업식이 8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조업보고에서 강계시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오정심위원장은 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청년돌격대원들이 물길굴과 언제, 수문설치 등 방대한 공사를 다그쳐 끝냈으며 시내 공장, 기업소 근로자들이 건설을 적극 지원하였다고 지적하고 남천군민청년발전소 종업원들은 언제와 수문을 비롯한 구조물들과 발전설비들을 책임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전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 발전소가 건설됨으로써 야학협동농장의 밭관개에 필요한 동력문제를 해결하고 농장 유치원, 탁아소를 비롯한 공공건물들의 난방용 전력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 자강도송배전부의 탈곡용전력 보장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18)

· 자강도송배전부는 각 협동농장들의 탈곡용 전력수요량을 파악하는 한편 시, 군농기계작업소와 농장 기계화작업반에서 탈곡기 정상가동에 필요한 부속품을 자체 생산하도록 전력보장 계획도 세우고 있음.

○ 전기석탄공업성의 농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4)

· 전기석탄공업성은 수력, 화력발전소 전력생산을 늘려 모내기 때 농촌에 양수용 전

기를 보장한 경험을 살려 농촌에 탈곡용 전기를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웠음. 성은 해당 기관들에서 송전선, 변전소를 점검하고 송배전 설비의 보수정비에 힘을 쏟고 있으며 전력소비감독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거름 생산

○ 평안남도 은산군 수원농장의 생물활성 퇴비 생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9)

· 평안남도 은산군 수원농장은 10여년 전부터 지력을 높이기 위해 생물활성퇴비를 생산하여 경작지를 기름지게 관리하고 있음. 농장은 작업반 가축우리 옆에 위치한 퇴적장에서 곡식짚, 풀을 쌓고 생물활성균을 뿌려 썩힘으로써 질 좋은 생물활성퇴비를 생산하고 있음. 또한 생물활성퇴비를 흙보산비료 생산원료로 이용하고 있음.

· 작업반들은 거름 시비 전에 흙보산비료를 고랑에 뿌리고 정보당 30톤씩 생물활성퇴비를 깔아 이랑을 갈아 엎는 방법으로 토지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면서 강냉이를 심어 가꾸고 있으며 2~3회에 걸쳐 생물활성퇴비를 묻어주고 있음.

○ 강원도 세포군 내평협동농장의 부식토 생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8)

· 강원도 세포군 내평협동농장은 다음해농사에 사용할 부식토 생산에 힘을 쏟고 있음. 농장은 분조, 농장원 세대별로 부식토 생산과제를 주고 마른 풀, 나뭇잎 등을 가축우리에 밟혀내거나 진거름에 섞어 질 좋은 부식토를 생산해내고 있음.

○ 평안남도 성천군의 거름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7)

· 평안남도 성천군은 질 좋은 거름을 시비하여 지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상하협동농장은 작업반과 농장원 세대에 만들어 놓은 퇴적장에서 거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읍협동농장은 운반수단을 이용해 거름을 포전에 실어내고 있음.

□ 메탄가스화

○ 평안북도 농촌살림집 메탄가스화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11)

· 평안북도 구성시 남산협동농장 종합축산분장마을과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제1작업반 마을, 박천군 맹중협동농장 제6작업반, 의주군 홍남협동농장 과수작업반에서는 농촌문화주택에 메탄가스화를 실현하여 땔감걱정 없이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

○ 평안북도 농촌들의 메탄가스화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18)

· 평안북도는 농촌들에서 메탄가스화 실현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구성시 남산협동농장 종합축산분장 마을은 메탄가스화를 이룬 지금, 탱크 내부온도를 보장하여 겨울철에도 질 좋은 메탄가스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은 제1작업반마을의 50여 세대 살림집들을 메탄가스화하였고 그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중인 수십 세대의 살림집들에 메탄가스화를 추진하고 있음.

· 박천군 맹중협동농장 제6작업반과 정주시 신천농장 제5작업반, 의주군 홍남협동농장 과수작업반에서는 살림집들의 메탄가스화를 실현하였고 그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사철 메탄가스로 땔감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평안북도의 농촌살림집 메탄가스화사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22)

· 정주시 신천농장은 제5작업반의 메탄가스화를 모든 작업반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농장은 메탄가스화사업에 필요한 자재 보장에 역량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35세대의 농촌문화주택에 메탄가스화를 실현함으로써 땔감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제1작업반은 50여 세대의 살림집에 메탄가스화를 실현한데 이어 메탄가스생산이 가장 어려운 1, 2월에 메탄가스발생탱크의 온도를 보장하고 가축 배설물을 제때에 보충하여 메탄가스를 차질없이 생산하고 있음.

· 의주군 홍남협동농장 과수작업반은 겨울철 메탄가스 생산시설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작업반은 탱크에 여러 가지 배설물을 제때에 보충하고 태양열이 식지 않도록 온실온도를 유지함으로써 탱크안의 온도를 보장하고 있음.

○ 평안북도 박천군 맹중협동농장의 메탄가스화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27)

· 평안북도 박천군 맹중협동농장 제6작업반은 메탄가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스 생산시설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살림집마다 건설된 메탄가스 발생탱크는 가축 배설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들어 메탄가스가 생산되기 때문에 위생적이며 가스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발효액은 퇴비장으로 흘러들어 질 좋은 거름이 되고 있음.

□ 기초식품

○ 함경북도 라선기초식품공장 조업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7, 민주조선 10. 5)

· 함경북도 라선시는 1만 5,000여㎡의 부지에 원료투입에서부터 제품 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이 최신설비도 장비된 기초식품공장을 새로 건설하였음. 이로써 시내 주민들은 간장, 된장, 먹는 기름, 정제소금을 비롯한 기초식품과 식료가공품을 원만히 공급받게 되었음.

· 라선기초식품공장 조업식이 4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함경북도 당위원회 홍석형 책임비서는 조업보고를 통해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공장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하는데 지혜와 힘을 합쳐 짧은 기간에 공사를 끝냈다고 말하고 공장관리 운영을 잘해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 각 시, 군들의 기초식품 생산공정 개건현대화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11)

· 지방공업국의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시, 군 장공장, 기초식품공장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졌거나 개건현대화되었음.

· 함경북도 라선기초식품공장이 새로 조업한데 이어 평안남도 개천기초식품공장, 황해남도 청단기초식품공장, 함경북도 회령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많은 기초식품공장들의 개건현대화가 실현되어 간장, 된장 등 기초식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 자강도 강계기초식품공장의 생산공정 현대화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17)

· 자강도 강계기초식품공장은 건간장 생산설비를 현대화하여 생산능력을 종전보다 4배 이상으로 높인데 이어 된장생산공정에 공기자동변을 설치하고 누룩생산공정의 온도보장조건을 개선하여 활성이 1.5배되는 균을 배양해냄으로써 된장의 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렸음.

· 또한 먹는기름 정제공정의 정제기마다 토리형려과기를 도입하여 기름생산능력과 질을 높이는 한편 기초식품의 위생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장공정을 새로 조성함으로써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된장을 가정마다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평안남도 문덕장공장의 기술개건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20)

· 평안남도 문덕장공장은 증자가마와 10톤 규모의 발효탱크 5개를 개건한데 이어 단백질추출법에 의한 간장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종전에 비하여 단간장 생산을 2배로 늘릴 수 있게 되었음.

○ 함경북도 라선기초식품공장의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12)

· 함경북도 라선기초식품공장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음. 현대적으로 건설된 공장은 설비 및 기술 관리를 잘하여 기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으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준수하여 된장, 간장의 질을 개선하였음.

□ 식품가공

○ 평양시 룡성구역 룡성고기가공공장에 현지지도사적비 건립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8)

· 평양시 룡성구역 룡성고기가공공장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현지지도사적비 준공식이 7일 진행되었음. 준공식에서 룡성고기가공공장 강문국 초급당비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은정 속에 공장이 여러 가지 고기가공품들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장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고기가공제품의 가지수를 늘리며 가공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땔감문제

○ 평안북도 대관군의 땔감문제 해결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1. 20)

· 평안북도 대관군은 흔한 지방원료와 석탄을 4:5의 비율로 섞어 숙성시키고 구멍탄과 같이 빚어 땔감으로 이용하고 있음. 은정마을은 이 땔감을 도입하여 세대당 하루에 3～4개를 소비하고 있으며 세대당 한해에 1～1.5톤의 석탄을 절약하는 효과를 보고 있음.

□ 조국광복 60주년을 맞아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평양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었음.

□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 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7)

·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 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개막되었음. 전시회장에는 무력기관,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을 비롯하여 85개 단위들과 외국의 벗들, 해외동포들이 내놓은 2만여상의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전시되었음.

○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 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폐막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14, 민주조선 10. 15)

·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 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폐막식이 13일,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었음. 무력기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사무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전기석탄공업성을 비롯한 전시회 참가단위들은 축전사상 전례없는 2만여 상의 김일성화, 김정일화들과 갖가지 화초들을 특색있게 전시하였음.

· 전시회 기간 당과 군대, 국가의 간부들, 내각성원들,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 경축대표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을 비롯해 20여만 명의 인민군 장병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음.

□ 각지 영농동향 및 새해 농사차비

○ 황해북도의 영농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0. 5)

· 황해북도는 면적이 많은 강냉이 가을을 며칠 안으로 끝낼 목표를 세워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콩을 비롯한 다른 작물들도 가을하는대로 탈곡장에 실어들이고 있음.

· 황해북도 미루벌은 김정일의 현지지도 가르침에 따라 자연흐름식 물길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실시하게 됨. 대자연개조공사가 진행되면 미루벌의 농업생산구조가 달라져 강냉이농사보다 논벼농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전망임.

·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 미루등생산지도처는 미루등의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작물의 종자를 심으며 토지개량을 비롯해 전반적인 농촌경리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도하면서 영농물자와 자재 공급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고구마저장고를 건설하고 축산물 생산도 늘리면서 물거름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축산기지를 조성하고 있음.

○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의 영농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1)

·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는 미루벌에서 논벼재배면적을 늘리는 문제를 비롯해 이모작농사, 콩농사 등을 잘하기 위한 기술대책을 세우는 한편 기후풍토조건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 배치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 위원회는 흙보산비료를 포함한 유기질비료와 소석회를 내어 지력을 높이기 위해 작업반마다 흙보산비료 생산시설을 갖추어 유기질비료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이와 함께 자연흐름식 물길공사와 토지정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준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다음해농사차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5)

· 평안남도 안주시 트랙터부속품공장은 농사차비가 한창인 협동농장들에 트랙터 부속품을 차질없이 공급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공장은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각종 트랙터 부속품을 생산하는 한편 공구들을 개조하고 기술혁신안을 도입하는 등 앞선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음.

· 강원도 판교군은 2만톤 이상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할 목표를 세운데 이어 농산작업반마다 흙보산비료생산시설을 만들어놓고 이미 확보한 원료를 흙보산비료 생산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함경북도 어랑군 두남협동농장은 모판자재 준비계획을 단계별로 세워 바람막이바자와 나래, 박막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래엮기와 함께 삼태기, 삽, 물초롱 등 중소농기구도 준비하고 있음.

○ 자강도의 다음해 농사차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8)

· 자강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올해 시, 군별 알곡생산정형을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내년은 올해보다 논밭 정보당 1.3배 이상의 거름을 시비할 목표를 세웠음. 이에 따라 각 시, 군들은 부식토 생산원천이 풍부하면서 운반조건이 유리한 대상들에 힘을 집중하여 부식토 생산을 늘리고 있음.

○ 평안남도당위원회의 올해 사업 마무리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12)

· 평안남도당위원회는 올해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주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생산을 계획대로 완수하도록 하고 있음. 도당위원회는 올해 주공전선인 농업전선에 역점을 두고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벼탈곡을 끝내고 다음해농사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다음해 농사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13)

· 평안북도 운전군은 다음해 농사차비로 가마니 생산을 다그치고 있음. 군은 가마니 짜는 기계와 가마니 꾸미는 기계를 만든데 이어 작업반마다 가마니 생산조를 조직하고 협동농장, 작업반, 개인별 경쟁을 벌려 매일 수만 매의 가마니를 생산하고 있음.

· 함경남도 단천시 직절협동농장은 작업반별 흙보산비료 생산과제를 주고 질 좋은 흙보산비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다음해농사 차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15)

· 황해남도 태탄군은 짧은 기간에 수만 톤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얼어붙은 니탄을 캐내고 각종 원료를 고루 섞은 뒤 박막과 나래를 덮어 온도를 보장하면서 흙보산비료를 질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농장은 땅이 얼기 전에 모판자리 만들기를 진행하고 나래와 활창대를 비롯한 영농자재들도 충분히 마련하였음. 이와 함께 질 좋은 흙보산비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평안북도 선천군 농기계작업소는 여러 대의 콩파종기와 밀보리 씨뿌리는 기계, 남농1호 탈곡기를 성과적으로 제작한데 이어 최근 기름을 적게 들이면서 농사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농기계 제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평양시의 다음해 농사차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21)

· 평양시는 다음해에 재배할 품종을 선택하여 종자를 확보한데 이어 경작지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흙보산비료와 유기질비료, 진거름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와 함께 농기계 수리정비사업을 진행하고 물길공사와 양수장 건설사업을 벌려 물 보장대책도 마련하고 있음.

○ 농업성 농산국의 농사차비 지도사업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2. 28)

· 농업성 농산국은 각지 농촌들에서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다음해 봄철에 씨뿌리기 준비를 갖추도록 조직지도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농사차비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지도사업도 벌리고 있음.

○ 영농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3)

· 농업성 농산국은 알곡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음. 감자생산국은 다수확품종을 더 많이 심으며 병해충방지 대책을 미리 세우도록 하고 있음. 물길건설관리국은 미루벌물길공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아래에 내려간 성 일군들은 농사차비와 다수확품종의 종자 확보정형과 종자보관정형을 알아보는 한편 물보장 대책들도 미리 세우도록 도와주었음.

· 황해남도 재령군 읍협동농장은 흙깔이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농장은 흙깔이목표를 30%이상 달성하여 1,000여 톤에 달하는 흙을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새해농사차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4)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새해 첫 하루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배에 달하는 거름을 생산하여 논밭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황해북도, 평안북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거름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황해남도, 평안남도에서도 거름원천을 탐구동원하여 거름생산 실적을 올리고 있음. 량강도, 함경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도에서도 거름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은 계획대로 850여 톤의 질 좋은 거름을 논밭에 실어내는 등 거름 운반 일손을 다그치고 있음.

·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은 농장원들이 거름생산에 나선 가운데 거름원천을 탐구동원하고 거름 생산에서 기술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거름 생산 및 운반 실적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농사차비 동향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1. 8)

· 농사차비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가 경작지의 지력을 높이는 것임. 지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토질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음. 협동농장들은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력 높이기 계획을 세우고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시비해야 함. 농촌들은 유기질비료 원천을 탐구동원하고 거름효과가 큰 흙보산비료와 생물활성퇴비 등을 생산하는데 힘을 쏟아야 함.

· 평안북도 철산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각 농장별 기후풍토조건에 적합한 품종을 확정한데 이어 각 협동농장들이 해당 논벼종자를 확보하도록 하였음. 위원회는 종자를 기술규정대로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올해 심기로 한 품종의 생물학적 특성과 재배과정에서 지켜야할 기술적인 문제들을 알려주고 있음.

· 황해북도 연산군은 읍협동농장에서 적지 선정, 종자 확보, 콩밭 지력 높이기 등 콩농사 차비에 대한 시범을 창조하고 다른 협동농장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새해농사차비 동향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5)

· 황해북도 린산군 농업경영위원회는 지력을 높이기 위해 흙보산비료와 소석회 생산

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거름 실어내기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확보하였음.

· 황해남도 연안군 소정협동농장은 니탄 채취와 흙보산비료 생산을 다그쳐 첫날 700여 톤의 니탄을 캐내고 많은 거름을 생산하는 등 연일 거름 생산실적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이하여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대회가 10월 4일 당창건기념탑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중앙보고대회가 10월 9일에 평양에서 진행되는 등 각 지역에서 여러행사가 진행되었음.

□ 행사보도

○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대회 진행 소식을 보도(로동신문 10. 5, 민주조선 10. 6)

○ 당창건 60주년을 기념하여 사회주의건설의 각 부문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8, 민주조선 10. 8)

○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10, 민주조선 10. 10)

○ 평양시 강동군 당위원회 일군들의 기술실무학습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13)

○ 전국 농업부문 기술혁신경기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0. 26, 민주조선 10. 28)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50차 전원회의 진행소식을 보도(로동신문 11. 4)

○ 황해남도 은천군 덕양농장의 회고록학습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1. 18)

○ 김정일의 노작 '농업근로자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20주년 기념 연구토론회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13, 민주조선 12. 13)

○ 김정일의 고전적 노작 '농업근로자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20주년 기념보고회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14, 민주조선 12. 14)

○ 전국농촌청년작업반장들의 결의모임, 간석지개간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평안남도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15, 민주조선 12. 15)

○ 전국농업부문 26호 모범기대운전공 경험발표회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20, 민주조선 12. 20)

○ 김정일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14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2. 24, 민주조선 12. 24)

○ 평양시군중대회 개최소식을 보도(로동신문 1. 5, 민주조선 1. 5)

○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강원도군중대회 진행소식을 보도(로동신문 1. 6, 민주조선 1. 6)

○ 공동사설을 관철하기 위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궐기모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7, 민주조선 1. 7)

○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군중대회 개최소식을 보도(로동신문 1. 8, 민주조선 1. 7)

○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에 대해 보도(로동신문 1. 10, 민주조선 1. 10)

·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황해남도 재령군 김제원협동농장, 연안군 정촌협동농장, 량강도 대홍단군 신덕농장, 자강도 장강군 읍협동농장, 강원도 안변군 천삼협동농장, 함경북도 김책시 호통협동농장, 황해북도 개성시 덕암협동농장, 황해남도 신원군 계남목장,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오리공장, 함경남도 홍남비료연합기업소

○ 청년전위들의 궐기모임과 함경북도 군중대회, 여맹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소식을 보도(로동신문 1. 11, 민주조선 1. 11)

○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 개최소식을 보도(로동신문 1. 12, 민주조선 1. 12)

○ 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 진행 소식을 보도(로동신문 1. 15, 민주조선 1. 15)

· 국가과학원, 농업과학원,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평안남도 문덕군 립석협동농장, 자강도 장강군 장평협동농장, 자강도 강계시 홍주닭공장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5년 10월 중 남북교역액은 8,40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539만 달러에 비해 57.2% 증가하였음(전월 9,708만 달러 대비 10.3% 감소).

○ 반입은 3,512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3,066만 달러에 비해 14.5% 증가하였음(전월 2,880만 달러 대비 21.9%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52.6%, 농림수산물 23.9%, 철강·금속제품 7.4%, 광산물 7.2%, 전자·전기제품 3.5% 등임.

○ 반출은 5,194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2,473만 달러에 비해 110.0% 증가하였음(전월 6,827만 달러 대비 23.9% 감소).
-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41.3%, 기계류 12.7%, 섬유류 7.7%, 철강·금속제품 13.8%, 화학공업제품 7.6% 등임.

□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5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839만 달러로 전월 869만 달러 대비 3.5% 감소하고 10월 전체 반입액 3,512만 달러의 23.9%를 차지했음.

---

*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반입 농림수산물은 고사리·버섯 등 농산물이 178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5.1%), 로얄제리 등 축산물이 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 목제식탁용품 등 임산물이 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65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8.6%)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5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144만 달러로 전월 2,850만 달러 대비 24.8%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기타 농산가공품 등 농산물이 2,10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40.5%), 분유·기타 낙농품 등 축산물이 2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4%), 건축용목제품 등 임산물이 1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4%)를 차지했음.

□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5년 11월 중 남북교역액은 10,298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248만 달러에 비해 42.1% 증가하였음(전월 8,706만 달러 대비 18.3% 증가).

○ 반입은 4,37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2,920만 달러에 비해 49.7% 증가하였음(전월 3,512만 달러 대비 24.5%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3.5%, 농림수산물 30.8%, 철강·금속제품 8.5%, 광산물 6.2%, 전자·전기제품 6.3% 등임.

○ 반출은 5,92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4,328만 달러에 비해 36.9% 증가하였음(전월 5,194만 달러 대비 14.1% 증가).
-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53.7%, 기계류 8.2%, 섬유류 7.9%, 철강·금속제품 8.9%, 화학공업제품 8.2% 등임.

□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5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252만 달러로 전월 839만 달러 대비 49.2% 증가하고 11월 전체 반입액 4,371만 달러의 30.8%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표고버섯·식물성한약재 등 농산물이 350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8.6%), 로얄제리 등 축산물이 1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목제식탁용품 등 임산물이 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88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21.8%)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5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3,185만 달러로 전월 2,144만 달러 대비 48.6%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옥수수 등 농산물이 3,14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53.1%), 분유·기타 산동물 등 축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5%), 건축용목제품 등 임산물이 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2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5%)를 차지했음.

□ 1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5년 12월 중 남북교역액은 7,712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650만 달러에 비해 0.8% 증가하였음(전월 10,298만 달러 대비 25.1% 감소).

○ 반입은 3,223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2,150만 달러에 비해 49.8% 증가하였음(전월 4,371만 달러 대비 26.2%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20.2%, 농림수산물 37.6%, 철강·금속제품 11.6%, 광산물 12.9%, 전자·전기제품 6.0% 등임.

○ 반출은 4,489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499만 달러에 비해 18.3% 감소하였음(전월 5,226만 달러 대비 14.1% 감소)
-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29.6%, 기계류 15.2%, 섬유류 16.6%, 철강·금속제품 12.8%, 화학공업제품 9.7% 등임.

□ 1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5년 12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212만 달러로 전월 1,252만 달러 대비 3.2% 감소하고 12월 전체 반입액 3,223만 달러의 37.6%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표고버섯·호도 등 농산물이 27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8.4%), 합판 등 임산물이 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2%), 어패류 등 수산물이 933만 달러(전

체 반입액의 28.9%)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5년 12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327만 달러로 전월 3,185만 달러 대비 58.3%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당근 등 농산물이 1,28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8.7%), 분유·돼지 등 축산물이 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건축용목제품 등 임산물이 2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5%), 어패류 등 수산물이 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를 차지했음.

표 1 2005년 10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847,492	1,787	5.1	**농산물**	72,226,835	21,020	40.5
녹두	100,000	100		쌀	71,501,793	19,566	
기타 채유종실	600	1		밀가루	167,035	174	
기타 과실	14,200	9		기타 곡분	936	3	
기타 곡실류	12,000	44		사과	846	3	
호박	166,156	45		배	1,801	2	
기타 채소	203,128	277		오렌지	14,043	43	
고사리	61,612	287		배추	1,243	3	
영지버섯	500	10		양배추	1,015	2	
표고버섯	46,337	278		양파	9,444	25	
기타 버섯류	46,614	291		마늘	1,760	5	
기타 견과류	10,000	18		기타 채소	35,074	82	
된장	10,110	7		난초	12	-	
식물성한약재	111,195	279		기타 화초	8	-	
맥주	4,500	4		느타리버섯	1,042	3	
기타 주류	6,630	14		표고버섯	1,552	4	
과일주스	14,100	73		대두유	72	-	
기타 농산가공품	39,810	51		참기름	3,534	18	
				마아가린	1,400	3	
				기타 유지가공품	13,640	40	
				사료	37,678	13	
				효모류	750	2	
				고추장	1,784	4	
				겨자	1,120	6	
				마요네스	645	1	
				커피조제품	1,198	5	
				초코렛	27,698	132	
				제조담배	246	12	
				인삼류	263	1	
				소주	5,064	11	
				맥주	224,160	128	
				위스키	899	48	
				기타 주류	798	5	
				원당	4,605	2	
				정당	20,000	7	
				과일주스	11,380	15	
				기타 음료	300	2	
				사탕	230	1	
				비스킷	320	2	
				곡류가공품	40	-	
				빵	1,550	10	
				면류	18,658	183	
				빙과류	230	1	
				기타 농산가공품	110,969	450	
축산물	3,566	30	0.1	**축산물**	55,381	212	0.4
로얄제리	41	18		소	15,100	43	
모류	3,525	11		돼지	1,680	11	
				닭	180	21	
				소시지	1,901	4	
				로얄제리	50	-	
				분유	19,000	71	
				기타 낙농품	17,410	62	
				난류	60	-	
임산물	17,678	31	0.1	**임산물**	83,414	188	0.4
합판	2,525	1		합판	5,462	11	
목재틀	300	-		단판	500	1	
목제식탁용품	6,000	9		파티클보드	250	-	
목제장식품상자	638	3		건축용목제품	70,829	141	
기타 목재류	45	2		목재틀	83	1	
기타 임산부산물	8,170	16		기타 목재류	6,281	33	
				수목류	9	-	
수산물	3,589,805	6,548	18.6	**수산물**	19,477	22	0.04
명태	11,600	19		기타 어류	4,995	3	
기타 어류	6,109	20		피조개	1,260	3	
새우	52,292	192		기타 연체동물	9,870	7	
기타 게	8,533	47		기타 해조류	1,121	3	
문어	224,179	582		기타 수산가공품	2,231	6	
낙지	2,800	4					
피조개	35,594	78					
기타 조개	1,920,943	1,858					
기타 연체동물	816,443	1,438					
한천	1,045	4					
어육	2,400	7					
명란	3,243	4					
건조수산물	157,220	816					
기타 수산가공품	315,916	1,021					
기타 수산물	31,488	460					
합 계		8,396	23.9	**합 계**		21,442	41.3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72호(2005.10.1～10.31).

표 2 2005년 11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683,996	3,508	8.6	**농산물**	77,290,622	31,482	53.1
녹두	100,000	89		쌀	76,820,080	21,154	
기타 과실	8,675	12		옥수수	100	9,590	
기타 곡실류	2,040	2		밀가루	164,971	107	
호박	629,750	239		사과	15,421	46	
생강	11,820	5		배	1,575	5	
기타 채소	238,828	335		오렌지	6,192	17	
고사리	63,532	297		포도	644	2	
고비	6,060	21		수박	202	1	
영지버섯	18,370	87		양배추	1,783	2	
표고버섯	229,508	1,436		상추	2,977	8	
기타 버섯류	47,270	288		시금치	4,781	14	
호도	19,000	52		오이	670	2	
기타 견과류	100	1		양파	625	4	
식물성액즙	10,780	66		파	47	-	
식물성 한약재	119,295	412		기타 채소	38,265	73	
맥주	4,500	4		난초	13	-	
기타 주류	21,335	50		기타 화초	15	-	
물	33,628	23		고사리	4,050	15	
면류	45,000	34		고비	5,000	21	
기타 농산가공품	74,505	56		느타리버섯	686	2	
				기타 산식물	42,025	40	
				대두유	72	-	
				마아가린	1,400	3	
				사료	23,065	6	
				효모류	750	2	
				간장	360	1	
				커피조제품	1,463	8	
				초코렛	105	-	
				녹차	46	1	
				제조담배	221	8	
				소주	3,628	8	
				맥주	8,124	8	
				위스키	758	47	
				기타 주류	550	1	
				원당	4,605	2	
				검	20	-	
				비스킷	145	1	
				곡류가공품	10	-	
				빵	2,165	7	
				면류	10,101	31	
				기타 농산가공품	122,912	242	
축산물	13,062	140	0.3	**축산물**	8,245	28	0.05
기타 축산물부산물	200	4		기타 산동물	1,500	5	
로얄제리	12,862	136		소시지	1,120	4	
				로얄제리	50	-	
				분유	5,000	19	
				기타 낙농품	575	1	
임산물	39,034	41	0.1	**임산물**	102,896	52	0.1
건축용목제품	11,012	7		합판	4,008	12	
목제식탁용품	11,600	15		건축용목제품	98,167	33	
기타 목재류	6,022	2		목재틀	49	1	
기타 임산부산물	10,400	17		기타 목재생활용품	18	-	
				기타 목재류	220	5	
				수목류	34	1	
				종자류	400	-	
수산물	6,657,119	8,832	21.8	**수산물**	85,309	295	0.5
명태	210	-		기타 어류	4,950	3	
대구	224	-		오징어	16,711	24	
새우	67,500	371		기타 조개	700	2	
꽃게	3,500	7		건조수산물	8,270	49	
기타 게	23,181	95		기타 수산가공품	54,678	216	
오징어	22,500	41					
문어	275,386	712					
낙지	18,440	37					
굴	34,700	54					
피조개	17,661	38					
기타 조개	4,580,798	4,425					
기타 연체동물	1,157,395	1,413					
기타 해조류	1,000	5					
기타 염장수산물	36,000	74					
건조수산물	51,620	310					
기타 수산가공품	345,933	990					
기타 수산물	21,072	260					
합 계		12,521	30.8	**합 계**		31,857	53.7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73호(2005.11.1～11.30).

표 3 2005년 12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037,567	2,720	8.4	**농산물**	41,506,224	12,891	28.7
녹두	100,000	89		쌀	31,753,120	8,687	
기타 과실	7,040	5		팥	277	1	
호박	20,310	5		쌀가루	1,600	3	
생강	15,580	7		밀가루	57,000	16	
기타 채소	213,348	315		사과	1,156	4	
고사리	37,490	174		감	258	1	
죽순	660	1		오렌지	325	1	
표고버섯	162,137	1,062		감귤	2,716,178	859	
기타 버섯류	52,062	264		기타과실	725	3	
호도	79,000	359		시금치	211	-	
기타 견과류	19,000	11		당근	6,650,000	2,445	
식물성액즙	3,025	20		파	71	-	
기타 식물성물질	1,000	6		고추	1,944	7	
식물성 한약재	92,884	234		기타 채소	33,824	63	
기타주류	4,810	14		카네이션	42	3	
물	16,200	3		고비	4,890	20	
인삼음료	2,556	15		기타 버섯류	1,000	55	
과일주스	1,350	1		기타 산식물	28,000	138	
면류	27,960	20		대두유	72	-	
기타 농산가공품	181,155	116		마아가린	1,400	3	
				사료	58,000	21	
				빵제조용재료	560	10	
				효모류	750	2	
				간장	2,305	6	
				고추장	4,191	11	
				커피조제품	2,485	10	
				초코렛	38,448	8	
				제조담배	2,224	46	
				소주	209	1	
				맥주	2,930	3	
				포도주	5	-	
				위스키	1,189	58	
				기타 주류	1,292	8	
				원당	4,605	2	
				기타 음료	165	1	
				비스킷	2,111	12	
				곡류가공품	43,200	70	
				빵	1,063	5	
				면류	19,664	77	
				기타 농산가공품	65,519	212	
				종자류	3,213	16	
축산물				**축산물**	40,649	74	0.2
				돼지	30,000	45	
				소시지	2,470	5	
				로얄제리	550	7	
				분유	7,100	16	
				기타 낙농품	529	1	
임산물	37,838	76	0.2	**임산물**	354,688	220	0.5
합판	177	32		제재목	60,805	43	
건축용 목제품	150	1		합판	20,006	43	
목제식탁용품	10,821	18		건축용 목제품	272,550	113	
목제장식품상자	507	1		기타 목재생활용품	1,300	20	
기타 목재류	7,523	7		기타 목재류	27	-	
기타 임산부산물	18,660	17					
수산물	6,811,049	9,330	28.9	**수산물**	29,817	88	0.2
명태	15,040	16		기타 어류	4,950	3	
대구	3,622	7		오징어	873	4	
기타 어류	2,395	8		기타 연체동물	390	1	
새우	94,000	700		어류통조림	1,086	3	
기타 게	5,274	67		기타 수산물통조림	1,008	3	
문어	348,348	904		기타 수산가공품	21,510	74	
낙지	32,260	55					
굴	34,325	50					
피조개	6,740	14					
기타 조개	5,023,147	4,959					
기타 연체동물	782,011	992					
기타 염장수산물	32,550	66					
건조수산물	10,740	75					
기타 수산가공품	399,036	1,337					
기타 수산물	21,561	80					
합 계		12,126	37.6	**합 계**		13,273	29.6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74호(2005.12.1～12.31).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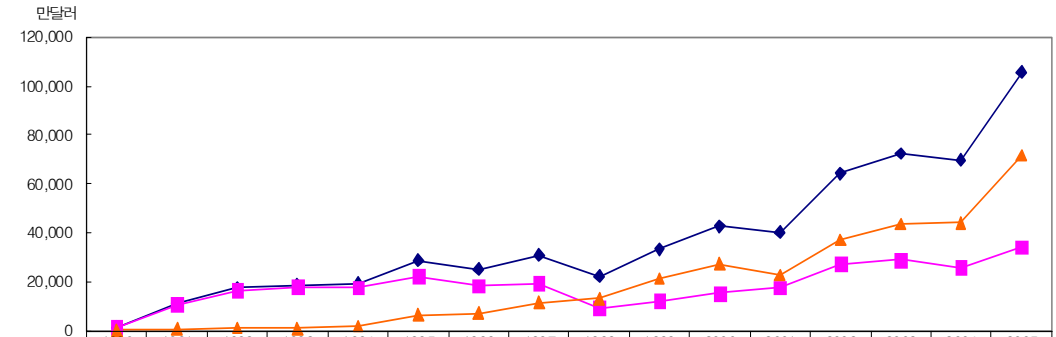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6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소 계	37,564	1,995	2,613,581	34,515	4,190	2,378,580	4,992,161	△235,001
2005.1	573 (411)	78 (74)	26,745 (20,753)	693 (309)	271 (119)	22,732 (15,955)	49,477 (36,689)	△4,013 (△4,792)
2005.2	446 (395)	83 (81)	19,980 (18,440)	577 (344)	263 (142)	26,954 (9,694)	46,934 (28,134)	6,974 (△8,746)
2005.3	532 (478)	94 (72)	30,252 (22,494)	891 (442)	258 (192)	39,486 (17,396)	69,737 (39,890)	9,234 (△5,098)
2005.4	599 (433)	92 (77)	23,273 (20,586)	722 (418)	264 (154)	29,489 (52,556)	52,762 (73,142)	6,216 (31,970)
2005.5	687 (431)	116 (74)	22,828 (17,272)	894 (494)	290 (217)	76,956 (70,176)	99,784 (87,448)	54,128 (52,904)
2005.6	594 (476)	111 (79)	19,343 (16,667)	1,101 (599)	336 (216)	116,079 (43,546)	135,422 (60,213)	96,736 (26,879)
2005.7	682 (430)	132 (76)	25,368 (18,506)	1,145 (738)	316 (208)	102,261 (29,913)	127,629 (48,419)	76,893 (11,407)
2005.8	874 (467)	159 (76)	32,618 (17,014)	1,220 (752)	327 (213)	77,134 (42,010)	109,751 (59,024)	44,516 (24,996)
2005.9	988 (551)	155 (79)	28,808 (24,928)	1,199 (782)	321 (208)	68,278 (34,744)	97,086 (59,672)	39,470 (9,816)
2005.10	1,024 (663)	163 (80)	35,123 (30,666)	1,140 (676)	339 (210)	51,941 (24,732)	87,064 (55,398)	16,818 (△5,934)
2005.11	1,261 (709)	151 (81)	43,713 (29,204)	1,081 (588)	317 (196)	59,268 (43,280)	102,982 (72,485)	15,555 (14,076)
2005.12	1,077 (496)	159 (69)	32,230 (21,508)	1,215 (810)	330 (208)	44,895 (54,991)	77,125 (76,499)	12,665 (33,483)
소계	9,337 (5,940)	379 (202)	340,281 (258,039)	11,878 (6,953)	712 (575)	715,472 (439,001)	1,055,754 (697,040)	375,191 (180,962)
총 계	46,901	2,319	2,953,864	46,393	4,902	3,094,051	6,047,915	140,190

주: 1) (　)안은 2004년 동기 실적임.
2)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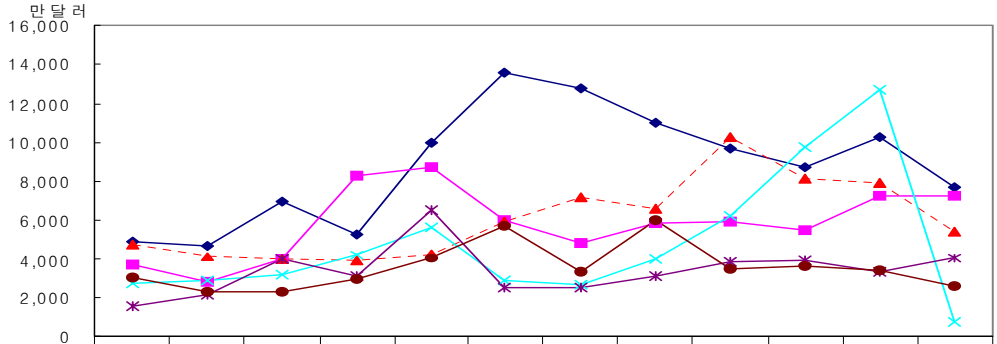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174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액	1,347	11,127	17,343	18,659	19,455	28,729	25,204	30,834	22,194	33,344	42,515	40,295	64,173	72,421	69,704	105,575
반입	1,228	10,572	16,286	17,817	17,630	22,286	18,240	19,307	9,226	12,160	15,237	17,617	27,157	28,925	25,803	34,028
반출	119	555	1,056	843	1,825	6,444	6,964	11,527	12,968	21,183	27,278	22,678	37,015	43,496	43,900	71,547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1	2	3	4	5	6	7	8	9	10	11	12
05년	4,947	4,693	6,973	5,276	9,978	13,542	12,762	10,975	9,708	8,706	10,298	7,712
04년	3,671	2,813	3,989	8,314	8,744	6,021	4,841	5,902	5,967	5,539	7,248	7,248
03년	4,736	4,141	3,937	3,888	4,235	5,963	7,219	6,584	10,261	8,151	7,894	5,408
02년	2,740	2,873	3,188	4,197	5,628	2,867	2,640	3,947	6,225	9,794	12,665	740
01년	1,566	2,114	3,976	3,051	6,555	2,466	2,501	3,089	3,792	3,862	3,295	4,028
00년	3,014	2,311	2,272	2,930	4,010	5,742	3,309	5,985	3,425	3,577	3,401	2,538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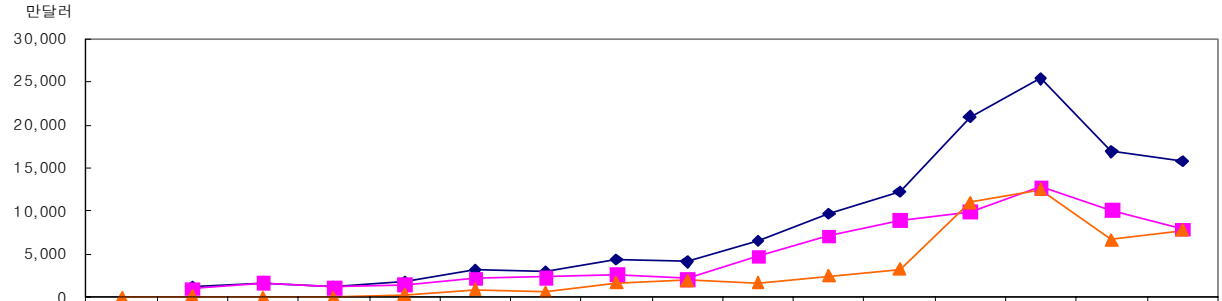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교역수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A+B)	(B-A)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소 계	251,735	2,390	49,405	396,295	699,826	397,749	17,072	9,495	11,873	436,189	1,136,015	△263,637
2005.1	3,198	4	14	8,218	11,434	1,022	266	94	116	1,498	12,932	△9,936
	(4,322)	(35)	(14)	(6,219)	(10,590)	(1,693)	(294)	(14)	(170)	(2,171)	(12,761)	(△8,419)
2005.2	2,134	97	42	4,970	7,243	763	72	44	82	961	8,204	△6,282
	(2,731)	(-)	(8)	(4,814)	(7,553)	(604)	(293)	(349)	(106)	(1,352)	(8,905)	(△6,201)
2005.3	1,723	221	25	7,191	9,160	936	265	307	144	1,652	10,812	△7,508
	(2,208)	(29)	(35)	(7,209)	(9,481)	(1,289)	(165)	(107)	(125)	(1,686)	(11,167)	(△7,795)
2005.4	1,284	19	51	4,778	6,132	1,622	183	651	54	2,510	8,642	△3,622
	(1,848)	(-)	(12)	(6,171)	(8,031)	(1,768)	(26)	(-)	(133)	(1,927)	(9,958)	(△6,104)
2005.5	1,885	61	80	7,063	9,089	1,505	325	260	176	2,266	11,355	△6,823
	(1,659)	(152)	(26)	(7,178)	(9,015)	(13,001)	(314)	(25)	(30)	(13,370)	(22,385)	(4,355)
2005.6	1,626	51	21	6,668	8,366	1,699	219	447	65	2,430	10,796	△5,936
	(3,698)	(103)	(22)	(6,140)	(9,963)	(1,693)	(132)	(394)	(138)	(2,357)	(12,320)	(△7,606)
2005.7	2,453	116	35	5,984	8,588	12,791	115	25	25	12,956	21,544	4,368
	(2,749)	(35)	(16)	(3,804)	(6,604)	(8,097)	(358)	(-)	(96)	(8,551)	(15,155)	(1,947)
2005.8	3,792	-	29	7,310	11,131	24,829	188	103	29	25,149	36,280	14,018
	(2,244)	(7)	(14)	(2,234)	(4,499)	(17,216)	(356)	(145)	(28)	(20,045)	(30,433)	(9,657)
2005.9	3,330	95	21	5,248	8,694	28,136	5	229	130	28,500	37,194	19,806
	(3,858)	(13)	(10)	(4,810)	(8,691)	(6,424)	(257)	(543)	(632)	(7,856)	(16,547)	(△835)
2005.10	1,787	30	31	6,548	8,396	21,020	212	188	22	21,442	29,838	13,046
	(2,134)	(51)	(23)	(4,634)	(6,842)	(1,249)	(129)	(284)	(165)	(1,827)	(8,669)	(△5,015)
2005.11	3,508	140	41	8,832	12,521	31,482	28	52	295	31,857	44,378	19,336
	(1,798)	(5)	(47)	(7,363)	(9,214)	(6,011)	(20)	(62)	(67)	(6,160)	(15,374)	(△3,054)
2005.12	2,720	-	76	9,330	12,126	12,891	74	220	88	13,273	25,399	1.147
	(3,716)	(13)	(17)	(7,633)	(11,379)	(1,604)	(329)	(197)	(285)	(2,415)	(13,794)	(△8,964)
소계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총 계	-		-	-	779,663	-		-	-	514,111	1,293,774	△265,552

주: 1) (　　)은 2004년 동기 실적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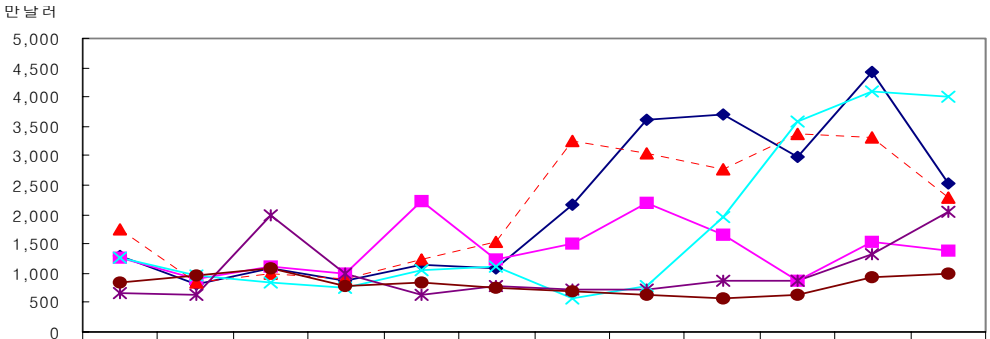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제127～174.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액		1,243	1,697	1,208	1,857	3,163	3,017	4,435	4,144	6,554	9,731	12,230	21,009	25,319	16,900	15,775
반입		1,082	1,691	1,202	1,525	2,232	2,346	2,733	2,180	4,787	7,193	8,981	9,990	12,763	10,186	7,983
반출	1	161	6	7	332	931	671	1,702	1,964	1,767	2,538	3,249	11,019	12,556	6,714	7,792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1	2	3	4	5	6	7	8	9	10	11	12
05년	1,293	820	1,081	864	1,135	1,079	2,154	3,628	3,719	2,983	4,437	2,539
04년	1,276	890	1,116	995	2,238	1,232	1,515	2,196	1,654	866	1,537	1,379
03년	1,757	846	1,007	916	1,250	1,526	3,246	3,043	2,781	3,364	3,299	2,279
02년	1,255	977	839	764	1,050	1,129	574	769	1,950	3,590	4,107	4,003
01년	677	624	1,979	992	634	787	712	725	866	880	1,318	2,037
00년	851	964	1,083	774	846	744	707	631	583	626	923	999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2005년 10~12월 중 농림수산분야에서 제일유통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12월 말 현재,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는 총 16개로 전체 217개 기업(단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음. 승인된 협력사업 189건 중 농림수산분야는 14건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2005년 12월 말 현재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미홍식품**(합 영)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불 (47만불)*	'97.5.22 ('98.3.13)*
파라우수산(합 영)	조선은파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불	'97.8.1
금오식품(합 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태영수산/LG상사** (합 영)	광명성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 원산	200만불 (65만불)*	'97.10.14 ('98.8.28)*
안홍개발(합 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두레마을영농조합법인** (합 작)	라선경제협조회사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 선봉	800만불 (200만불)*	'98.4.8 ('98.7.27)*
국제옥수수재단** (조사·연구)	농업과학연구원→ 농업과학원 ('99.3.25)	새품종 생산력 검정시험 및재배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수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9억원 →216억원* ('99.3.25)*	'98.6.18 ('99.6.18→ '01.6.20)*
백산실업**(합 영)	함경북도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해주(합 작)	광명성총회사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1.8
(주)G-한신 (주)경평인터내서널**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 (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	평양	-	'03.10.31 ('04.3.20)*
(주)안동대마방직**	새별총회사	북한내 대마재배 및 삼베제품	평양, 황해도	250만불*	'04.2.18 ('04.9.17)*
제일유통**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	평양	546천불*	'04.8.21 ('04.8.21)*
상하씨앨**(계약)	개선무역총회사	농수산물 및 토산물 가공공장 설립·운영	남포	5만불*	'04.9.17 ('04.9.17)*
(주)제이유네트워크**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공장 설립 및 유통·판매	평양	160만불*	'04.12.30 ('04.12.30)*
(주)에너지극동개발	광명성총회사	사료 제조·판매	평양	-	'04.12.30
아이니무역**	개선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반입·판매	원산	15만불*	'05.06.15 ('05.06.15)*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나무재배 및 판매	황북 봉산 황남 연덕	26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과수재배 및 생산물 판매	평양 만경대	164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소사육 생산 및 판매	평양	30만불*	'05.12.30 ('05.12.30)*

주: 1) *는 협력사업 승인 금액 및 날짜임.
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3)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금강산영농장사업은 현대아산이 영농장의 시설재·농자재를 금강산관광총회사에 연불수출(延拂輸出)하고 북한측은 생산물로 연불수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임(금강산관광총회사에서 영농장 운영은 고성군인민위원회에, 생산물 납입가격 협의는 광명성총회사에 위탁).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74호.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일부, 2005. 11. 7)

○ 개정이유

-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법률 4675호, 1993. 12. 31. 공포, 1994. 1. 1. 시행)으로 남북협력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채권발행 및 채권사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신청에 대하여 그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1993년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으로 남북협력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동법시행령의 채권발행 및 채권사무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3조, 제4조 삭제)
-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20일로 규정(안 제7조제2항)

□ 2005년도 남북교류협력 관련 규제 개혁과 민원제도 개선 내용 (통일부, 2005. 11. 5)

○ 2005년 들어 교류협력 관련 규제 개혁과 민원제도 개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방북 및 협력사업 추진 민원인들에게 사후 서비스와 사전 서비스 실시

- 교류협력시스템을 이용, 민원 접수 시점부터 처리완료 시점까지의 과정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과정을 알 수 있도록 조치

○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개정, 북한주민 접촉과 방북절차 등을 간소화
- 수많은 인원이 남북을 오가는 상황을 반영하고, 보다 많은 접촉과 방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①북한주민접촉 신고제(이전 승인제) 전환, ②방북신청 처리기간 단축(20일→10일), ③북한 방문기간 연장 근거 마련, ④재외국민 북한방문 신고기간 단축, ⑤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및 유효기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함.

○ DMZ(남북관리구역)을 넘나드는 우리측 인원과 물자의 출입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 남북 연결도로 개통 이후 육로를 통한 남북왕래 인원과 물자가 증가하고, 개성공단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출입통행 및 통관 절차가 30분 내외로 단축
- 국방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①남북협력사업자의 협력사업 물품 반출입 신고제 폐지, ②경의선 남북관리구역 통행시 군(軍)의 별도검색 폐지, ③경의선 민통선 출입시 방북차량 전용차선제 운영 및 방북차량 확인방법 개선, ④개성공단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검사의 선별검사로의 전환, ⑤수송장비 운행과 관련한 절차를 개선, ⑥금강산 관광객의 신원조회 및 방문 절차 등을 간소화

○ 남북경제협력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력사업자에 대한 기금대출 제도와 손실보조제도 등을 개선
- ①북한지역 소재 자산의 정규・후취담보 인정 등을 통한 대출 확대, 금융기관 협조대출 제도 도입, ②남북교역 손실보조 수수료율 개선 및 경협사업 손실보조 지급사유 발생 요건 완화, ③북한내 SOC 투자 대출제도 도입 및 지원요건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통일부, 2005. 11. 21)

○ 통일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5년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동 시행령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1990년 제정 된지 15년 만에 개정(법률 제7539호, 2005. 5.31 공포, 2005.12.1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정되는 것임.

○ 동 시행령 개정의 특징은 방북조건을 완화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민원처리 기간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었음.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 민원처리기간 단축 : 20일→10일(개정안 제10조제1항)
- 신청서류 간소화 : 신원진술서→인적사항으로 대체(기재사항 대폭 생략), 제출사진 4매→1매(개정안 제10조제1항)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폐지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개정안 제11조제1항)

○ 초청장 형식완화(개정안 제10조1항5호)
- 현행 :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 개정 :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반영한 규정 신설
- RFID 시스템 실시 대비 전자식 카드 발급 근거 마련
- 사전계획 없이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해 북한주민과 접촉한자의 경우 사후신고로 갈음(개정안 제19조제6항제5호)
- 협력사업자승인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신설
- 남북한간 이동하는 인원·물품·수송장비 등의 통계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개정안 제49조의2)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부과기준 등(개정안 제54조, 별표)

○ 기타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방문기간 연장 신청 근거 마련(개정안 제10조의2)
- 수시방문증명서 소지자의 수시방문신고 처리기간 단축: 7일→3일(개정안 제12조의 3)
-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확대 : 3년→5년(개정안 제16조)
- 방문증명서 반납규정 삭제(개정안 제17조제1항)
- 북한주민접촉을 신고한 자에 대해 접촉신고를 수리하거나 수리를 거부 여부 통보(개정안 제19조)
-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와 북한주민접촉 신고시 민원처리 기간 단축
- 남북출입장소 추가(개정안 제2조)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인 전문가(3명) 임기 규정(개정안 제3조의2)
- 제출서류 생략 및 양식 간소화 등

□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2005년 사업 정리와 2006년 사업방향 협의(통일부, 2005. 12. 8)

○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들과 정부간의 협의기구인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4차 회의가 12월 8일 통일부에서 개최되어 민관 합동사업, 긴급재난구호활동 매뉴얼 작성, 대북지원 10년 백서 발간 등 금년도 사업평가와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함.

- 합동사업은 △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 축산사료 자급 시범사업, △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시범사업, △ 모자보건·복지 시범사업, △ 농업, 보건용수 개발 시범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92억원 규모
- 긴급재난구호활동 매뉴얼은 긴급재난 발생시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 준비 노력으로 추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 민관합동사업 주요내용 >

분과	사업명	주요내용
일 반 구 호	주거환경 개선시범사업	- 사업내용 : 도시 취약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시범건축, 생필품 키트 공급 - 사업비 : 총 8.2억원
농 업 축 산	축산사료 자급시범사업	- 사업내용 : 북한주민의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 단백질 공급원인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료공장 시설개선 및 사료생산 자재 및 기술지원 - 사업비 : 총 16억원 - 참여단체 : 국제옥수수재단,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복지재단
보 건 의 료	보건의료 인프라개선 시범사업	- 사업내용 : 보건의료체계 단계별로 구역병원, 지방병원을 선정하여 진료시설 및 설비를 개선하고 의료기술과 의료장비 수리·관리 기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사업비 : 총 30억원
복 지	모자보건·복지 시범사업	- 사업내용 : 출산과정 및 5세 이하 어린이 성장과정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한 영양사업(콩우유, 영양빵 지원), 의료·위생·교육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1개 군을 선정, 연인원 어린이 약150만명·산모 3만명 수혜) - 사업비 : 총 27.4억원
기 타	농업, 보건 용수개발 시범사업	- 사업내용 : 북한 지하수 개발을 통해 깨끗한 식수원을 개발 하고 의료시설 및 협동농장 등에 필요한 보건·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자재 지원 - 사업비 : 총 8억원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통일부, 2005. 12. 8)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과의 기본적 관계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 남북회담 대표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의 절차를 포괄적으로 규율함.

- 명실상부하게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제4조)을 구체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법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라면 동 법은 남북간의 기본적 관계와 당국차원의 대북협상·합의 등에 대해 규율한 법으로서 실체법적 성격이 강함.
- 북한의 정치적 실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
-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명시된 "특수관계" 규정을 법적으로 인용

< 법안의 주요 내용 >

○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① 법 제정의 목적(제1조)

-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②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원칙(제2조)

- 기본원칙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국가가 입각해야 할 준칙
-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자주·평화·민주"의 통일원칙을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으로 규정
-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추진과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을 금지, 대북정책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유도

③ 남북관계를 '특수관계, 내부거래' 로 규정(제3조)

- '특수관계'는 현 시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기존 남북관계 현실을 잘 반영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념
- 남북간 거래의 성격을 국내법적으로 '내부거래'로 규정, 대외교섭력 강화 도모

○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제6조～제14조)

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 규정(제6조～제12조)

- 정부의 책무로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재정상의 책

무를 규정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이 국내정치적 상황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유도

②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관련 규정(제13조)

- 정부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이 중장기적 비전 아래 추진되도록 유도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규정은 대북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기여

③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규정(제14조)

-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포괄적인 대북정책 협의기구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제15조～제20조)

①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의 임명(제15조)

-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지던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법적 절차에 따른 투명한 대북정책 추진에 기여

② 공무원의 북한 파견(제16조)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성) 등에 대한 공무원 파견의 근거규정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상주연락대표부 등의 개설에도 적용

③ 통일부장관의 지휘·감독권 규정(제18조)

- 통일부장관이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 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남북회담과 대북 교섭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제21조～제23조)

①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제21조)

-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합의서가 선언적 내용을 넘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는 현실을 고려, 내용의 경중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국회동의 등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 남북합의서는 국가간에 맺어지는 엄밀한 의미의 “조약”은 아니나, 남북간 특수관계에서 맺어지는 “특수조약(광의의 조약)”으로 보고, 헌법에서 정한 조약방식에 준하여 절차를 규정

②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및 효력정지(제23조)
-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남한과 북한사이에 적용되고, 대통령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

○ 부 칙
① 국회동의 절차를 거친 남북합의서에 대한 경과조치(2항)
- 이 법 시행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도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본다고 규정, 이미 국회동의 절차를 거친 13개 남북경협합의서도 이 법에 의한 국회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

<참고자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북회담대표"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대북특별사절"이라 함은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재정상의 책무)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①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 참석, 남북합의서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남북회담대표가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남북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2인 이상의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3. 북한에 정부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행위

제18조(지휘·감독 등)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감독을 한다.

②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는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본다.

<참고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주체94(2005)년 7월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2호로 채택

제1조(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은 남측과의 경제협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북남경제협력에는 북과 남사이에 진행되는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남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북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남측의 법인, 개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북남경제협력원칙)
북남경제협력은 전 민족의 리익을 앞세우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호상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진행한다.
제5조(지도기관)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제6조(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임무)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북남경제협력계획안의 작성
2. 북남경제협력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
3.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합의서, 계약서의 검토
4. 북남경제협력에 필요한 로력의 보장
5. 북측지역에 있는 남측당사자와의 사업
6. 남측당사자의 북측지역 출입방조

7. 북남경제협력물자의 반출입 승인
8. 북남당사자 사이의 련계보장
9. 북측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10. 이밖에 정부가 위임하는 사업

제7조(협력사업의 기초, 방법)
북남경제협력은 당국사이의 합의와 해당 법규, 그에 따르는 북남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직접거래의 방법으로 한다.

제8조(협력금지대상)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 민족의 미풍량속에 저해를 줄 수 있는 대상의 북남경제협력은 금지한다.

제9조(협력장소)
북남경제협력은 북측 또는 남측지역에서 한다. 합의에 따라 제3국에서도 북남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

제10조(북남경제협력의 승인)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승인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승인없이 북남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

제11조(협력신청서의 제출)
북남경제협력을 하려는 북측 또는 남측 당사자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에 해당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남측 당사자는 공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담보문서를 함께 내야 한다. 신청서의 양식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정한다.

제12조(신청서의 검토처리)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승인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낸다.

제13조(출입증명서의 지참)
북남경제협력의 당사자는 남측 또는 북측지역에 출입할 경우 북남당국사이의 합의에 따르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송수단에도 정해진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제14조(검사, 검역)
북남경제협력당사자 또는 해당 수송수단은 출입지점이나 정해진 장소에서 통행검사, 세관검사, 위생검역 같은 검사와 검역을 받아야 한다. 북남 당국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5조(남측당사자의 체류, 거주)
북남경제협력을 하는 남측당사자는 출입사업기관의 승인을 받고 북측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공업지구와 관광지구에서의 체류, 거주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6조(재산리용, 보호)
북남당사자는 경제협력에 화폐재산, 현물재산, 지적재산 같은 것을 리용할 수 있다. 투자재산은 북남투자보호합의서에 따라 보호된다.
제17조(로력채용)
북측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남측당사자는 필요한 로력을 북측의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남측 또는 제3국의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반출입승인)
북남경제협력물자의 반출입승인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공업지구, 관광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제19조(관세)
북남경제협력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공업지구와 관광지구에 들여온 물자를 그대로 북측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리용, 보험가입)
북측지역에서 남측당사자의 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리용, 보험가입은 해당법규에 따른다. 북남당국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결제은행, 결제방식)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결제업무는 정해진 은행이 한다. 결제방식은 북남당국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제22조(사고에 대한 구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북측지역에서 남측당사자 또는 그 수송수단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때에 구조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북남경제협력사업내용의 비공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사업내용은 상대측 당사자와 합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24조(사업조건 보장)
해당 기관은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사업조건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감독통제)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북남경제협력질서를 정확히 지키도록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26조(제재)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사업중지, 벌금부과 같은 행정적 책임을 지운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수도 있다.
제27조(분쟁해결)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로 해결할 수도 있다.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2005년 12.13～16 제주에서 개최

○ 양측은 전체회의 2회,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대표접촉을 진행하여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남북간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9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함.

《 합의사항 》

1.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함.
2.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
3.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들어 조속히 개최
4.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균형적·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남북 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
   ① 남북 경제협력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업종·규모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
   ②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통행·통관·통신,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등의 조속한 추진에 인식을 같이하고, 경추위를 통해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함.
5.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인도주의사업들을 적극 추진
   ① 2월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문제들을 협의·해결
   ② 2월말경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 및 3월말경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금강산 진행
6.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
7.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사업에 서로 협력
8.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온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으로 원소재지인 북측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
9.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3.28～31 평양에서 개최

≪역대 장관급회담 개최 현황≫

· 제1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6개항 합의('00.7.29～7.31, 서울)
· 제2차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7개항 합의('00.8.29～9.1, 평양)
· 제3차 :『경추위』설치 등 6개항 합의('00.9.27～9.30, 제주도)
· 제4차 : 경협합의서 서명·교환 등 8개항 합의('00.12.12～12.16, 평양)
· 제5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13개항 합의('01.9.15～9.18, 서울)
· 제6차 : 합의사항 없음('01.11.9～11.14, 금강산)
· 제7차 : 철도·도로 착공 등 10개항 합의('02.8.12～8.14, 서울)
· 제8차 : 북핵문제 해결 등 8개항 합의('02.10.19～10.23, 평양)
· 제9차 : 교류·협력 지속 추진 등 합의('03.1.21～1.24, 서울)
· 제10차 : 북핵문제 해결 등 6개항 합의('03.4.27～4.29, 평양)
· 제11차 : 적절한 대화방법으로 핵해결 등 6개항 합의('03.7.97～12, 서울)
· 제12차 : 당면 문제 입장 표명, 7차 경추위 개최 등 합의('03.10.14～17, 평양)
· 제13차 :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등 6개항 합의('04.2.3～6, 서울)
· 제14차 :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 합의('04.5.4～7, 평양)
· 제15차 : 8.15행사 당국대표단 파견 등 12개항 합의('05.6.21～24, 서울)
· 제16차 :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 노력 등 6개항 합의('05.9.13～16, 평양)

□ 통일부, 남북경협비용 발표(2005. 12. 21)

○ 15년간 순수 남북경협비용은 7천5백억원(연평균 5백억)
- 경협기반사업은 15년간 남북협력기금 2조6천억원의 29%
- 대북지원은 1995-2004년 9년간 1조 3,012억원을 지원, 국민 1인당 연평균 부담액은 2,710원 (2.5$)

○ 2004년 남북교류협력비용은 약 4,300억원으로 GNI(국민총소득) 780조의 0.055% 수준
- 이는 '04년 ODA(공적개발원조) 4.2억불(GNI의 0.06%) 과 비슷한 규모

< 남북협력기금 사용내역(1991～2005.12) >

주요사용처	식 량	비 료	철도·도로	경협지원·융자	기 타	계
투자액	1조 484억	6,218억	5,753억	1,758억	3,466억	2조 7,679억

□ 2006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경제·농업분야 내용과 평가

< 경제분야 >

○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업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한 가운데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총집중할 것"을 촉구, 농업증산을 통한 「먹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경제과업으로 제시

○ 전력·석탄·금속·수송 등 기간산업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분야에서의 증산을 촉구하면서 "긴요하고 실리 있는 대상부터 하나하나씩 개건현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 산업시설 현대화에 역점을 둘 것임을 시사

○ 예년과 같이 "경제사업의 내각 집중 및 운영권 강화, 경제부문 일꾼들의 경영·기업전략"을 강조, 내각 및 경제관료 중심의 경제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임을 표명

< 농업분야 >

○ 작년 농업부문에서 이룬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005년 초에 강조하였던 기존의 농업시책을 2006년에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

< 2006년 신년공동사설의 농업부문 내용 >

시 책		내 용
2005년 농업 평가		"온 나라가 떨쳐나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함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왔다."
2006년 기본 방향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내세우고 다시 한번 농사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한다."
비농업부문의 지원		"농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한다."
역점사업	작목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기반	"미루벌을 비롯한 도처에서 물길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토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요소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자료: 조선중앙통신 2006년 1월 1일자

□ 2006년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통일부 고시)중 한도물량 운영 품목 지정(통일부, 2006. 1. 26 현재)

< 반입승인품목중 반입한도물량 운영 품목의 반입 한도(2006.1) >

단위 : 톤

품목	연간 한도	개인 한도	기승인 물 량	반입제한	비 고
꽃게	400	20		7.1-8.31	4월중 공고후 반입승인 예정
붉은대게	700	50			암컷 및 치게 반입금지
새우 및 보리새우 (염장,염수장)	600	50			
가리비(냉동)	400	40		11-3월	국내양식 출하시기
오징어(냉동·신선)	400	20			
낙지(냉동)	200	20			
건명태(북어류)	2,000	50			3월중 공고후 반입승인 예정
들깨	1,000	50			2월초 공고 예정
당면	2,000	200			
땅콩조제품	1,200	100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전량 인도
고추제품류 (고추장 등)	300	50			기설비를 반출한 업체에 한함
참깨분	400	50			
메주	300	50			
호두	300	10			10월중 공고후 반입승인 예정

주) 개인한도 물량은 신청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국영무역품목중 한도물량 운영 품목의 반입한도(2006. 1) >

단위 : 톤

품목	연간한도	개인한도	기승인 물 량	비 고
녹두	500	100		
팥	1,000	200		
대두	1,000	200		콩나물콩 포함
참깨	300	100		

주) 1. 인도조건 : 보세구역 내에서 반입신고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양도
2. 승인여부 : 매건별로 한도물량 범위내에서 품위, 가격 등을 검토 후 결정
3. 반입승인 신청시 계약서에 북한내 생산지(시・군단위) 명기
4. 반입승인 후 70%미만 반입이행 업체는 향후 반입승인이 제한받을 수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통일부, 2006. 1. 18)

○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대응하여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통일부고시)을 개정함.

○ 주요 개선 내용
- 사업별로 사업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사업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지원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우리기업의 대북 교역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커버하는 손실보조의 약정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남북경협 현실과 업계의 요구를 반영
- 기금지원과 관련한 민원사무에 대해 지원결정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로 명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참고자료>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주요 개정 내용

1. 기금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사업심사위원회 설치

○ 기금사업의 추천, 심의, 평가 등을 통하여 기금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효과
- 운영 : 사업분야별(경제, 사회문화, 인도지원 등) 사업심사위원회 설치
- 기능 : 사업선별, 후보사업 선정, 지원결정, 사업평가 등
- 구성 : 10인 이내(통일부 및 관계부처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 민원사무처리기간 원칙 규정

○ 기금지원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공정한 업무처리와 고객의 편익 및 권익보호 효과
- 지원결정 처리기한 : 30일
- 1회 15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기금지원결정 예정기한을 통지

2. 손실보조제도 개선

□ 손실보조 약정한도 상향조정

○ 대북투자 손실보조 약정한도 : 현행 20억원 → 50억원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평균 투자금액 규모 감안(45억원)

○ 남북교역 손실보조 약정한도 : 현행 5억원 → 10억원

- 기업별 교역규모 확대에 따라 약정한도를 현실화

□ 손실보조 수수료 계산방법 개선

○ 수수료 1년 미만(초과) 잔여분 계산방법 개선

□ 손실보조 신청요건 완화

○ 현행 3년 이상 업력 → 1년 이상 업력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1)]

표 1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 1995.9~2005.12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1)]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캐나다 170, 덴마크 151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핀란드 70, 룩셈부르크 56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네덜란드 220, 호주 176, 덴마크 154, 핀란드 125 등
10차 '04.1~12	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노르웨이 377, 아일랜드 304, 영국 182, 핀란드 119, 덴마크 116, 뉴질랜드 106, 룩셈부르크 81 등
'05.1~12[2)]	-	4,459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스위스 79 등
총 계	230,642	160,275	65.6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유엔합동호소를 통해 지원하였거나 지원을 약속한 금액을 모두 포함함.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 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30, 2006)

표 2 2005년도 원조기관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실적 (2005.1.1～12.31)

지원창구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액(달러)
ADRA	영양보충 프로그램	스위스	107,563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스위스	290,085
			소계 397,648
AFSC	3개년 농업복구사업	스웨덴	627,451
			소계 627,451
CONCERN	보건, 교육, 농업, 조정업무	스웨덴	281,440
			소계 281,440
Cooperazione E Sviluppo	보건, 교육, 농업, 조정업무	스웨덴	281,440
			소계 281,440
FAO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제 긴급지원	노르웨이	200,000
	농업, 조정업무	스웨덴	1,125,694
			소계 1,325,694
German Agro Action	식량 지원 및 채소재배 개발 지원	독일	1,538,269
	유치원 어린이 겨울옷 및 신발 지원	독일	568,926
			소계 2,107,195
German Red Cross	의료장비 지원	독일	646,688
			소계 646,688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조림 핸드북 인쇄	카리타스	10,634
	의료지원단 파견	스웨덴	75,200
	의료지원단 파견	핀란드	59,375
	의료지원단 파견	노르웨이	57,031
	의료지원단 파견	네덜란드	114,063
	질병관리	영국적십자	107,681
	식수 및 위생 지원	스웨덴	438,462
	보건개선	핀란드	648,508
	국제적십자사 긴급지원 호소	덴마크적십자사	798,299
	국제적십자사 긴급지원 호소	일본적십자사	175,193
	국제적십자사 긴급지원 호소	호주	56,589
	국제적십자사 긴급지원 호소	덴마크	23,411
	국제적십자사 긴급지원 호소	호주적십자사	43,605
	국제적십자사 긴급지원 호소	노르웨이	384,843
	국제적십자사 긴급지원 호소(의료키트)	노르웨이	679,372
	국제적십자사 긴급지원 호소(현물)	핀란드	1,297,895
	국제적십자사 긴급지원 호소(현물)	독일	629,130
	부엌생활용품	중국	13,415
	전략적검토보고서	호주	3,825
	조림 및 자문에 관한 전략 검토	노르웨이	180,826
	식수 및 위생에 관한 전략 검토	스웨덴적십자	77,462
	식수, 위생, 보건 홍보	네덜란드적십자	582,850
	식수 및 위생 지원	네덜란드	1,210,783
			소계 7,668,452
OCHA	2005 국제협력틀 내 인도적 지원사업	스웨덴	266,930
	2005 국제협력틀 지원	스웨덴	266,930
			소계 533,860

지원창구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액(달러)
Swiss Humanitarian Aid	보건, 교육, 농업지원사업	스위스	169,492 소계 169,492
Triangle	보건, 교육, 조정업무	스웨덴	281,440 소계 281,440
유엔기구, NGO, 적십자사 등	북한 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건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	유럽연합 인도지원사무소	13,224,047 소계 13,224,047
UNICEF	유니세프 프로그램 인도적 지원 보건, 교육, 농업 지원 유니세프 프로그램 유니세프 프로그램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핀란드	471,690 471,690 707,200 204,657 389,106 소계 2,244,343
WFP	긴급식량지원 여성 및 어린이를 위한 긴급인도지원 가정 식량배급 식량지원 식량지원 식량지원 식량지원	독일 이집트 아일랜드 핀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627,353 3,880,983 302,297 518,807 276,120 1,322,314 3,764,115 소계 10,691,989
WHO	말라리아 방제 현금 및 현물지원 모자 보건을 위한 의료진 지원 보건지원 질병 감시 기능 강화사업 2005 국제협력지원 2005 국제협력지원 2005 말라리아 방제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질병 예방 군 단위 병원 및 수혈 서비스 강화 군 단위 기초보건 서비스 개선 모자보건 강화	한국 노르웨이 노르웨이 호주 스웨덴 스웨덴 한국 노르웨이 유럽연합 유럽연합 스위스	1,016,794 143,175 621,745 194,350 565,771 568,990 52,000 504,451 96,731 123,388 225,585 소계 4,112,980
		합 계	44,594,159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30, 2006)

표 3 2005년도 분야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실적 (2005.1.1～12.31)

분 야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농 업	농업복구사업	스웨덴	AFSC	627,451
	농업지원사업	스위스	SHA	169,492
	채소재배 개발사업	독일	GAA	1,538,269
				소계 2,335,212
조정 및 지원서비스	의료지원단 파견	스웨덴	IFRC	75,200
	의료지원단 파견	핀란드	IFRC	59,375
	의료지원단 파견	노르웨이	IFRC	57,031
	의료지원단 파견	네덜란드	IFRC	114,063
	질병관리	영국적십자	IFRC	107,681
	모자 보건을 위한 의료진 지원	노르웨이	WHO	143,175
	국제적십자사 긴급 지원 호소	호주	IFRC	56,589
	국제적십자사 긴급 지원 호소	덴마크	IFRC	23,411
	2005 국제협력	스웨덴	UNOCHA	266,930
	전략검토보고서	호주	IFRC	3,825
	질병감시 기능 강화	호주	WHO	194,350
	2005 국제협력	스웨덴	UNOCHA	266,930
				소계 1,368,560
식 량	긴급지원	독일	WFP	627,353
	여성, 어린이를 위한 긴급식량지원	이집트	WFP	3,880,983
	영양강화식품 가정 배급	아일랜드	WFP	302,297
	식량지원	핀란드	WFP	518,807
	식량지원	캐나다	WFP	1,322,314
	식량지원	독일	WFP	3,764,115
	식량지원	뉴질랜드	WFP	276,120
	영양보충 프로그램	스위스	ADRA	107,563
				소계 10,799,552
보 건	말라리아 방제 현금 및 현물 지원	한국	WHO	1,016,794
	보건 개선	핀란드	IFRC	648,508
	보건지원	노르웨이	WHO	621,745
	군 단위 기초보건 서비스 질 개선	유럽연합	WHO	123,388
	2005년 말라리아 방제	한국	WHO	52,000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질병 예방	노르웨이	WHO	504,451
	모자보건 강화	스위스	WHO	225,585
	군 단위 병원 및 수혈 서비스 강화	유럽연합	WHO	96,731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스위스	ADRA	290,085
	리 단위 병원 의료장비 지원	독일	GRC	646,688
				소계 4,225,975

분 야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다부문	식수 및 위생	스웨덴	IFRC	438,462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제 긴급지원	노르웨이	FAO	200,000
	인도적지원	스웨덴	CES	281,440
	인도적지원	스웨덴	CONCERN	281,440
	인도적지원	스웨덴	FAO	1,125,694
	인도적지원	스웨덴	Triangle	281,440
	인도적지원	스웨덴	UNICEF	707,200
	어린이 영양개선 지원	ECHO	UNHCR	13,224,047
	국제적십자사 긴급 지원 호소	일본적십자	IFRC	175,193
	국제적십자사 긴급 지원 호소	호주적십자	IFRC	43,605
	국제적십자사 긴급 지원 호소	노르웨이	IFRC	384,843
	국제적십자사 긴급 지원 호소	덴마크적십자	IFRC	798,299
	조림사업 전략 검토	노르웨이	IFRC	180,826
	식수 및 위생사업 전략 검토	SRC	IFRC	77,462
	2005년 국제협력	스웨덴	WHO	565,771
	식수 및 위생 홍보	NRC	IFRC	582,850
	유니세프 프로그램 기금	핀란드	UNICEF	389,106
	유니세프 프로그램 기금	영국	UNICEF	471,690
	유니세프 프로그램 기금	독일	UNICEF	204,657
				소계 20,414,025
주거 및 비식품	조림핸드북 인쇄	카리타스	IFRC	10,634
	국제적십자사 긴급 지원 호소	노르웨이	IFEC	679,372
	국제적십자사 긴급 지원 호소	핀란드	IFRC	1,297,895
	국제적십자사 긴급 지원 호소	독일	IFRC	629,130
	부엌용품	중국	IFRC	13,415
	유치원어린이 겨울의류 및 신발	독일	GAA	568,926
				소계 3,199,372
미분류	인도적 지원	노르웨이	UNICEF	471,690
	2005 국제협력	스웨덴	WHO	568,990
				소계 1,040,680
식수 및 위생	식수 및 위생사업	네덜란드	IFRC	1,210,783
				소계 1,210,783
			합 계	44,594,159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30, 2006)

표 4 2005년도 원조기관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실적 (2005.1.1～12.31)

지원국	지원액(달러)
호 주	254,764
호주적십자사	43,605
캐나다	1,322,314
카리타스	10,634
중 국	13,415
덴마크적십자사	798,299
덴마크	23,411
이집트	3,880,983
유럽연합	13,444,166
핀란드	2,913,691
독 일	7,774,481
아일랜드	302,297
일본적십자사	175,193
한 국	1,068,794
네덜란드	1,324,846
네덜란드적십자사	582,850
노르웨이	3,243,133
스웨덴	5,486,948
스웨덴적십자사	77,462
스위스	792,725
뉴질랜드	276,120
UNICEF 영국	471,690
UNICEF 독일	204,657
영국적십자사	107,681
합 계	**44,594,159**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30, 2006)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가. 유엔기구

□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으로 인해 식량안보 위협

○ 북한 당국은 2005년 말까지 모든 인도적 지원을 마무리 하도록 유엔에 요청하면서 개발 지원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밝힘.

- 이에 따라 FAO와 WFP는 1995년부터 매년 실시하던 북한의 연차 식량평가를 2005년에는 중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1995년부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연간 60~150만 톤씩 지원하던 식량의 지원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FAO와 WFP는 북한 식량생산량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식량생산량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가용한 정보를 종합할 때 2005/06 양곡연도의 식량생산량(감자 제외)은 390만 톤으로 추정됨으로써 2004/05 양곡연도의 360만 톤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북한은 2004/05 양곡연도 동안 총 126만 톤의 곡물을 외부에서 도입하였으며 이 중 51만 톤은 상업적으로 수입하였으며 순수 지원량은 75만 톤임.
- 외부 지원량 75만 톤 중 40만 톤은 한국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35만 톤은 다른 나라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음.

○ 2005/06 양곡연도의 예상되는 곡물 부족량은 89만 톤이며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차관 50만 톤, 상업적 수입량을 45만 톤으로 가정할 경우 전년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예상되는 곡물 소비수준 160kg(감자를 포함할 경우 180kg)은 국제기준의 영양 요구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 최근의 비교적 양호한 작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민의 27%인 644만 명이 곡물 부족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이어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대폭 감소할 경우 이들 취약계층의 식량안보는 크게 위협

받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FAO, Food security implications of suspending hamanitarian aid to Democratic Perople's Republic of Korea, Oct. 13, 2005)*

□ 세계식량계획, 북한은 인도적 지원이 아닌 개발 지원 원해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이 10년간의 인도적 지원을 종결해 달라는 요청을 해 옴에 따라 대북 개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의 평양주재 사무소장인 레이건씨는 북한 측과 상주 직원 수와 모니터링 방법을 둘러싸고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함.
- 로마에서 개최된 회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11월 중 평양에서 회의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시된다면 연간 식량지원 규모는 50만톤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만약 12월 중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세계식량계획은 평양 본부를 비롯하여 지방의 5개 분소, 19개의 식품가공공장을 폐쇄해야 할 것임.

○ 개발 지원은 더 많은 감시요원과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에너지 지원보다 더 힘들다는 것이 레이건 소장의 설명임.

- 북한 당국은 개발 지원에 대해 생소하며 그들이 생각하는 개발 지원 방식은 원조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음.
- 북한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개발 지원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한국 등과 같은 주요 원조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제각기 다른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임.
- 북한 당국은 우리의 모니터링 방식에 대해 계속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원조자로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인식하고 있음.

자료 : *http:/www.reliefweb.int (AFP, North Korea wants UN development assistance, not hunmanitarian aid: WFP, Oct. 31, 2005)*

□ 세계식량계획, 대북 식량지원계획 종결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이 개발 지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계획을 종결하고 있는 중임.

- 세계식량계획은 지방에 있는 5개의 지역사무소와 19개의 식품가공공장을 이미 폐쇄하였음.
- 세계식량계획은 650만 명의 지원 대상자 중 60만 명에게만 식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마저도 12월 말 이후에는 식량 지원을 중단할 예정임.
- 이틀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제임스 모리스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평양에 계속 머물면서 인도적 지원 대신 개발 지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북한 당국이 요청한 데 대해 일단 수락하고 현재 지원 조건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함.
- 세계식량계획은 개발 지원으로 전환하더라도 지원의 주된 대상은 여성, 어린이, 최빈계층 등 취약계층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고용인 2명을 포함하여 현재 북한에 34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개발 지원으로 전환하더라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음.
- 북한이 요청하는 농업개발 가운데는 관개체계나 도로 등 하부구조 건설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http:/www.reliefweb.int (AFP, WFP closing food aid program to North Korea, Dec. 15, 2005)*

□ 북한 당국자는 유엔의 대북 식량지원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

○ 제임스 모리스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자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합의가 늦추어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 당국자는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의 직원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 모니터링에 대한 주요 현안은 접근성, 책임성, 모니터링 능력, 직원수 등이며 수주일 이내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10년 동안 국제직원을 47명까지 고용하였지만 지금은 32명을 고용하고 있음.

자료 : *http:/www.reliefweb.int (DPA, North Korean concerns delay U.N. food aid agreement, Dec. 15, 2005)*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카리타스, 대북 지원사업 지속

○ 세계 162개 가톨릭 개발구호 및 사회복지 단체 연합회인 카리타스는 서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대북 개발구호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 카리타스는 1995년 11월 24일 대북 식량지원을 처음 시작한 이래 10년이 경과하면서 인도적 지원에서 점차 개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부분 지원 방식에서 능력 배양을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으로 접근방식을 전환하고 있음.
- 캐티 젤위거 카리타스 홍콩 사무국장은 열악한 도로조건, 불규칙적인 전기 공급, 열악한 물, 위생, 보건 시설로 인해 북한 주민은 삶의 질은 매우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농업, 식량지원사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Caritas, Caritas continues its work in DPRK, Nov. 11, 2005)*

□ 미국 국제개발처 앤드류 낫쇼스 처장의 발언

○ 미국 국제개발처 낫쇼스 처장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지만 이미 발표된 것처럼 세계식량계획의 모니터링 능력이 축소될 경우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 미국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20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였음.
- 2005년 6월 15일 미국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5만 톤의 식량을 지원키로 하고 절반은 이미 수송을 끝마쳤거나 수송 중임.
- 나머지 절반은 11월 말부터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내 감시활동이 지장을 받는다면 이는 실행에 옮기기 어려움.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SAID, Statement by USAID Administrator Natsios on U.S.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Nov. 9, 2005)*

□ 세계식량계획의 긴급보고서 2005년 48호

○ 세계식량계획은 2006년 사업에 대해 아직 북한 당국과 합의를 이루지 못함.

- 세계식량계획과 북한 당국은 지난주까지 평양에서 2006년 사업에 대해 협의를 계속

하였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

- 만약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세계식량계획은 취로사업, 모자보건 프로그램 및 지방 식품생산을 통한 영양 강화, 학교급식활동을 통한 교육개발 등을 통해 개발 지원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계획임.
- 식량배급을 재개한지 두 달이 가까운 시점에 양정사업소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많은 사람은 목표 배급량인 1인당 1일 500그램보다 아주 적은 양의 식량을 배급받고 있으나 시장의 곡물 거래마저 금지되어 있어 부족한 식량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감소로 11월에는 식량지원 대상자 650만 명 가운데 360만 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WFP, Emergency Report 2005-48, Nov. 25, 2005).*

□ 미국 농무부의 2005/06년 북한 곡물 상황 전망

○ 미국 농무부는 2005/06 양곡연도의 북한 곡물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15만 톤 증가한 364만 톤으로 1994/95년 이후 최대의 곡물 생산량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함.

- 옥수수는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지난 15년간 계속에서 그 비중이 감소해 옴으로써 이제는 쌀과 옥수수의 비중이 거의 비슷함.
- 북한은 이 밖에도 조, 수수, 감자 등 식량작물을 재배하지만 미국 농무부는 이들 작물에 대해서는 작황 예측에서 제외함.

○ 5년 전부터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1990년대 중반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로부터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식량 공급은 크게 부족한 실정임.

- 현재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북한에 다수확 곡물 품종을 소개하고 있으며 농업 경영방식 및 기술을 전수하고 있음.
- 북한은 식량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제한된 경작면적, 불리한 기상여건, 척박한 토양, 관개체계의 미비, 농자재의 부족,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음.

자료 : *http:/www.reliefweb.int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DA: North Korea grain situation - 2005/06, Nov. 18, 2005)*

□ 미국, 대북 식량지원 연기

○ 북한이 세계식량계획의 식량분배의 투명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 때문에 북한에 제공키로 한 25,000 톤의 식량 지원을 연기하고 있음.

- 북한은 현재 식량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원된 식량이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면 식량 지원을 계속할 수 없다고 미국 국무성이 밝힘.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의 57%가 건강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식량을 섭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delays procuring food aid for North Korea, Dec. 05, 2005)*

□ 한국, 대북 지원기금 2배로 늘림

○ 북한이 6자 회담을 회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대북 경제 및 인도적 지원 예산을 2배로 상향 조정함.

- 통일부는 2006년 남북경제협력기금이 전년에 비해 98% 증가한 2조 4,800억원(25억 달러)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힘.
- 2006년 남북경제협력기금은 경제 지원 및 남북 경제협력사업 1조 2,300억원, 경수로 건설로 인한 정부 부채 상황 1조 2,5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은 북한에 제공키로 한 2기의 경수로 건설 총비용의 70%인 1조 4,000억원을 부담하였으나 북한의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이 조성되면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던 건설 공사를 2005년 11월 중단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AFP, South Korea doubles fund for aid to North Korea, Jan. 18, 2006)*

농 업 자 료

- 북한의 기상

북한의 기상

□ 기 온

○ 금년의 기온은 6월 이후 11월까지 평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2월에만 평년에 비하여 낮았음.
- 10월 평균 기온은 11도로 평년에 비해 0.8도, 11월 평균 기온은 4.1도로 평년에 비해 1.6도 높았으나, 12월 평균 기온은 -8.3도로 3.7도 낮았음.
- 이러한 높은 기온은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12월에는 중강진을 비롯하여 북부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낮은 기온분포를 보임.

○ 수확기(9~11월)의 높은 기온은 벼와 옥수수의 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004년에 이어 2005년 가을에 수확한 벼와 옥수수의 수량이 높은 수준을 보임.
- 2005년 여름 성장시기의 높은 기온은 작물의 생육을 좋게 하였음.
- 7월~10월의 기온도 평년보다 높고 일조량도 충분하여 작물 생육에 매우 좋은 영향을 주었음.
- 특히 수확기인 9~10월의 높은 기온과 좋은 기상 조건으로 전체적인 작물생산은 최근 10년 중 최고에 달하였음.

□ 강수량

○ 2005년 4~6월은 비교적 풍부한 강수량을 보였으며, 9월 이후는 평년에 비해 적은 강수량을 나타냈음.
- 10~12월에는 전국적으로 평년에 비해 적은 강수량을 나타냈음.
- 그러나 12월의 강수가 너무 적어 2006년 봄 강수량이 적을 경우 봄가뭄이 예상됨.

○ 6월 이후 11월까지 높은 기온이 계속되고 강수량도 적어 작물의 등숙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음. 또한 수확기의 좋은 날씨로 인해 수확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음.
- 12월의 낮은 기온으로 내년도 병충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2월의 적은 강우로 인해 봄가뭄이 예상됨.

□ 누적강수량, 10～12월

단위: mm

선봉	삼지연	청진	중강	혜산	강계	풍산
20.9	28.3	14.5	29.0	19.4	40.6	7.2
(72.9)	(110.4)	(82.6)	(73.3)	(52.1)	(88.2)	(67.9)
김책	수풍	장진	신의주	구성	희천	함흥
27.0	43.2	12.3	20.3	18.3	29.0	9.5
(115.1)	(107.2)	(74.0)	(103.5)	(105.7)	(125.1)	(91.2)
신포	안주	양덕	원산	평양	남포	장전
10.6	23.5	23.4	32.2	62.8	36.3	55.3
(102.5)	(94.4)	(93.6)	(170.0)	(96.3)	(118.4)	(266.3)
사리원	신계	용연	해주	개성	평강	
72.9	50.5	64.0	59.5	60.1	78.0	
(106.0)	(106.4)	(92.1)	(92.1)	(97.2)	(122.1)	

* ( )는 평년 누적강수량을 나타냄.

□ 북한 주요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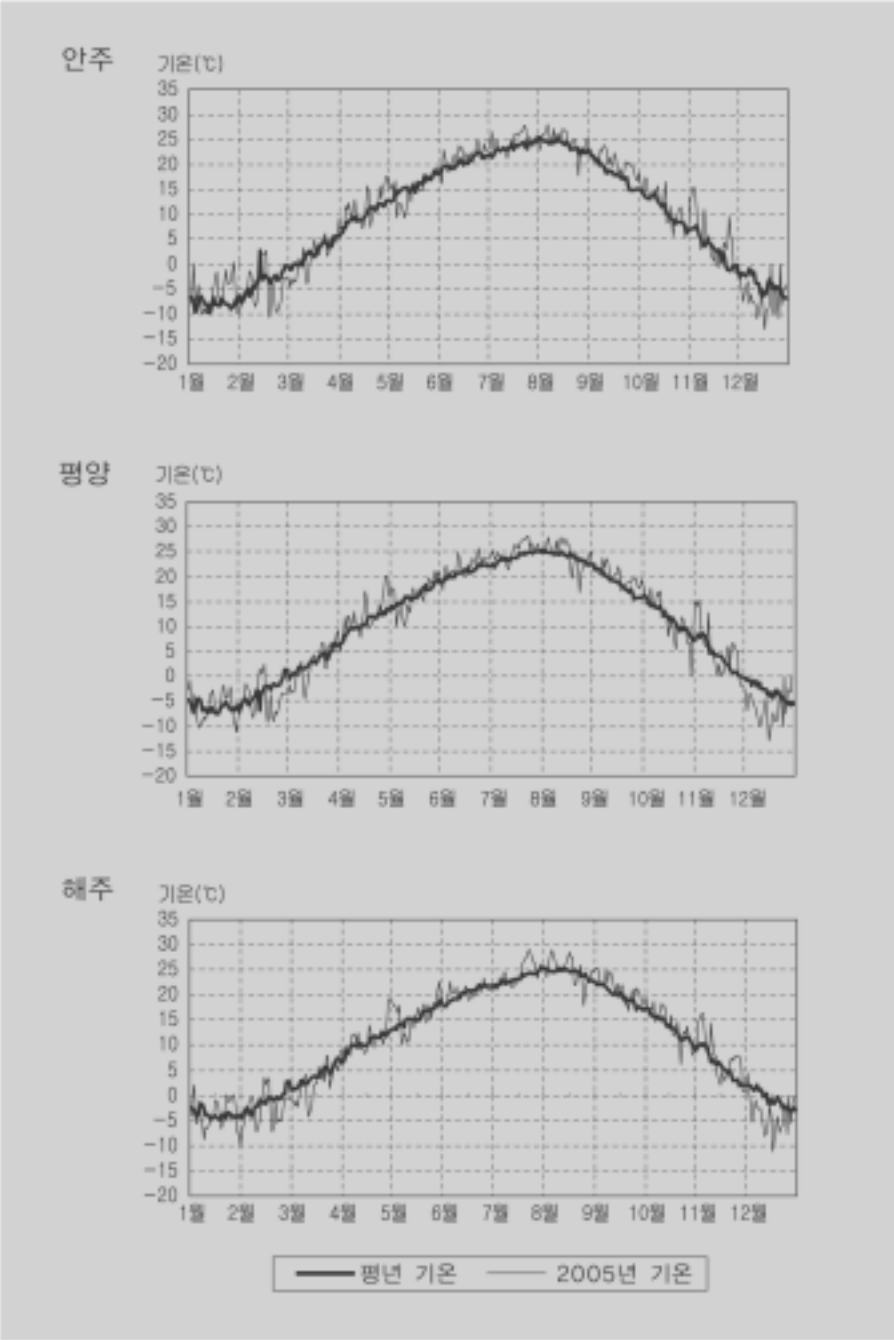
단위: ℃(기온), mm(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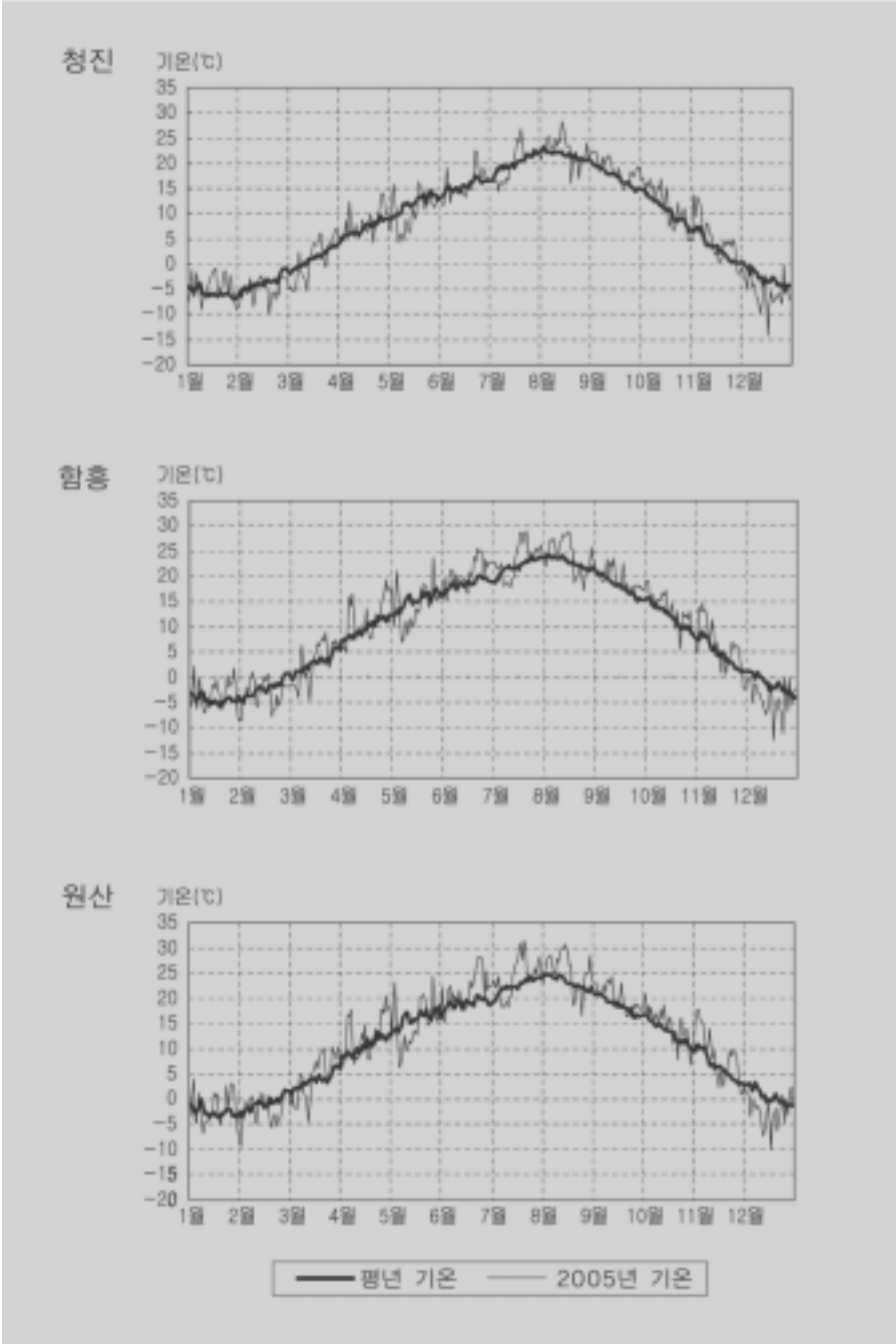
구 분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10월	기 온	12.0	12.4	14.1	12.0	13.4	14.7
		(11.1)	(11.8)	(13.6)	(10.9)	(12.0)	(13.4)
	강수량	15.0	19.2	25.3	10.3	4.0	18.1
		(41.2)	(43.3)	(36.0)	(30.4)	(40.1)	(66.3)
11월	기 온	5.4	5.6	7.8	5.3	6.5	8.9
		(3.3)	(4.1)	(6.1)	(3.5)	(4.7)	(6.6)
	강수량	26.2	38.0	30.0	3.2	11.0	25.2
		(38.7)	(34.6)	(38.8)	(33.3)	(36.0)	(74.7)
12월	기 온	-7.1	-6.3	-4.0	-5.7	-4.4	-2.3
		(-4.0)	(-3.1)	(-0.6)	(-2.7)	(-1.4)	(0.6)
	강수량	3.5	5.6	4.2	1.0	0.5	2.0
		(14.5)	(18.4)	(17.3)	(18.9)	(15.1)	(29.0)

* ( )는 평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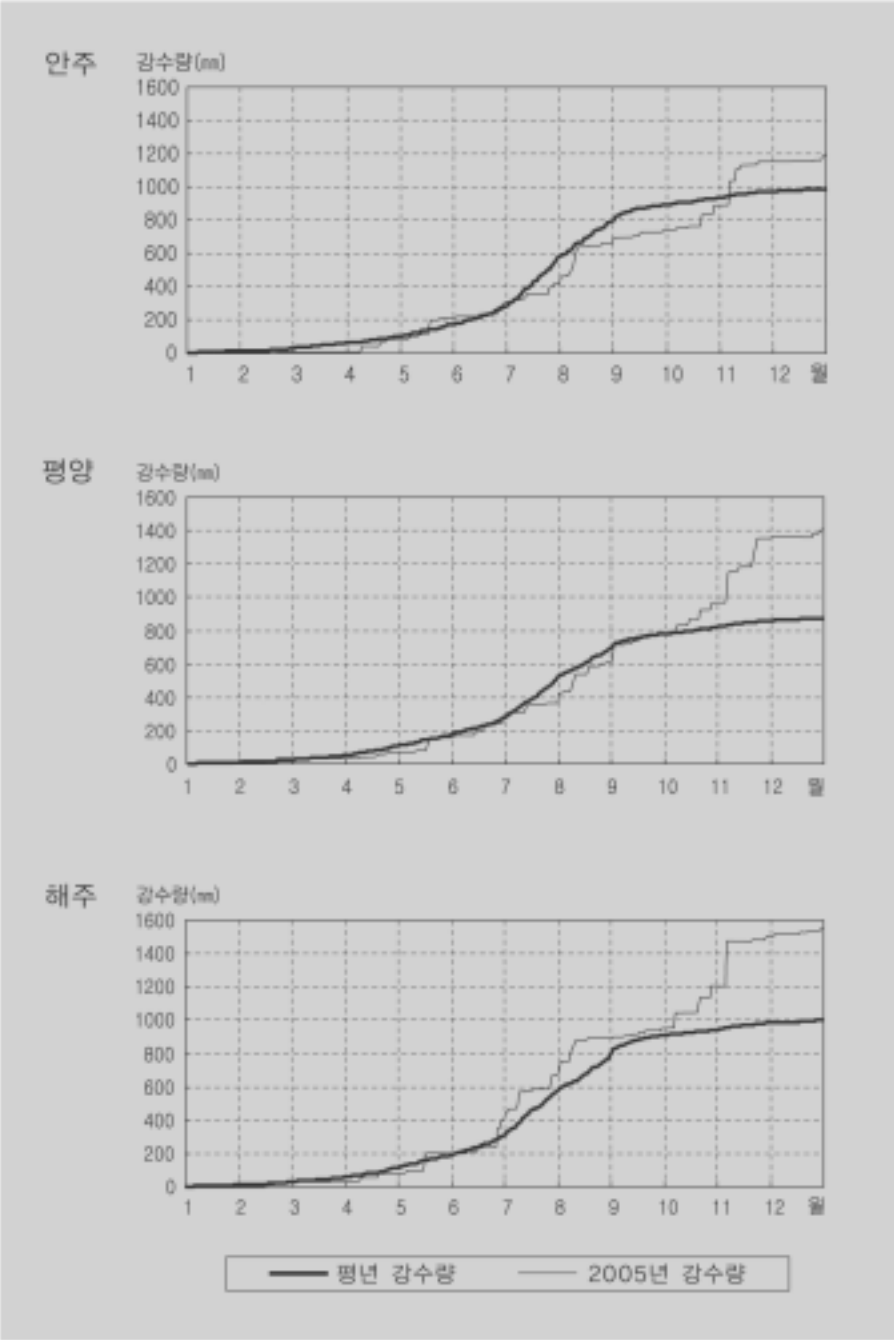
27개 기상관측지역의 평년 기후값 가운데 선봉, 청진, 중강, 혜산, 강계, 신의주, 함흥, 원산,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등 13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73~1994년이며, 삼지연, 풍산, 수풍, 장진, 구성, 희천, 신포, 안주, 양덕, 남포, 장전, 신계, 용연, 평강 등 14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81~1994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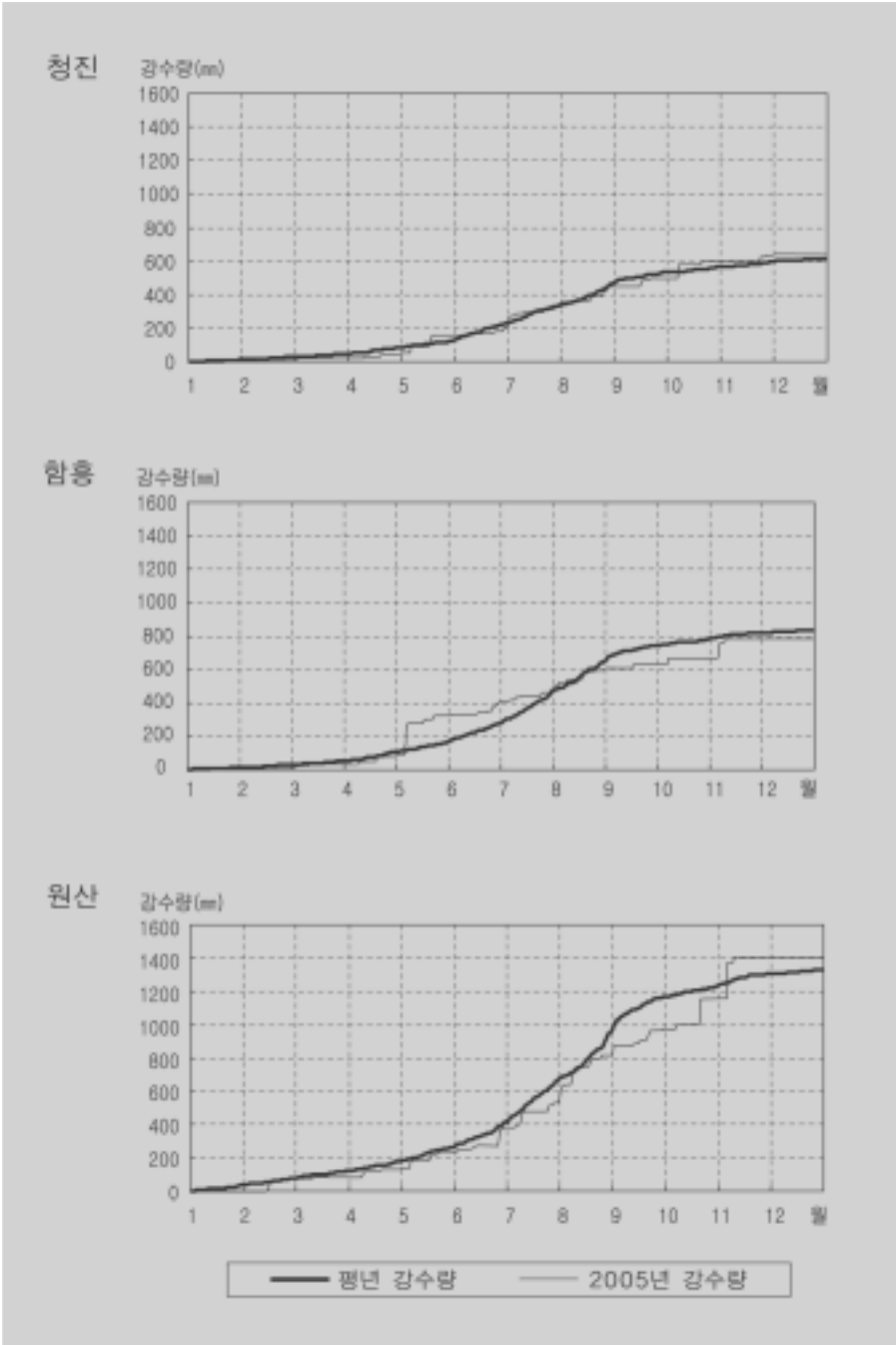
□ 월 평균기온


안주
기온(℃)
35
30
25
20
15
10
5
0
-5
-10
-15
-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양
기온(℃)
35
30
25
20
15
10
5
0
-5
-10
-15
-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해주
기온(℃)
35
30
25
20
15
10
5
0
-5
-10
-15
-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년 기온
2005년 기온


청진
기온(℃)
35
30
25
20
15
10
5
0
-5
-10
-15
-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함흥
기온(℃)
35
30
25
20
15
10
5
0
-5
-10
-15
-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산
기온(℃)
35
30
25
20
15
10
5
0
-5
-10
-15
-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년 기온
2005년 기온

□ 누적 강수량


안주
강수량(mm)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평양
강수량(mm)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해주
강수량(mm)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평년 강수량
2005년 강수량


청진
강수량(mm)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함흥
강수량(mm)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원산
강수량(mm)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평년 강수량
2005년 강수량

M46-7-4 KREI 북한농업동향 제7권 제4호

찍 은 날	2006. 01.	펴낸날	2006. 01.
발 행 인	최 정 섭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경희정보인쇄(주) (代) 2263-7534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